



www.umnlloan.com  
소중한 주택 응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니티드 플레이스 네이션과  
함께 아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703.534.4989

대표전화 : (703)281-9660 koreadaily.com

# 중앙일보

① The Korea Daily

COPYRIGHT 2024 제 691457호 Wednesday, December 31 2025 A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11706-L Fair Oaks Mall, Fairfax, VA 22033  
금·은  
매입 합니다  
703.691.1993

## 얇아진 지갑 탓에 기부도 줄였다

고물가에 소득은 제자리  
자선단체들 운영난 호소

팍팍해진 주머니 사정으로 올해 연말 기부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가 상승과 소득 정체,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기부 여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됐다는 분석이다.

공공문제연구센터 NORC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3명은 “올해 기부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또 지난 1년 사이 기부 활동에 1회 이상 참여했던 응답자 가운데서도 단 18%만이 “연말에 한번 더 기부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기부 의지가 크게 약화됐다는 평가다.

NORC 측은 연말 시즌에 기부 활동이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결과는 이례적이라고 분석했다. 기부 감소의 배경에는 펑펑해진 가계 사정이 자리 잡고 있다. NORC 측은 소득 증가, 물가와 높은 물가로 인해 기부 여력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1월 서부 지역 대형 산불을 비롯해 각종 자연재해가 잇따르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늘었지만, 기부자들로서는 지갑을 열 여유가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기관은 “기부자 숫자 자체가 최근 수년간 감소해 왔다”고 밝혔다.

한인 단체들도 기부 활동 위축을 체감하고 있다.

미주 지역에서 노숙자 무료 급식 사업을 하고 있는 ‘아버지 밤상교회’의 무디고 목사는 “무료 급식과 사업은 100% 기부로 운영되는데, 올해 기부금이 지난해보다 약 30% 줄었다”며 “인플레이션 등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부자들 사이에서도 여유가 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고목사는 “돈이 있어도 미래가 걱정되다 보니 기부를 더 망설이는 분 위기”라고 덧붙였다.

고 목사는 또 “불법 체류자 단속 등으로 한인타운과 다운타운 일터가 줄어들면서 상권이 위축됐고, 이는 곧 커

뮤니티 경제 전반의 침체로 이어졌다”며 “경제가 위축되면 기부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영리단체 자바선교회의 김영규 회장도 “다른 해에 비해 올해는 여러 교회와 비영리단체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라며 “불가가 워낙 비싸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본인들 생활도 빠듯해 남을 도울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비영리단체에서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문의해 올 정도”라며 “기부를 기반으로 한 행사나 활동도 지난해에 비해 상당히 줄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계산대에서 잔돈으로 소액을 기부하는 이른바 ‘라운드업(round-up) 기부’는 상대적으로 활발했다. 성인 5명 중 2명은 “마켓 등에서 계산 시 동전을 립이나 소액 기부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기부 심리가 위축되자 비영리단체들은 기부 독려에 나서고 있다.

전국자선신탁단은 “매년 전체 기부

이후 첫 번째 화요일에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나눔의 날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블랙프라이데이에 구매 경험이 있는 성인은 절반에 달 했지만, 기빙 투스데이에 기부했다고 답한 비율은 10명 중 1명에 그쳤다.

강한길 기자

## 구름 속에 숨어버린 2025년 마지막 해



다사다난했던 2025년 마지막 해가 저물었다. 30일 오후 베지니아 맥글린에서 바라본 을사년 마지막 날 하루 전 해가 저물고 있다. 아쉬움과 고단함은 지는 해와 함께 사라지고 평화와 희망만 품은 병오년 희망의 해가 떠오르길 간절히 소망한다.

김성한 기자

## 연방 법무부, 베지니아대학 상대 소송

연방 법무부는 불법 체류자에게 학비 감면 혜택을 제공한 베지니아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이러한 정책은 다른 주 출신의 미국 시민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지니아 주법은 해당 주에 최소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 자격을 부여하며, 학교가 이민 신분을 이유로 입학 자격을 거부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29일 베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연방법은 미국 시민에게 제공되지 않은 고등교육 혜택을 주 정부

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주장했다.

13페이지 분량의 소장에는 “이는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불법이다.”라며 “문제의 법률은 미국 시민보다 불법 체류자에게 유리하게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금지되어 있고 연방법에 의해 우선 적용된다.”라고 적혀 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에게 학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주 정부를 막기 위해 취한 가장 최근

의 조치이다.

베지니아 주는 2020년 랄프 노던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불법 체류자에게 주 내 거주자와 동일한 학비를 적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당시 노던 주지사는 이 법이 해당 학생들을 “이민 신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베지니아 주민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미이민법센터에 따르면 9월 현재 최소 14개 주에서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학생들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김성한 기자

## 메디캘 정보 불체자 단속에 활용

연방법원, 주정부 요구 기각  
체류신분·주소 등 확보 가능

연방법원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해 보건복지부(HHS)가 보유한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가입자의 기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6월 가주를 포함한 20여 개 주 정부가 연방정부 간 정보 공유 문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사법부

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빈스 차브리아 연방법원 가주 북부 지법 판사는 29일 불법 체류자 단속 목 적의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ICE의 새 정책 시행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ICE는 메디케이드 기록을 통해 불법 체류자의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민 신분, 메디케이드 아이디 등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김경준 기자



## 교통사고

##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알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노풀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카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고자 한다면 정해놓은 여력까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풀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사고후  
서류 처리

치료 전문  
LMT마사지

각종  
보험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BlueCross  
BlueShield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Mocurrency Chiropractic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410-480-0083

# 연준 '12월 금리인하, 아슬아슬한 결정'… 내부 이견 부각

인하 지지한 일부 위원  
“동결지지할 수도 있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 중 일부는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 할 때 12월의 금리 인하에 대해 ‘아슬 아슬한 결정’이라는 의견을 고려한 것 으로 30일 나타났다.

이날 연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12월 9 ~10일 회의 의사록(표지 포함 19쪽 분량)을 보면 금리 인하를 지지한 일부 연준 위원조차도 미국 경제에 당면한 위험을 판단 요소로 놓고 가능한 경제 전망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할 수 도 있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연준 위원들은 고용 부진 또는 고착한 높은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미

국 경제에 대한 최대 위협 요소가 무 엇인지에 대해 분열을 보이고 있음을 의사록에서 드러냈다고 AP통신은 짚었다.

로이터통신은 표결권을 가지지 않은 참석자를 포함한 6명의 위원이 금리 인하에 명백히 반대했으며, 이 중 2명이 투표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전 했다. FOMC는 의장을 포함한 연준 이사 7명과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12명을 합쳐 19명으로 구성된다. 투표권은 연준 이사 7명과 연은 총재 5명(순번제)에게 주어진다.

“대다수 참석자”는 결국 금리 인하를 지지했는데, 이들 중 일부는 금리 인하가 최근 일자리 창출둔화 이후 “노동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적절한 선제적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기자회견하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했다. 올해 세 번째이자 3연속 금리 인하였다.

이는 9대 3표 결로 통과됐는데, 일반적으로 합의제로 운영되는 FOMC에서 3명이나 이견을 낸 건 이례적인 수준이다.

의사록에는 “추가 조치 전 더 많은 데이터를 기다리길 원한다”는 유보적 인 분위기도 담겼다.

실제 고용 현황이나 인플레이션 등에 관한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 발표는 10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이어진 43 일간의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업무의 일시적 정지) 사태 여파로 지연되거나 생략됐다.

이 때문에 연준 위원들은 12월 회의에서 구식 정보만 활용할 수 있었다고 AP는 지적했다.

## 워싱턴 애베스대학, 신학사 4명 졸업식

그리스도의 신앙과 신학을 바탕으로 사역자를 양성해 온 워싱턴 애베스대학이 최근 웃브리지 캠퍼스 예배실에서 신학사 과정 졸업식을 열고 졸업생 4명(김경우, 김영희, 김현숙, 한윤옥)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예배 및 학위수여식은 류상길 교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윤정산 이사의 기도, 김만풍 박사의 설교, 배현수 학생처장의 학사보고와 권면이 이어졌다. 학위 수여에는 김재억 총장과 박엘리사 이사장이 맡았고, 이택래 목사가 축사를 전했다. 졸업생 대표 김영희의 답사와 김현주·박국희 전도사의 축가, 조영길 선교사의 축도로 예배는 마무리됐다.

설교를 맡은 김만풍 박사는 에스라



워싱턴 애베스대학이 신학사 과정 졸업식을 열었다.

7장 10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는 사명”을 강조하며 졸업생들에게 신앙과 사역의 방향을 제시했다.

박엘리사 이사장은 “애베스대학은 꾸준히 성장 중이며 TRACS 및 I-20 정식 인가를 앞두고 있다”고 밝히고, 베지니아주 정부로부터 학사 3개·석사

6개·목회학박사 과정을 인가받아 국내외 원격수업과 해외 분교(중국·태국·남아공)를 통해 사역자를 배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영희 졸업생 대표는 “본격적인 신학 훈련을 통해 영성과 학문성을 함께 세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겸손과 진실함으로 복음 전파와 전도·훈련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애베스대학은 2026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 중이며, 부설 아카데미(구약·일독, SNS 사역 실습, 찬양·서예·영어·한글·민화·스페니시 교실 등)도 운영한다.

학기 일정: 2026년 1월 26일~5월 16일  
문의: 703-340-5542, admin@wjuni.org 대학진학센터 김윤미 기자

## ‘비트코인 ATM’ 피싱 급증 올해 3억3350만불 털려

미주 전역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을 노린 ‘비트코인 ATM(자동입출금기)’ 피싱 사기가 ATM 보급과 더불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올해 11 월까지 비트코인 ATM으로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액은 3억3350만달러로 30일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신고된 비트코인 ATM 사기 피해 금액 2억5000만달러와 비교해 약 33% 늘어난 규모다. 2023년에는 1억1000만달러였다. 이 기간 비트코인 시세가 상승한 데다 ATM이 널리 보급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전역에 설치된 비트코인 ATM은 4만5000대가 넘는다. 키오스크 형태로 돼 있으며, 현금을 입금하면 비트코인이 국경을 초월해 즉시 지정된 디지털 지갑으로 송금된다.

고령층이 피해에 주로 노출됐다. 60 세 이상의 피해 신고가 14만7000건(신고액 48억달러)으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생한 구리전선 절도 신고에 대한 8개월

간의 수사 결과이다.

체포된 용의자들은 절도 및 절도 공모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며, 또 다른 추가 혐의가 제기될 수 있다.

경찰과 세리프는 이와 관련 정보가 있는 사람은 703-777-1021로 제보를 당부했다.

김성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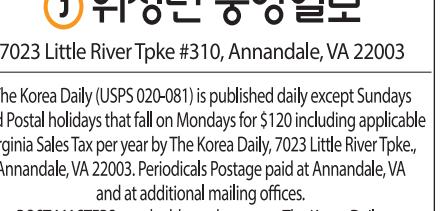
## 버지니아 라우던서 구리절도단 검거

버지니아 라우던 카운티 세리프국은 300만 달러에 달하는 구리전선을 훔친 범죄조직 일당 3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라우던 카운티 일대를 무대로 구리전선 절도를 저질러온 일당은 알렉산

드루 콘스탄틴(43), 크리스티넬 페트로비치(38), 로버트 치우쿠르(29) 등으로 메릴랜드 칼리티 파크에서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번 체포는 라우던 카운티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여러 공공시설에서 발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12001 Rt 50, 2nd Fl, Fairfax, VA 22033 (703) 449-7629



SALE 특집  
교통 좋은 알렉산드리아  
3층 타운 험 \$749,900  
차고 2, 방 3, 화 3½

RENT 특집  
기차역 가까운 매나세스  
3층 End 타운 험 \$2,900  
차고 2, 방 3, 화 2½

워싱턴 날씨 (°F)

12월 31일(수) 38-28

1일(목)	32-22	4일(일)	40-25
2일(금)	40-26	5일(월)	45-32
3일(토)	37-25	6일(화)	48-35



Care People  
Home Health

케어피플 흘힐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서비스 지역

애나데일, 알링턴, 페어팩스,  
센터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버지니아와 남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1/12~1/16 → 전화 예약 필수!  
Home Care RN 구함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entreville (Main Office)

Annandale (사랑방)

Annandale (V)

Gaithersburg (MD)

14631 Route 29, #401  
Centreville, VA 20121

4324 Evergreen LN. #D (2FL)  
Annandale, VA 22003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 “밖에서 사 먹기 두려워요”…외식물가 초비상

페어팩스 카운티 1월1일부터 시행  
음식세 4% 부과, 판매세 합치면 10%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가 새해 1월 1일부터 거의 모든 요식업체에 음식세(meals tax) 4%를 부과한다.

버지니아는 본래 세율 인상이나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경우 주의회 승인과 주민투표 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나 지난 2020년 법률을 개정하고 지역정부의 필요에 따라 음식세 등을 신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그동안 두번의 주민투표를 통해 음식세 도입시도를 무산 시킨 바 있다. 하지만 논란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난 5월 수퍼바이저위원회를 통해 음식세 4%를 2026년 1월1일부터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음식세는 레스토랑, 커피숍, 컨비언스토어, 푸드트럭, 그로서리 마트

내 조리 코너에서 판매되는 음식에 부과되며 조리 가공 과정없이 판매되는 식료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컨비니언스토어에서 조리 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핫도그나 치킨 왕 등에 대해서도 음식세가 부과된다. 음식세가 부과되는 식품은 음식세 외에도 기준 6%의 판매세가 합쳐져 총 10% 세율이 적용된다.

제프 맥코이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장은 “현재 3억달러 이상의 재정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음식세 도입이 불가피했다”면서 “음식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면 재산세를 올리거나 공공 서비스를 축소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지난 10월1일부터 호텔, 에어비앤비 등의 숙박세도 현



고공행진하는 외식 물가에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행 7%에서 9%로 인상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외지인을 대상으로 관광수입을 늘릴 목적으로 시티 등에서 시행하던 고율의 음식세와 숙박세

가 카운티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주민들이 오히려 소비를 줄여 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윤미 기자

## 한미 기독 장학회, 이사장 이·취임식 거행

김택용 초대 이사장 이임  
김건우 권사 제2대 이사장 취임



한미 기독 장학회가 이사장 이·취임식을 갖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한미 기독 장학회는 재단 이사인 이병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개회사와 기도를 시작으로 친송, 성경봉독과 말씀선포가 이어졌다.

설교는 이택래 목사가 맡아 요한복음 8장 31~32절 말씀을 본문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신·구 이사장 이·취임식이 엄숙하게 거행됐으며, 문선희 WHU 이사장의 격려사와 함께 교계 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져

자리를 빛냈다. 축사에는 김병수 목사를 비롯해 교협 증경회장단 연합회 회장과 51대 교협 회장이 참여해 장학사역의 의미와 비전을 강조했다.

행사 말미에는 선물 증정과 광고, 이

번 목사의 축도가 이어졌으며, 한훈 목

사의 섬김으로 참석자들은 단체 사진

촬영을 통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 나눴

다. 이후 신임 이사장은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의 장학사역에 대한 협력과 기도를 당부했다.

한미 기독 장학회는 앞으로도 신앙과 학업을 겸비한 차세대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교계를 섭기는 장학사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윤미 기자

## 정남미명과 ‘구황작물빵’ 팝업스토어 오픈

H마트 페어팩스점  
1월2~4일 수량 한정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인 H마트가 한국에서 ‘풀질 대란’을 일으킨 화제의 ‘정남미명과 구황작물빵(Veggie Bread)’ 특별 팝업스토어를 연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버지니아 페어팩스점에서 오는 1월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한정 수량으로 구황작물빵을 선보인다.

또한 파·고구마·옥수수·감자·밤 등 총 5종의 제품 중 원하는 구성으로 5개를 9달러99센트에 구매할 수 있는 특별 프로모션도 함께 마련했다.

‘정남미명과 구황작물빵’은 강원도 강릉에서 38년 전통을 이어온 장인이 운영하는 수제 쌀빵 로컬푸드



브랜드로, 밀가루 대신 한국산 쌀가루와 찹쌀을 사용해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 다양한 구황작물을 가득 채워 만든 건강빵으로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며 팝업스토어마다 연일 매진 행렬을 기록한 바 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H마트 페어팩스점(703-896-4640)으로 하면 된다.

김성한 기자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옴니!**  
보험에 관한 옳은 선택 - 옴니화재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2. 최신형 X-Ray 완비  
3. 고정 및 물리치료  
4.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mber FDIC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나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나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갤럭시부동산**  
• 20년 이상 경력  
• 주택 매매·렌트 전문  
• 연 80~100여 채  
주재원 렌트  
로리 정  
대표 에이전트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0

##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에릭 저겐센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m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사

##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David L. Marks, ESQ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Rated AV-PREEMINENT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데이빗 막스 변호사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Rated AV-PREEMINENT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Martindale-Hubbell®  
NOTABLE  
Peer Selected for Strong  
Ethical Standards  
2019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 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 AI 사용한 낙제생 갑자기 A학점

규제 완화 명령에 부작용 논란  
AI로 시험 문제 풀고 과제 제출  
의존 심각, 교육계 뜨거운 감자

인공지능(AI)이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주 정부의 인공지능(AI) 규제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는 AI를 활용해 시험 답안을 찾거나 과제를 대신 작성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LA통합교육구

(LAUSD) 소속 킹 드루 메디슨 앤드 사이언스 매그너 고등학교에서는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확인됐다.

학기 내내 성적이 저조했던 일부 학생들이 시험에서 갑자기 'A'를 받자 교사들이 조사에 나섰고, 학생들이 구글 크롬에 탑재된 이미지 기반 AI 도구인 '구글 렌즈'를 사용해 시험 문제의 정답과 해설을 확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LAUSD 소속 제니퍼 김 교사는 "요즘은 학생들이 AI를 이용하는 경우가 워낙 많아 가능하면 퀴즈도 과거처럼 종이 시험지에 치르도록 한다"고 말했다.

대학에서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최근 한국의 연세대학교에서는 온라인 시험을 치르던 일부 3학년 학생들이 AI를 사용한 정황이 적발됐다. 해당 과목에는 약 600명이 응시했으며, 해당 교수는 관련 학생들의 점수를 0점 처리했다.

루이지애나주립대의 김도균 교수(커뮤니케이션학)는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해 리포트를 작성하기보다 AI를 활용해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수들 역시 AI 사용 여부를 판별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이를 가려내고 있다"고 말했다.

조지아대학교 식품공학과대학원생

이화은 씨는 "주변을 보면 80% 이상이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AI를 무조건 배제하기보다, 필요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사이프리스 고등학교의 지니 심 교사는 수업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는 "AI를 활용해 질문을 만들고, 그에 대한 답변이 오가는 과정을 기록하도록 했다"며 "그랬더니 오히려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AI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는데 왜 AI를 써야 하느냐'는 반응도 나왔다"고 말했다.

정윤재 기자

교통사고 당한 한인남성  
차량서 총기·마약 발견돼

뉴욕주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한인 남성이 차량 안에서 총기와 마약이 발견돼 경찰에 체포됐다.

나소카운티 경찰국은 지난 22일 임병군(45·Kevin Byong Koon Yim)씨를 총기 및 암물 불법 소지 혐의로 전날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21일 오전 0시 30분쯤 시오셋 지역 루아일랜드 의스프레스웨이(LIE) 사우스 서비스 로드 43번 출구 인근에서 2024년식 세보레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임씨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준 기자

## 유기견 구조 한인 비행사의 유산

유기동물 이송중 추락사 김석  
몰려든 '석의 아미' 활동 조명  
사망전보다 2~3배 수송 늘어

버지니아주 시골의 한 비행장에 착륙한 경비행기에서 내린 개 13마리와 고양이 3마리는 어리둥절하거나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일부는 신나 보이기도 했다. 이 반려동물들은 남부의 포화 상태인 동물 보호소에서 북부의 임시 보호처나 구조단체로 이송되는 과정에 있다.

햇살이 눈 부신 일요일이던 지난달 23일, 이들을 이송한 단체의 이름은 '석의 아미(Seuk's Army)'다. 지난해 11월 24일 유기견 구조를 위한 비행을 하다 사고로 숨진 한인 조종사 김석(사망 당시 49세·사진) 씨를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자원봉사자들은 이날 평소의 약 두 배에 달하는 117마리의 동물을 실어 날랐다. 김씨의 사망 1주기를 기리기 위해서였다.



AP 통신은 28일 '김씨의 비극적인 비행기 추락 사고는 어떻게 반려동물 구조 자원봉사단을 탄생시켰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석의 아미' 활동을 조명했다.

서울에서 태어난 김씨는 9살 때 가족을 따라 미국에 이민했다. 대학 졸업 후 금융계에서 일했지만, 어릴 적 꿈을 쫓아 2019년 비행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이후 유기 동물들을 구조해 보호 소로 이송하는 단체 '파일럿 앤 퍼스(Pilots n Paws)'에서 일하던 그는 지난해 11월 24일 유기견 세 마리를 태우고 비행하다가 뉴욕주 산맥에서 추락해 숨졌다. 유기견 세 마리는 살 아남아 입양됐다. 김씨의 사고 소식 이후 새로운 자원봉사자들이 몰려오면서 이들은 김씨의 사망 전보다 2~3배에 달하는 유기동물을 수송하고 있다.

## 20대 43% "틱톡으로 뉴스 본다"

유튜브·인스타 제쳐

미국 20대가 주로 뉴스를 보는 창구는 속풀 영상 플랫폼 '틱톡'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미국 18~29세의 주요 뉴스 소비 플랫폼을 조사한 결과 틱톡에서 정기적으로 뉴스를 본다고 답한 비율이 43%로 가장 높았다고 경제전문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가 29일 보도했다.

틱톡으로 뉴스를 본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3년 32%에 불과했으나 지난 해 39%로 증가했고, 올해 추가로 늘었다.

지난해 40%로 공동 1위를 차지했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은 올해 틱톡에 밀려 각각 공동 2위와 4위로 내려앉았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38%에서 올해 41%로 약진했으나 순위는 공동 2위에 머물렀다. 일본 머스크가 인수한 액스(X·옛 트위터)를 통해 뉴스를 본다는 응답은 21%에 그쳤고, 레딧도 18%에 불과했다.

특히 조사 대상자들이 18~29세는

주로 이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뉴스를 접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6%가 SNS에서 뉴스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나 언론사 홈페이지(60%)나 이메일 뉴스레터(28%) 등을 암도했다.

또 응답자의 50%는 SNS를 뉴스 출처로 신뢰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전국 단위 언론사에 대한 신뢰도 51%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 "2만불 내면 결혼" 장담했다가

베벌리힐스 결혼정보업체  
계약위반·사기 혐의로 피소

베벌리힐스의 한 결혼정보회사(이하 결혼사)가 결혼을 보장하겠다며 고액의 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고객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한 여성 회원은 지난 17일 결혼사 '매

치메이커스 인 더 시티(MITC)'를 상대로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MITC가 2만 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결혼을 보장해주겠다고 허위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여성은 사기 혐의와 함께 데이터 서비스 계약법 및 가주 사업·전문직 업법 위반, 계약 위반 등을 소송 사유

로 들었다. 아울러 MITC가 계약 전 상담 과정에서 자격을 갖춘 후보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입 시 결혼 상대를 확실히 연결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는 내용도 소장에 담겼다.

그 여성은 이를 믿고 계약서에 서명한 뒤 2만 달러를 선불로 지급했으며, 계약서에는 환불 불가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MITC가 약속한 결혼 상대를 찾아주지 않아 재정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과 함께 결혼 보장 광고나 환불 불가 조항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금지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MITC 측은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회사는 지난 13년간 전통적

인 가치와 진정성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관계 형성을 돋는 데 전념해 왔다"며 "이번 소송은 허위이며 근거가 없고 어떤 증거로도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면 계약서에는 제공되는 서비스가 명확히 명시돼 있으며, 결혼이나 특정 관계 결과를 보장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송윤서 기자

① 중앙일보 구독신청 : 703-281-9660

#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 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 동문회·향우회, 젊은 후배 모시기 안간힘

고령화, 세대교체 불가피  
젊은층 관심 이벤트 개최  
장학금·소모임 활성화도

고령화와 세대교체 문제에 직면한 동문회·향우회가 색다른 접근법으로 차세대 참여를 이끌어 주목받고 있다. 이들 단체는 “차세대를 영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명맥이 끊길 수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말연시를 맞아 각 지역 한인사회에서는 각종 동문회·향우회 송년 모임이 한창이다. 조국에서 이역만리 떨어

진 이민 생활 속에서 ‘정체성’을 공유하고, 친목을 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중·고등학교 동창회나 대학 동문회는 이민 1세대인 60~80대만 참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동문회의 고령화는 심화하고 있지만 차세대의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고려대 남가주 교우회도 동문 고령화 현상에 위기감을 느꼈다. 차세대 동문 참여를 고민하던 교우회는 동문 취업 설명회와 자기계발 세미나, 동문 자녀 입시설명회, 멘토십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김용 회장은 “동문회가 변하지 않으면 고학년만 남고 차세대 동문은 오지 않는다”며 “동문에게 꼭 필요한 정보 공유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사를 열면 젊은 동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새 프로그램 도입 이후 1990~2010년대 학번 동문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

최근의 동문회 장학재단 설립도 호

응을 얻고 있다.

이민 1세대 선배 동문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차세대 동문 자녀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 7일 송년모임에 120명 이상이 참석한 이화여대 남가주 동창회(회장

조혜진)는 매년 동문 자녀 5명 이상을 선발해 1인당 1000달러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태경 총무는 “젊은 동문들은 아직 자녀가 어려 모임에 나오기 힘든 경우가 많다”며 “동문들이 앞장서 차세대 동문 가정을 지원하면 애교심도 커지고 참여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고 전했다.

중앙대 남가주 동문회의 경우는 장학위원회 운영과 연령대별 소모임, 단체 대화방 개설 등을 통해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중앙대 남가주 동문회 1990~2010년 대 학번 소모임 ‘CAU9000’을 이끄는

서정우 회장은 “젊은 동문들끼리 평소에 도움을 주고받다가 동문회 전체 모임에 합류하니 부담도 적고 좋다”고 말했다.

동문회나 향우회 운영 과정에서 차세대 동문에게 임원진 역할을 맡기는 방식도 눈길을 끈다.

남가주 충청향우회 과운영 사무총장은 “임원진에 젊은 층을 영입해 그들이 주도적으로 각종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기준에는 걸들던 회원들이 한 명, 두 명씩 다른 회원을 데려오면서 조직에 활력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 시니어센터 수강 추첨제로

“새벽 선착순보다 합리적”  
첫날 300여명, 30일까지

LA 한인타운 시니어 & 커뮤니티 센터(회장 이현우·이하 시니어센터)에 학구열 넘치는 시니어들이 몰려들었다.

지난 29일 시니어센터에서는 2020학년도 1학기(1~3월) 프로그램 수강 신청 추첨식이 열렸다.

이날 시니어센터 측은 처음으로 프로그램 수강 신청 방식을 선착순이 아닌 추첨제로 진행했다.

센터 측은 앞서 오전 9시부터 정오 까지 추첨 표를 배부했다. 기존에 이른 새벽부터 줄을 서야 했던 선착순 방식 대신, 추첨으로 뽑힌 번호 순서에 따라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 것이다.

이날 현장에는 287명이 직접 추첨식에 참여했다. 가장 먼저 호명된 추첨 표 번호는 103번이었다. 해당 번호의 주인공 김영필(74)씨는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뽑혀서 너무 기쁘다”며 “일상에 도움이 되는 수업 위주로 골랐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스마트폰 초·중·고급, 태극권, 한국무용, 장구 등 신청 가능



파한인타운 시니어센터가 프로그램 수강 신청 방식을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전환한 가운데, 29일 열린 추첨 행사에서 당첨된 시니어들이 수강 신청용지를 받고 있다.

김상진 기자

한 최대 수업 8과목을 모두 신청했다.

추첨 표 번호 361번을 받고 아홉 번째로 호명된 신명실(68)씨는 “이전에는 밤을 새우거나 오전 1시부터 나와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동네가 위험해 안전한 방법이 아니었다”며 바뀐 방식이 편의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노스할리우드에 거주하는 김준씨 역시 추첨제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그동안 면 곳에서 오는 사

람들은 수강 신청 기회조차 얻기 어려웠다”며 “오늘 오전 10시쯤 도착해 추첨 표를 받았는데, 무리 없이 여유롭게 신청할 수 있어 좋았다”고 전했다.

시니어센터 측은 30일에도 프로그램 수강 신청 접수를 이어간다.

다만 이날은 추첨식 없이 남은 자리에 한해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김경준 기자

## AI 열풍에…억만장자 되는 기간 짧아져

인공지능(AI) 열풍으로 젊은 부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억만장자가 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AI의 AI 챗봇 채팅GPT가 출시된 지난 2022년 이후 불과 3년 만에 AI 분야에서 신종 억만장자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9일 보도했다.

이들이 억만장자 반열에 오르는 데 걸린 기간은 세계 최고 부자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대조적이다. 머스크는 페이팔의 모태가 된 엑스닷컴을 1999년 창업한 이후 페이팔 매각, 스페이스X 창업, 테슬라 상장 등을 거친 2012년에야 억만장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반면 오픈AI 출신인 미라 무라티(37)는 지난 2월 자신의 스타트업 ‘싱킹머신 스탬프’를 설립하고 불과 4개월 만에 기업가치 100억 달러를 달성했다.

역시 오픈AI 출신인 일리아 수츠케버(39)는 지난해 6월 ‘세이프슈퍼인텔리전스’를 세운 이후 아직 아무 제품도 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320억 달러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2022년 ‘피겨AI’를 창업한 브렛 애드콕(39)은 불과 3년 만에 개인 순자산이



195억 달러로 불어났고, 같은 해 영업을 시작한 아라빈드스 리니바스(31사진)의 AI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의 기업 가치도 200억 달러로 평가된다.

특히 범루 AI 스타트업인 ‘해비’(Harvey)는 올해 2월 30억 달러였던 기업가치가 이달 들어 80억 달러로 껑충 뛰었고, 이에 따라 창업자 윈스턴 와인버그(30)와 게이브 페레이라(34)의 자산도 급증했다.

NYT는 이들 신종 억만장자에 대해 “투자자들이 기업 가치를 경쟁적으로 높이면서 단기간에 기업 가치를 끌어 올렸다”고 짚었다. 메타가 지난 6월 투자한 스케일AI 정도가 속도 면에서 예외로 거론됐다. 지금은 메타의 최고 AI 책임자(CAIO)가 된 알렉산더 왕(28)이 지난 2016년 설립한 스케일AI는 이전에는 비교적 조용히 성장해왔다는 것이다.

AI 코딩 스타트업 ‘커서’의 마이클 트루엘(24) CEO와 다른 공동창업자들은 지난 2022년 매사추세츠공대(MIT)를 중퇴하고 회사를 세워 3년 만에 20대 억만장자가 됐다.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경!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200, Ellicott City, MD 21043

**마이클 장**

맞춤형 월자와의 끊임  
달인과 함께하는  
월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NMSI, Inc NMLS #201332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세라젬**

내 척추길이와 굴곡도에 맞추는  
특허기술 “척추 온열 의료기기”

공간 효율적이고 우아한 안마의자 “파우제”

무료 체험 기능·무이자 할부 가능 (K- 마켓 안에 위치)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Albert Kim 보험**

albert@wk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퀄리티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여성용 골프 의류,  
가방 등 판매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장금(미국은행)  
웨일리노래방  
300m 뉴타운  
미국주 몰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은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로켓 쏘고 함정 출동…중국, 이를째 대만 포위 훈련 1 중국군이 30일 오전 대만에서 가까운 푸젠성 펑tan섬에서 로켓을 발사하는 모습. 2 이날 대만 화유섬 북서쪽 해상에서 대만 함정이 중국 함정에 대응하는 모습. 3 중국군이 공개한 '드론으로 활영한 타이베이 101' 영상 화면. 타이베이 101은 대만의 초고층 랜드마크다. 중국군은 이날 실사격 훈련 영상과 대만을 압박하는 내용의 포스터 등을 온라인으로 배포하며 선전전을 펼쳤다.

[연합뉴스, 중국군호 웨이보 영상 캡처]

## 훈장 주고 ‘트럼프 지지’ 얻었지만… 네타냐후 캄캄한 앞길, 왜

(이스라엘 최고 훈장)

트럼프, 하마스·이란 압박했지만 WSJ “사적으론 네타냐후와 적대적” 이스라엘군 나서면 미 분노 가능성 뇌물 등 네타냐후 사법리스크도 변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9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란에 암표를 놓으며 힘을 실어줬지만, 국내 정치적 위기에 처한 네타냐후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팜비치 사저 마리라고를 방문한 네타냐후 총리와의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

서 “하마스가 합의한 대로 무장 해제를 하지 않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란에 대해서도 “(탄도미사일 및 핵무기 개발) 재개가 확인되면 대가가 (지난 6월 공습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치켜세웠다.

네타냐후 역시 트럼프에게 이스라엘 최고 훈장인 ‘이스라엘상’ 수여 소식을 전하는 등 이날 두 정상은 유독 친밀한 모습을 드러냈다. 1953년 제정된 이스라엘상은 ▶학문 ▶문화 예술 ▶유대학 ▶평생 공로 ▶특별 공헌 등 분야별로 이스라엘 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이스라엘 최고 권위의 민간·문화 훈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으로는 첫 수상자가 된다.

그러나 트럼프와 끈끈한 유대를 과시했음에도 네타냐후의 앞길은 험난하다는 것이 주요 외신의 평가다. 이스라엘은 중동 평화를 방해한다는 트럼프의 의심이 가지지 않은 데다, 사법리스크에서도 자유롭지 못해서다.

트럼프가 네타냐후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는 네타냐후가 까다롭다는 평가를 내놨다”며 “두 사람 관계가 공개적으로 우호적이 어도 사적으로 적대적이란 걸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실제 트럼프는 하마스에 대한 보복

의 주체로 미국·이스라엘이 아닌 휴전

협정에 나선 59개국을 내세웠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나 헤즈볼라, 시리아 등에 군사행동을 감행한다면 언제든 트럼프가 격노할 가능성이 있다. 악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에게 요르단강 서안에 대한 도발적인 조치를 자제할 것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국내 상황도 안심할 수 없다. 네타냐후의 뇌물수수·사기 혐의 재판은 트럼프의 사면 압박에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네타냐후가 총리 자리를 지키려면 연정 파트너인 극우세력이 원하는 조정통과 유대교도(하레디)에 징병 면제 혜택 부여 법안을 제정해야 하지만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수 있고, 법안을 못 만들면 연정이 붕괴할 수 있다”며 “네타냐후로선 2026년이 험난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회견에서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트럼프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며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전날 작전명 ‘정의사명-2025’로 이름붙인 대만 포위 훈련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대만은 “국제법과 국제 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중국의 대규모 대만 포위 훈련은 이번이 일곱 번째다.

김형구 기자, 이승호 기자

## 독일 은행서 개인금고 3천개 털려

“현대 독일 역사상 최악의 은행 강도 사건”

독일 서부 소도시 겔젠키르헨의 한 저축은행 금고실에 강도가 침입, 보관 중 이던 개인 금고 3천200여개를 깨고 현금과 귀중품 약 3천만 유로 상당을 훔쳐 달아났다고 dpa 통신이 30일 보도했다.

강도들은 특수 드릴을 동원해 벽면을 낸고 금고실에 들어온 뒤 개인 금고를 부수고 보관돼 있던 현금과 금, 보석류 등을 털어갔다고 현지 경찰은 전했다. 전날 아침 화재경보가 울리면서 강도 침입사실이 드러났다.

은행 측은 고객이 맡긴 개인 금고 95% 가 파손됐으며, 피해 고객들을 위한 전용안내전화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dpa는 이번 사건으로 2천500여 명이

영향을 받았고 현대 독일 역사상 최악의 은행 강도 사건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고 논평했다.

사건 소식에 고객 약 200명이 은행 앞으로 몰려와 자신의 금고가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며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은 안전을 위해 은행을 폐쇄했다.

독일 일간 빌트는 분노한 일부 고객이 변호사와 연락하면서 은행 진입을 상의하는 장면도 목격됐다고 전했다. 이 은행에 따르면 각 금고의 보관물에 대해서는 최고 1만300 유로(약 1천750

만원)의 보험이 적용되며, 피해 고객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초동 수사 결과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주차장을 통해 건물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8일 밤부터 29일 새벽 사이 인근 주차장에서 커다란 가방을 든 남성 여럿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 중이다.

CCTV에는 29일 새벽 검정색 차 1대가 마스크를 쓴 텁승자들을 태운 채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이 차량 번호판은 독일 하노버에서 도난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고 3천개가 털린 독일 서부 겔젠키르헨의 은행.

## “CIA, 베네수엘라 영토 내 지상 목표물 첫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베네수엘라의 지상 목표물 공격을 실행한 주체는 중앙정보국(CIA)이라고 CNN이 29일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CIA는 최근 베네수엘라 해안의 외판함만 부두를 타격했다.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범죄 조직 '트렌 데 아리과'가 이 부두에 마약을 보관하고, 선박에 실어 다른 곳으로 운송하는 거점으로 활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CIA의 공습으로 부두 시설과 선박

들이 파괴됐지만 당시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번 작전에서 CIA는 특수작전부대의 정보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 특수작전사령부는 이를 부인 했다.

베네수엘라 영토를 때린 이번 작전은 양국 사이에 조성된 긴장을 한층 고조시키고 갈등을 새 국면으로 몰아갈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근해에서 마약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격침하거나 국제법을 위반한 유조선을 나포해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CIA가 베

수엘라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승인했고, CIA는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마약 관련 시설에 대한 정보 수집을 진행했다.

CIA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집권기에 파키스탄, 예멘, 소말리아 등지에서 테러 조직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드론 공습을 수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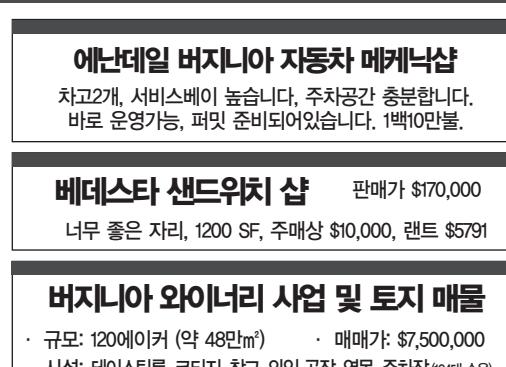
REALTYONE GROUP

THE SCHNEIDER TEAM

내 집  
장만

koriny

승경호 부동산



주택 매매 · 상업 투자 건물  
사업체 매매 · 사업체 임대 계약

건축면허 소지 VA Class A Contractor  
Tech Pulse Korea 대표  
Cloud Papyrus 대표

리얼티원그룹 슈나이더팀 대표  
“내집장만” 부동산 소식지 발행인 | 건축면허 소지  
JK Schumann Inc 국제기업컨설팅 대표

703.928.5990  
k@dwellwashington.com

승경호

ONE REALTYONE GROUP  
CAPITAL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www.dwellwashington.com

THE SCHNEIDER TEA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식지



# 2026 메디케어 플랜 가입 및 변경

ONE STOP FINANCIAL SERVICES  
**UNI와 함께하세요!!**

최적의 메디케어 플랜을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메디케어 플랜 가입 및 변경, 전문가의 도움으로 더 쉽게!  
상담에서 신청까지 무료! 라이센스 에이전트가 도와드립니다.



문로리

703-895-7648



이린다

443-515-8522



안은신

804-464-3662



이은경

571-303-9060



장미원

703-486-6082



오경자

443-690-4290



올바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선 올바른 교육이 필요합니다.  
UNI가 원스톱 재정 서비스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메디케어  
세미나

MD 엘리콧시티

1/14 (수요일@5pm)  
1/31 (토요일@10am)

# ‘1일 1의혹’ 김병기, 1억에 무너졌다

## 200일 만에 여당 원내대표 사퇴

‘1억 수수 강선우’ 구명 보도 다음날 “정부 걸림돌돼선 안돼” 불명예 퇴진 청와대·당 지도부 등과 소통 뒤 결심 야당 “의원직 사퇴하고 수사받아야”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원내사령탑이었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원내대표직을 자진 사퇴했다.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에, 공천 현금 묵인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사퇴론이 여권 핵심부에서 작동한 결과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의혹 해명 과정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민주당 원내대표로서의 책무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이날은 그가 1년 임기의 원내대표에 취임한 지 200일이었다.

김 전 원내대표가 사퇴를 결심한 건 전날 밤이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전 원내대표가 밤 늦게 정청래 대표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고, 그 직전까지 원내 주요 참모들에게 거취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조정식 의원은 대통령 실의중을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고 한다. 조 의원이 당 사무총장일 때에 김 전 원내대표가 수석 사무부총장을 맡은 인연이 있기 때문이다. 김병우 정무비서관 등 청와대 정무 라인도 김 전 원내대표 본인, 당 지도부와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했다고 한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29일 오전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린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서거 14주기 추모 행사에서

당·청 주요 인사와 다선 의원들이 ‘사퇴가 높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통령 추도사를 대독한 행사였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를 전(28일)까지만 해도 주변에 “의혹 수준의 문제 제기가 이어진다고 해서 떠밀려 사퇴하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고 했다. 2024년 12월 갈등 끝에 해고한 전직 보좌진의 각종 폭로에, 김 전 원내대표는 자신과 아내에 대한 욕설이 다수 등장하는 이들의 단체 채팅방 캡처를 공개하며 맞서기도 했었다.

하지만 맞대응이 또 다른 폭로를 낳으며 당 안팎의 여론은 악화됐다. 12월 들어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무상 이용 의혹 ▶가족 공항 의전 특혜 의혹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의혹 등이 전방위로 터져나왔다. 특히 29일 불거진 ‘부인 범인 카드 유용 은폐’ 의혹과 ‘지방선거 공천 현금 묵인’ 의혹이 결정타로 작용했다.

김 전 원내대표가 2022년 8월 부인이 구의회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것을 알고도 무마하려 했고,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같은 해 4월 강선우 의원으로부터 강 의원의 보좌관이 시의원 공천 희망자에게 1억원을 받아 보관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재선 의원은 “돈 문제”로 변진 이상 더 버티는 것은 당에 부담”이라며 “오늘 사퇴도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여론에 민감한 수도권 지역 의원들 사이에 국정 동력과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지도부 소속 의원은 “내년 지방 선거까지 문제의 전직 보좌진들이 제보와 폭로를 이어갈 것”이라며 “이미 강선우 의원 건은 당에 상당한 타격을 줬다”고 했다.

정청래 지도부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차기 원내대표의 임기를 김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4개월)로 못 밟았다. 조승래 사무총장, 이해식 전략기획위원장, 문진석 원내수석

이 김병우 정무비서관과 최고위 직진



‘보좌진 갑질’과 ‘권력형 특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이 회의 직후 “원내대표 보선을 1월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날짜와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때까지 원내대표는 문 수석이 대행한다. 이날 민주당 3선 의원들이 모여 특정 의원을 추대해 원내대표 공백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김 전 원내대표의 의원직 사퇴를 압박했다. 한동훈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민주당 하청 특검인 민중기 특검이 수사했더라도 차마 김병기-

강선우는 구속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공관위원이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이상 민주당 전체가 수사 대상”이라고 적었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은 “지방선거 공천장마저 돈봉투와 맞바꾸는 ‘매관매직’이 판치고 있다”며 “김병기·강선우 두 사람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자연인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공천 장사의 전모를 이실직고하라”고 논평했다.

심새롬·김나한·강보현 기자

미국이 ‘팍스 실리카’(한·일 등 8개국 참여 반도체·인공지능 동맹)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에 반도체 등 분야에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방중에 이재용 삼성전자·최태원 SK그룹·정의선 현대차그룹·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약 200명의 경제인도 함께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발전하는데 (이 대통령) 방문이 긍정적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성민·김수민 기자

## 민주당-혁신당 광주시당, ‘이혜훈 지명’ 놓고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을 둘러싸고 갑론을 밤을 벌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최근 광주를 방문해 이 장관 지명을 비판하면서 양 시당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조국혁신당 광주시당 등에 따르면 전날 조국 대표는 고(故) 안성례 전 오월어머니집 관장 빈소를 조문하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

조문을 마친 뒤 조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혜훈 후보자 지명에 대해 “내란

과 계엄을 응호하고 ‘윤석열 어계인’을 외친 집회에 참석했던 인사에게 나라의 곳간을 막간다는 점에 환호하거나 박수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대선 전 내란과 계엄에 맞서 함께 싸웠던 약 4당 간의 공개 약속

이 있다”며 “그 약속을 준수하고 실천하는 일들은 자연되거나 미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혜훈 지명자가 분위기에 휩쓸려 집회에 갔다고 해명했는데, 일국의 국무위원이 될 사람이 그런 판단 능력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이 이 지명자를 비판하는 것도 내란 본당이 할 말은 아니다”며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인가, 전문성은 있는지 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 “조국 대표의 발언은 인사 검증의 본질을 벗어난 정치적 공세”라며 반박했다.



##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http://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탕감  
전문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 셀리미 희소식

집 예쁘게 고쳐서 팔아드립니다. 최선의 가격, 공사비는 크로징에서!  
비싸게 엉뚱한거 고쳐고, 바가지 공사비에 억울해 마시고 지금 전화 주세요.

## 바이어 희소식

이자가 6%대로 많이 내렸습니다. 이자가 더 내리면 집 값이 더 올라갑니다.  
집사실 바이어들은 때를 잘 잡아야 미리 계획을 세우세요.  
투자용 주택을 장만해 노후 은퇴자금으로 활용하실분들은 연락주세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 상담 해드립니다.

## 임대 주택 관리

매릴랜드, 디씨 집 관리 힘드시죠. 임대면허증, 카운티 인스펙션, 레드 인스펙션 다 관리해드립니다.  
세입자와의 분쟁 해결해드립니다. 임대주택관리 17년 경력의 노하우!

## RENT

타운 홈, 센터빌  
차고2, 방4, 화3,  
즉시 입주  
\$3,300

타운 홈, 센터빌  
차고2, 방4, 화3,  
즉시 입주  
\$3,550

## Lease

스파포드  
싱글홈  
방4, 화3,  
넓고 환하고  
울수리  
\$550,000

## 비키리 부동산

전화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텁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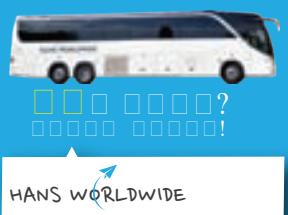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매릴랜드 / 301-399-0140



hanstravelusa@gmail.com  
문의전화 703.658.1717  
www.hanstravel.com  
7601 Little River Trpk, #201  
Annandale, VA 22003



데이빗 한 재기조 조엔 한 세라정 애나 김 김문배  
인솔자가 함께하는 한스여행  
VA 한스 에이전트/로컬 투어 가이드 모집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atc.davidhan@gmail.com



여행앨범 QR코드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오년을 맞아 지금까지 한스와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붉은 말의 힘찬 기운을 받아서 새해 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한스관광 일동 드립니다

2025년 한스와 함께한 여행들

1월



Cuba Mission Trip



Dubai &amp; Abu Dhabi



Northern India

2월



Ancient Egypt &amp; Nile River Cruise



South India &amp; Sri Lanka

2월



Peru highlights



Patagonia



Brazil Iguassu Falls



Morocco &amp; Sahara Desert



Tunisia &amp; Mal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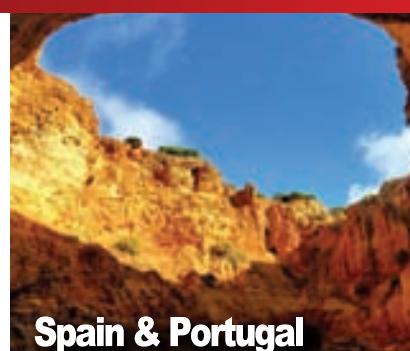
3월



Cherry blossom Japan



Eastern Europe



Spain &amp; Portugal

5월



Western Europe



Greece &amp; Turkey

6월



Panoramic Al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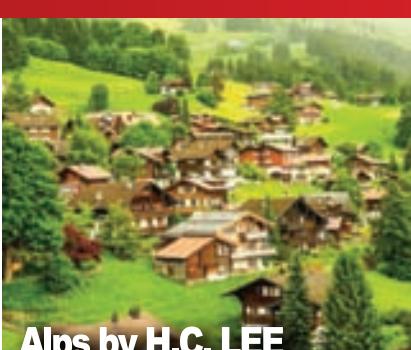


Caucasus 3 countries



Alps Highlight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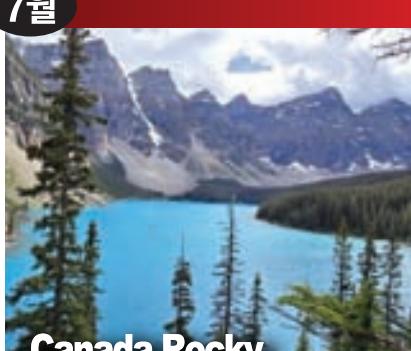


Alps by H.C. LEE



Scandinavia &amp; Baltic

7월



Canada Rocky



Alaska



Iceland Trip

8월



Greenland Trip



Wondrous Land Africa &amp; Blue Train

9월



Western Euro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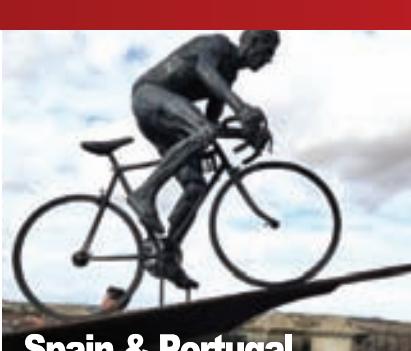


E. Europe &amp; Croatia



France, Grand tour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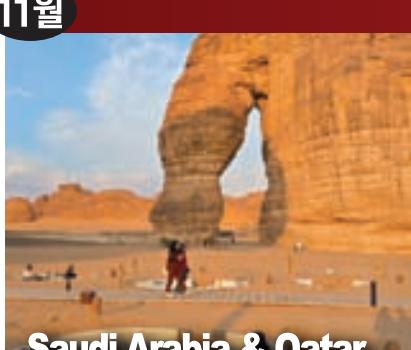


Spain &amp; Portug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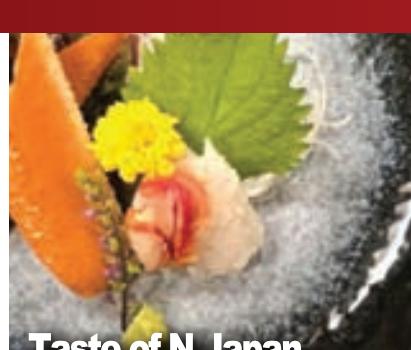


Greece &amp; Turkey

11월



Saudi Arabia &amp; Qatar



Taste of N. Japan



Hawaii

12월



Costa Rica



New Zealand &amp; Sydney

이외에도 다양한 여행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www.hanstravel.com](http://www.hanstravel.com)에서 더 확인하세요. **한스 여행사**에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상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타로 인한 가격 오류시 정가는 지불아셔야 하며 상품 예약 후 꼭 컨펌을 받으셔야 합니다.

# 부인·장남까지 고발 당했다, 김병기 얹힌 수사만 6건

부인은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장남 첩보누설, 차남 취업청탁 논란  
김병기 관련 추가 고소·고발 가능성  
서울경찰청, 사건 병합 수사할수도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관련해 매일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30일까지 경찰에 고소·고발된 사건은 가족 연루 내용을 포함해 최소 6건이다.

전날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전 원내대표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강선우 민주당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였던 강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 공천 신청자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아 보관 중이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같은 날 서울 서초경찰서에는 국가 정보원 직원인 김 전 원내대표의 장남 김모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김씨는 김 원내대표의 보좌진에게 외교 첨보를 문의해 해결하려 했다는 ‘업무 대리 수행’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김씨가 당시 보좌진에게 “인도네시아 VIP(대통령 당선인)를 한화 쪽에서 데려온다고 하는데 정보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보좌진이 이 사실을 한화 쪽에 문의한 뒤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국정원도 김씨에

## 경찰이 수사 중인 김병기 관련 사건

- 1 강선우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묵인 의혹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 2 차남의 숭실대 편입 관여 의혹  
(직권남용·업무방해)
- 3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뇌물수수·업무상 횡령)
- 4 보좌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무단 탈취 의혹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 5 장남(국정원 직원)의 외교 첨보 누설 의혹  
(국가정보원법 위반)
- 6 항공사 호텔 숙박권 수수 및 의전 요구 의혹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대한 감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8일 김 전 원내대표의 배우자도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발당했다. 아내는 동작구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김 전 원내대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인 2024년,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을 무상으로 받아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관련 고발장이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접수됐다. 김 전 원내대표가 차남의 숭실대 편입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동작경찰서에 접수돼 지난달 참고인 조사까지 진행됐다.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고

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 3부)에도 사건이 배당된 상태다.

관련 의혹을 폭로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전직 보좌 직원들은 김 전 원내대표를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관련 대화방 캡처본을 올리며 “보좌진 6명이 모여 있던 단체 채팅방에서 여성 구의원 도활(불법 촬영) 등이 이뤄져 이들을 직권면직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보좌진은 텔레그램 대화방 불법 취득을 주장하고 있다.

고소·고발 건수가 늘어갈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원내대표가 차남의 빗썸 취업을 청탁한 뒤 그 대가로 빗썸의 경쟁사 업비트 문제를 국회에서 지적했다는 의혹과 김 전 원내대표가 쿠광 한국 법인 대표였던 박대준씨와 고가 식사를 하고 쿠광에 취업한 전 보좌진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사안이 크다는 점에서 상급청인 서울경찰청이 사건을 병합해 직접 수사를 맡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정교 서울청장은 지난 29일 “김 대표 관련 사건에 대해 접수된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서울경찰청으로 (사건들을) 가져올지 판단해 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장을 낸 시민단체 등은 “서울경찰청이 직접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정재 기자



김병기 등 두드리는 정청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원내 대표직에서 사퇴한 김병기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1월 11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 김병기 사라지자 강경파만 보인다… ‘마이웨이 정청래’ 예고

‘당청·대야 중재자’ 김병기 사퇴  
정청래 중심 사법개혁 강행할듯  
“차기 원내대표에 당청관계 달려”  
후보엔 박정·백혜련·한병도 거론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사퇴로 반년간 유지되던 민주당 ‘투톱’ 체제가 첫 변곡점을 맞게 됐다. 여권 일각에서는 그간 당·청과 여야 간 가교 역할을 자천타천으로 도맡았던 김 전 원내대표의 부재로 당분간 “정청래 지도부와 강성 법사위 주도의 일방통행 움직임이 뚜렷해질 것”(전직 의원)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간 김병기 원내지도부는 당내 각종 ‘개혁’ 이슈마다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을 견지했다. “개혁 완수”를 공언

하면서도, 속도나 방식 면에서 극단으로 내달리는 강경파를 제어하는 게 김 전 원내대표의 최대 과제였다. 김 전 원내대표는 지난 9월 민주당 법사위원회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기습 의결하거나, 위헌 소지가 있는 사법 제도 개편 관련 법안을 강행하려 할 때 청와대와 소통하며 당 안팎에서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의 대변자 역할을 했다는 평을 들었다. “명·청(이재명·정청래) 갈등” 등장과 함께 이런 기류가 강해졌다.

대야 관계에서도 비슷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을 기한 내 합의 처리했고, 지난 9월에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연장 최소화를 약속하는 방식으로 극적 합의를 타결했다. 하지만 당시 정 대표가 이를 뒤집으면서 민주당 ‘투톱 갈등’이 불거졌고 이후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는 묘한 긴장 관계를 이어왔다. 이날 송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김 전 원내대표를 따로 찾아가 만났다.

수도권 중진 의원은 “2차 종합특검, 통일교 특검 등 추가 특검법 협상과 법 왜곡죄·재판소원 도입 등 아직도 갱점 혼란이 수두룩하다”며 “정 대표를 필두로 한 강경파 중심으로 처리될 공산이 커졌다”고 했다. 지도부 내 ‘엇박자’가 사라지는 대신, 균형추도 소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일각에서 감지된다.

여권 관계자는 “4개월짜리여도 다음 원내대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당·청, 대

야 관계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재선출되는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는 당헌 55조 5항에 따라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의 임기는 내년 5월 초까지다. 재직의원 투표(80%)와 권리당원 투표(20%)를 합산해 선출한다. 민주당은 30일 진선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관위를 구성했다.

내년 1월 11일 치러질 원내대표 보궐 선거 후보군으로는 박정·백혜련·한병도(이상 3선)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중 일부는 이미 선거운동 중이지만, 임기가 4개월 남짓이라는 점이 변수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3선 의원 20여 명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모임을 갖고 “당과 정부, 청와대가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하다”(위성곤 의원)

는 인식을 공유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날 모임은 ‘청와대와 정청래 지도부 사이 어박자를 봉합해 나갈 적 임자를 추대하자’는 의도로 기획됐지만, 당이 그럴 만한 비상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에 따라 추대론은 흐지부지됐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보선에서 뽑힐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법 처리와 지방선거를, 내년 5월 뽑힐 원내대표는 후반기 원(院) 구성이라는 명확한 역할 차이가 있다”며 “원내대표 연임은 전례가 없어 고민이 크다”고 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당헌에는 원내대표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고, 잔여 임기가 워낙 짧기 때문에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가 내년 5월 본선거에 재출마해도 이상할 게 없다”(여권 핵심)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준호 기자

#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폴 쌍그릴라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리치몬드  
페닌슐라  
상담환경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할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

• 변호사 임종범 •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걱정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 사무장 김진주 •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컬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디스크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임기)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 ‘입틀막법’ 논란에도 결국 의결…이 대통령, 거부권 안 썼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청와대서 첫 국무회의

대통령, 통일교 특수본 구성 지시  
“종교 정치개입, 나라의 미래 위협”  
내란재판부법도 통과, 국힘은 반발

위헌 논란 끝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 ‘내란전담재판부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안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설치한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가 맡게 된다. 이미 1심이 진행 중인 관련 사건에 대해선 2심부터 전담부가 맡는다.

각 재판부는 각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가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가 판사 배치를 정하면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해 구성된다. 여당이 재판부를 구성하는 권한을 법원 내부에 맡기며 한발 물러서긴 했으나, 대법원이 법관 독립 보호를 위한 핵심 장치로 여겨 온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위헌 논란은 계속돼 왔다.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까지 가중적 배상책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인근 삼청동의 한 식당에서 국무위원들과 ‘깜짝 오찬’을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임을 지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보건질법’이라 불리웠지만, ‘허위’ ‘조작’ 등의 핵심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이유로 위헌 논란이 제기됐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해 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명백한 위헌 입법이자 지방선거를 겨냥한 내

란물이 악법” “징벌적 손해배상을 앞세워 국민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입 틀막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국무회의 직후 “별 다른 논의 없이 원안대로 처리됐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첫 국무회의 시작 전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에 대해 “여야 누구

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질 건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것”이라며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교 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매수하고 유착한 건 우리 사회 민주주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특검이 구성되면 그 때 넘겨주더라도, 그 전에 검찰과 행정안전부가 상의해서 (수사)팀을 한번 구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 이에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란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국정이 흔들리는 과정이 주술정치, 정교유착이 축적되면서 온 게 아닌가. 이것을 차제에 정말 뿌리를 뽑아야 된다”며 특수본 설치를 제안했다.

김 총리는 최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사실상 조작 기소”라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향해선 “수사했던 검사들이 과연 올바로 했는가에 대한 감찰이나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도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도 “이상한 논리로 기소하고 결국 무죄가 났다”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묻든지 뭘 확인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에 보니 공공기관들을 좀 개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확실하게 된 것 같다”며 통폐합을 포함한 개혁 방안 마련해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기관장의 업무보고 부실 답변을 거론하며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시간이나 때우고 누릴 것만 누리는 경우가 가끔 있다”며 “6개월 후에는 그런 일 없게 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오현석·양수민 기자

## 노동신문, 도서관서 본다…‘탈북민→북향민’ 변경도 추진

통일부, 특수→일반자료 재분류  
북한 사이트 60여개 개방하기로  
탈북민 절반, 명칭 변경에 반대

국내 주요 도서관에서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국내 일간지처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

통일부는 30일 노동신문을 기준 ‘특

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국립 대학도서관 등 주요 취급 기관을 방문하면 일반 간행물과 동일하게 노동신문을 볼 수 있다. 일반 서가에서 자유롭게 신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통일부는 향후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는

거점을 지역 도서관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노동신문은 북한 등 반국가 단체 활동을 찬양·선전하는 내용인 특수자료로 분류돼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제한된 경우에만 일반 국민이 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19일 외교·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접근 확대를 지시하

면서 정부가 방침 변경에 착수했다. 통일부는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60여 개 북한 관련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해제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통일부는 내년 1월부터 정부 차원에서 ‘탈북민’ 용어를 ‘북향민’으로 바꿔 쓰기로 했다. 관련 법률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전국탈북민연합회 등은 북향민으로의 명칭 변경을 두고 “당사자의 존엄과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통일부가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도 탈북민 응답자의 53.4%가 이에 반대했다.

특히 다소 중립적인 인상을 주는 북향민이란 명칭은 이들이 목숨 걸고 탈출한 억압적 북한 체제의 실상을 간과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지원 기자

## 해 넘기는 통일교 수사… 전재수 연내 재소환 사실상 무산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해를 넘기게 됐다.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재수 전 혜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연내 추가 소환도 사실상 무산됐다. 3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특별진단수사팀은 이날 오후까지 전 전 장관에게 출석요구 통보를 하지 않았다.

전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이용구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경찰 소환을) 기다

리고 있다. 내일 소환하면 진작 연락이 왔을 것”이라며 “경찰 입장에서 (전 전 장관을) 불렀으면 종결짓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경찰은 충분히 보강 수사를 한 뒤 전 전 장관에 대한 재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소환 없이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전 전 장관이 받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오는 31일로 끝난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금품을 수수했다는 시점이 아직 특정되지 않은 만큼 선별론 해석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에 ‘전 전 장관이 2018년께 천정궁을 방문해서 한 총재를 만났고 1천 만원 상당의 불가리·까르띠에 시계와

현금 4천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확보한 이른바 ‘TM(참어머니·True Mother) 특별보고’ 문건에는

통일교 측과 전 전 장관의 만남을 암시하는 대목이 여러 차례 나온다.

윤 전 본부장은 2018년 9월 10일 한 총재에게 ‘부산 제5지구 모임’을 보고 하며 “얼마 전 천정궁에 방문한 전재수 의원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며 “우리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보고 전날 부산에서 열린 ‘신한국 지도자 초청 만찬’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 전 장관은 “고향 의령에서 벌초하고 있었다”며 행사 참석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경찰이 이 무렵 금품 수수가 이뤄진 혐의를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7년)는 이미 지난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2019년 1월 7일 ‘오후 2시 TM 일정: 전재수 국회의원’이라는 보고를 근거로 이때 전 전 장관이 한 총재와 만나 전단 행위가 이뤄졌을 확률도 있다. 이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있게 된다.

# 김원근 변호사 재판·소송



- 민사·형사·이혼·강제집행·공사관련·세입자분쟁·비즈니스·프랜차이즈 분쟁·세금분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가정폭력·범죄기록말소·임금 연장근로수당·경업금지 소비자 보호법 명예훼손·자동차 교통사고·산재보험·화재보험·자동차 보험·각종 보험사고 기타 각종 재판 및 소송처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 갤럭시부동산

★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경락,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주택 매매 및 렌트	주소	가격	세입자
1465 Hampton Hill Cir, McLean, VA	COMING SOON	\$1.25M	로리가 Hampton of McLean에서 가장 많이 거래를 한 헤이트리고 소문이나 세부인 등 끌고 들어온 후에 연락 옴. 2/6 마켓에 올라올 예정
5280 Jule Star Dr, Centreville, VA	UNDER CONTRACT	\$689,000	손님이 꼭 원하는 지역의 차고 1 타운 흥, 경쟁률 높고 드롭, Buyer So Happy 12/22 세일즈트 예정
8110 Squirrel Run Rd, Springfield, VA	SOLD	\$625,000	셀러가 원하는 조건으로 꼭 45일 무렵 Rent Back은 보너스, 로리는 파는 것도 잘 함, Seller So Happy, 11/24 세일즈트 원료
1477 Hampton Hill Cir, McLean, VA	SOLD	\$1.32M	복수 오피 범이 경쟁시켜 리스팅 가격보다 2만불 더 받음, Seller So Happy 10/24 세일즈트 원료
6758 Brook Run Dr, Falls Church, VA	SOLD	\$775,000	집 시시마자 주재원 청기 렌트 원료 10/21 세일즈트 원료
16309 Sandy Ridge Ct, Woodbridge, VA	SALE	\$970,000	Woodbridge의 Powells Landing 단지내 court에 있는 잘 생긴 싱글홈

주소	기간	세입자
울 거울/내년 봄에 파견 나온 주제원 30여명 있음, 렌트 높을 집 갖고 있는 집 주인 환영	10월~내년 1월 입주 예정	\$2,000 ~ \$5,500 가격대 렌트
1423 McLean Mews Ct, McLean, VA	바로 입주 가능	\$5,500 집 전체 업그레이드 된 차고 1 타운, 방 3, 화 3-1, 개방 일정, 풍情景우 중/액클린 고등
McLean, One Park Crest 콘도	바로 입주 가능	\$4,000
6518 Alexis Ln, Springfield, VA	바로 입주 가능	\$2,700 방 2, 화 2, 지정 차고, Springhill ES, Longfellow MS, McLean HS
Centreville, VA	12/20 입주 가능	차고 1 태운 흥, 풍情景우 중/액클린 고등
6605 Anthony Crest SQ, McLean, VA	12월 말 입주 가능	\$4,800 맥클린에서 유일하게 수영장 있는 차고 1, 타운, 방 4, 화 3-1, 풍情景우 중/액클린 고등
7606 Jervis St, Springfield, VA	1/1 입주 가능	\$3,200 집 전체 Renovation 된 차고 1 싱글 흥, 고등 풍情景우 방 4, 화 3-1, 풍情景우 중/액클린 고등
Vienna 티아슨스 엘 Amherwood타운 하우스 단지 3채	한자는 12/20일 두자는 1/1일 입주 가능	\$4,600-\$4,800 차고 2 풍情景우, Westbrar 초등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침 싱하 아주 풍情景우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로리 정

# 이혜훈, 휩쓸렸다더니… 지역구 구의원은 “반탄 삭발 강요”

1월 윤 체포 이틀 뒤 전국 첫 집회 의원 삭발식 뒤 이혜훈 마이크 잡아 구의원 “책임지고 공천준다고 해” 이 측 “주도했다면 함께 밀었을 것”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1월 자신의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당원협의회 중 전국 최초로 ‘탄핵 반대 삭발식’을 주도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분위기에 휩쓸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이 후보자의 해명과 배치되는 행적이다. 하지만 이 후보자 측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가 당협위원장으로 있던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당원협의회는 지난 1월 17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당시는 고위공직자범



지난 1월 17일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당원협의회가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뒷줄 가운데가 이혜훈 후보자. [사진 박영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SNS]

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한 지 이틀이 된 때로 보수 진영 일각에서 탄핵 반대 열기가 무르익던 시기였다.

이날 당협 소속 시·구의원 4명은 탄핵에 반대하며 삭발을 감행했고, 이후

보자는 삭발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마이크를 들고 연단에 올라 탄핵 반대 주장을 했다. 이 후보자가 오른 연단에는 ‘Stop the steal’ 등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문구가 걸려 있었고, 참석자들은 집회가 끝난 후 ‘대통령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는 이 후보자 명의의

현수막 앞에 모여 사진을 찍었다. 이날 집회는 국민의힘 당협 차원의 첫 ‘반탄(탄핵 반대)’ 집회였고, 이후 당협 주도의 반탄 집회는 전국으로 확산하는 흐름을 보였다.

당시 삭발에 참여한 기초의원은 30일 중앙일보에 “이 후보자가 삭발을 먼저 제안하고 사실상 강요 분위기로 휩쓸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음번에 책임지고 공천을 주겠다’는 식이었다”

며 “머리를 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했다. 삭발에 참여하지 않은 기초의원도 “당협위원장인 이 후보자가 삭발식에 앞장섰다”며 “그때는 탄핵 반대 분위기가 강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중·성동을 당협은 이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장관으로 자리

자는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매번 강성 주장을 했던 이 후보자가 이제 명 정부로 간다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이 후보자는 ‘세이브코리아’ 집회에도 참석했다. 그런 사람이 분위기에 휩쓸려 탄핵을 반대했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 후보자 측은 탄핵 반대 활동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기초의원들에게 삭발을 강요했다’는 주장에는 적극 반박했다.

이 후보자 측 인사는 “이 후보자가 주도했다면 왜 본인은 삭발하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안다.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일부 삭발 참여자 역시 “이 후보자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수민·박준규 기자

## “잡탕 아닌 무지개 만들자는 것”… 대통령, 이혜훈 지명 직접 설명

이혜훈 “내란은 분명히 잘못된 일” 청와대 “이혜훈 사파, 국민 판단 뜻”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각료 지명이나 인사에 있어서 참으로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며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를 아울러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 통합”이라며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특정한 세력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는 모두를 대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무지개와 포용을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잡탕 하자는 거냐고 할 것 같다”며 “각각의 특색을 유지하되 우리 구성원 모두가 푸른색을 선택했을 때 가지는 기대, 우리가 해야 할 원리·원칙·가치를 잊어버리지는 않는 다”고 했다.

진보 진영의 반대 여론도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에서 ‘보수에 자리를 다 주면 집권할 때 도움을 준 사람은 뭐냐’는 이상한 기사도 막 쓰고 그러는데, 다 주긴 뭘 다 줬느냐”며 “국무위원 중에 (보수 정부 출

신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말고 또 있느냐”고 되풀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가치와 원칙 기준을 유지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위원들을 향해선 내각의 다양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통합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며 “(이는) 정상인 사회로 되돌아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의견이 다른 게 불편함이 아니라 시너지의 원천이라 생각할 수 있었으

면 좋겠다”며 “내가 모래라면 자갈·시멘트·물을 모아야 콘크리트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후보자도 국무회의 1시간 전 자신의 계엄 옹호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온몸으로 헌신하신 민주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발언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계엄으로 족발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청산하고,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며, 새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의 사과에 대해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이 판단하실 뜻”이라며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후보자가 설명해 드리는 게 맞다”고 밝혔다.

오현석·안효성 기자

## 尹 내란재판 나온 김용현 “상징적 계엄”… 법정서 또尹옹호

현재 이어 두둔 발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장을 두둔하는 증언을 형사재판에서 재차 내놨다.

김 전 장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구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이 포고령 초안을 본 뒤 ‘통금’(통행금지) 관련 문장은 빼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 계엄 해제를 통해 국민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된다’고 말했고, 나머지 대국민 담화문의 문구를 몇 개 수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건 상징적인 거니까”라고 언급했다고도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내가 하고자 하는 계엄은 지금까지 했던 계엄과 다르게 하고 싶다. 경종을 울리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비슷한 취지의 증언을 내놓은 바 있다.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에 불과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이다.

특검팀이 “포고령 1호는 계엄 해제를 위해 모이는 국회의원을 체포하겠다는 내용으로, 단순 경고성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지적하자 김 전 장관은 “경고성 계엄이라는 것과 저것은 크게 연관성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계엄은 계엄이고,

경고성에 대한 대통령의 말씀은 그 말씀에 따라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계엄 선포에 대해 “대통령이 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큰 힘은 안 되겠지만 작은 힘을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9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휴대전화 메모에 이재명 대통령 등 주요 정치인 체포자 명단을 적은 데 대해서도 “그런 언급이 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자신이 지시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작년 12월 3일 여 전 사령관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합법적 명령에 의거 임무를 개시함’ 등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실행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메모를 작성한 데 대해서도 “전형적인 주정된 과업을 본인이 정리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자신은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적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과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증언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왜 저런 말을 하겠나. 이해할 수 없다”며 부인했다. 앞서 곤 전 사령관은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0월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 홈스프링 아동 가족 상담소

###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이증언어자  
환영

703-259-5617, 410-241-2520

###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항복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성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 페어페스티니 도서관 및 음악

3915 Blenheim Blvd, STE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ung Kwon)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ro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담을 찾으세요!

1961년생 메디케어 가입 상담 및 신청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571-225-0110

헬렌 서

# 2398 시작, 4214로 끝냈지만… 웃지 못하는 코스피

&lt;1월 2일 종가&gt;

&lt;12월 30일 종가&gt;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 속에 2000대에서 출발한 코스피가 4200대 고지에 올라서며 한 해를 마무리했다. 1년 동안 75% 넘게 치솟으며 주요 46개국 중 1위란 성적표를 받았다. 피날레는 화려했지만, 속사정은 달랐다. 반도체의 '나홀로 질주'에 기댄 반쪽 호황이리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4214.17에장을마쳤다. 전날보다는 0.15% 내렸지만, 지난해 말 대비로는 75.6% 상승했다. 이날 시가총액도 3478조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77.1% 증가했다. 3저(저달러·저유가·저금리) 호황 때였던 1987년(03%)과 외환위기 후 정보기술(IT) 거품 시기였던 1999년(83%)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연간 상승률이다. 코스닥도 지난해 말 대비 36.5% 오른 925.47에 마감했다.

주요국 증시와 비교해 압도적 선전이었다. 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 상승률은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46개국(중복 국가 제외) 사이에서 1위였다. 일본 27%, 중국 18%, 미국 17% 등이 뒤를 이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전쟁 영향으로 미국 이외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미국증시가 상대적으로 기울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장중 12만원, 65만원을 각각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0.33% 오른 11만9000원, SK하이닉스

는 1.72% 오른 65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를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다. 연간 삼성전자가 124%, SK하이닉스가 274% 오르며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다.

올해 증시 흐름의 전환점(모멘텀)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 정상화' 기조와 반도체 업황 개선이 꼽힌다.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전후 연중 저점(4월 9일 2293.70)을 찍은 코스피는 새 정부 출범 이후(6월 20일 3021.84) 3000선을 회복했다.

본격적인 상승세가 시작된 건 지난 7월이다.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 추진한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7월 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4% 오른 3116.27에 마감했다. 같은 달 14일 3200선을 돌파했다. 특히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을 합쳐 1조원 이상을 순매수 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가을에는 '코스피 4000' 시대가 열렸다. 10월 27일 코스피 종가는 4042.83으로, 사상 처음으로

반도체 '나홀로 질주' 기댄 반쪽호황 7월 상법 개정·10월 간부회동 등 계엄·탄핵국면 뚫고 4214.17 마감 상승률 76%, 46개국 중 1위했지만 증가분 대부분이 삼성·하이닉스

넘었다. 10월 29일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미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관세 불확실성이 걷혔다는 평가 속에 증시는

다시 상승 기류를 탔다. 이어 같은 달 30일 젠슨 황 앤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이른바 '깜부 치맥 회동' 이후인 11월 3일 코스피 종가는 역대 최고치인 4221.87을 기록했다.

하지만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의 코스피 기여율이 40%를 넘을 정도로 의존도가 커졌다"며 "반도체 수익에 대한 낙관적인 흐름에 조금이라도 균열이 생기면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반도체도 인공지능(AI) 수익화 논란으로부터 자 유롭지 않은 만큼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김동원

리서치본부장은 "AI 사이클은 최대 1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는데 지금은 3년 정도밖에 안 났다"며 장기 성장분에 무게를 실었다.

내수주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원화 약세(고환율) 기조가 이어질 경우 수입 단가 상승으로 내수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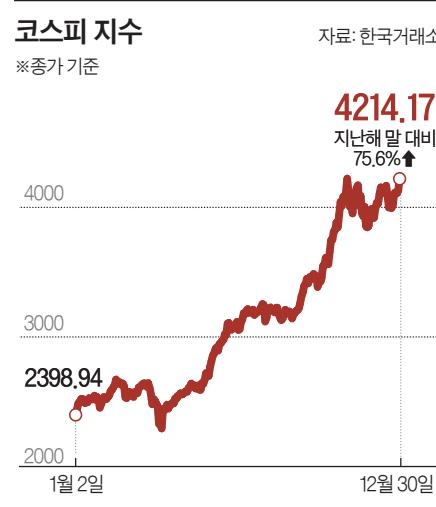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원화가치 하락(환율 상승) 국면에서는 업종 간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며 "코스피 이익 증가분의 대부분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집중돼 있어 자본시장 상승과 체감하는 경제 회복은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도 엇갈린다. 블룸버그가 전문가 21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스텠더드 앤드 푸어스(S&P)500 지수를 기준으로 평균 9%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미 증시가 4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관측이다.

다만 CIBC 캐피털 마켓의 크리스토퍼 하비 전략가는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보다 오래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미국이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전격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의 니암 브로디·마추라 포트폴리오 매니저도 "위험 분산 차원에서 미국 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장서윤 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클립턴 싱글홈**  
  
**\$1.5M**  
방5/화4.5/차고3, 1.05 에어컨  
새 지붕, 새 HVAC

**센터빌 타운홈**  
  
**\$600,000**  
방3/화2.5/차고1

**스프링필드 타운홈**  
  
**\$3,000**  
방2/화2.2, 2 Assigned  
밝고 환한집, 업그레이드 많이 함, 교통편리

**COMING SOON**

**센터빌 타운**  
**\$700,000**  
방3, 화2.2, 차고2

**비엔나 콘도**  
**\$325,000**  
방1, 화1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韓國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미국 이민법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미국 이민**

**김웅용 변호사**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시민권 / 영주권**

- 가족초청이민 - 종교이민
- 취업이민 - 투자이민 (EB-5) - 추방재판
- 간호사(RN)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상담 및 신분 변경

**비 이민비자**

**Eng/Kor** (Eng/Kor) (한국어 상담)

**703-246-9100 |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뉴욕  
오피스** 646-256-9156(Kor) | 212-739-0843(Eng)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Joy Law Group, PLLC.**



## 우리말 바루기

## ‘및’에 대한 오해와 이해

“영수증 및 개인 컵이 있는 분에게는 기념품을 드립니다.” 카페에 이런 문장이 걸렸다. 기념품을 받으려면 영수증이나 개인 컵 가운데 하나만 가져가도 될까, 아니면 두 개 다 가져가야 할까? 간혹 ‘및’을 ‘또는’ 정도의 뜻으로 여긴다. 그러면 둘 가운데 하나만 가져가도 되는 줄 오해하는 일이 벌어진다. 흑 모른겠다. 카페 주인이 ‘및’을 ‘또는’의 뜻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니까.

‘및’은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 ‘그 밖에’ ‘또’ 같은 뜻이다. 조사 ‘(과)와’도 의미가 같다. 그러니 기념품을 확실하게 받으려면 영수증도, 개인 컵도 챙겨야 한다. ‘및’은 규칙이나 약관 등 공적인 문장에 흔하게 보인다. 이해관계를 따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다면 일상에서처럼 ‘및’ 대신 ‘(과)와’를 쓰는 것도 방법이겠다. ‘및’이 글에서 주로 쓰인다면 ‘(과)는’ 말에서도, 글에서도 자연스럽게 쓰인다. ‘(과)는’ 오해할 일도 없다. ‘영수증 및 개인 컵’ 대신 ‘영수증과 개인 컵’이라고 하면 더 부드럽기도 하다. ‘및’으로 앞말과 뒷말을 연결할 때 앞뒤는 같은 종류의 성분이어야 한다. 같은 범주로 묶을 수 있는 말들이 외야 자연스럽다. 예를 들어 “가방에 필기도구 및 삶의 허무함을 가득 채웠다” “아름다운 일몰 및 영수증을 카페에 담았다” 같은 문장을 읽는다면 맥락을 찾기가 어려워진다.

##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w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①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 · 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홍암범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w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재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시카고에서 연말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해볼 만한 것들이 많다. 널리 알려져 많은 시카고언들로부터 사랑받은 이벤트도 있지만 새롭게 생긴 것들도 많아 연말이 가기 전에 한번쯤 해볼 수 있을 것들을 모아봤다.

첫 번째는 뮤니퀴니 해도 다운타운 크리스마스 점등 행사다. 올해 밀레니엄 파크에 설치된 시카고 크리스마스 트리는 노르웨이 가문비나무로 글렌 뷰 주민이 기증했다. 총 3만9250개의 점등이 설치된 이 나무는 1월11일까지 밀레니엄 파크에서 주민들과 만나게 된다. 링컨파크 동물원에서도 홀리데이 라이트를 만날 수 있다. 1월4일까지 진행되며 350만 개의 LED 전구가 설치된 브룩필드 동물원의 홀리데이 매직, 시카고 보타닉 가든의 라이트 스케이프, 모든 수목원의 트리 라이트 행사도 즐길 수 있다. 이 밖에도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홈구장 레이티드 필드와 그리핀 과학 산업 박물관에서도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을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연극 공연이다. 전통적으로 연말에 무대에 오르는 크리스마스 캐럴 공연은 다운타운의 군맨 시어터를 비롯해 오크 브룩의 드루리 레인 시어터, 위트 시어터, 라이프라인 시어터 등에서 열린다.

세 번째는 연말 공연이다. 뮤지컬 엘프는 유명 배우 월 페렐이 출연하는 영화 버전이 처음 나온



박 춘호  
시카고 중앙일보 기자

지 20년 뒤 오디토리엄 무대에 올라 시카고 관객들과 만난다. 또 CIBC 시어터에서는 매직 서비스 크리스마스가, 시카고 시어터에서는 태양의 서비스의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네 번째는 어른들을 위한 공연과 이벤트로 리글리빌과 루프, 리버 노스 지역에서 임시 바가 연말에만 운영된다. 이중 ‘8 Crazy Nights’이라고 불리는 팝업 바는 하누카를 테마로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다.

다섯 번째는 무용 공연이다. 시카고에서 연말 무대에 오르는 가장 유명한 무용 공연은 호두까기 인형이다. 올해도 조프리 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 무대가 5일부터 리릭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리고 있다. 이 작품의 무대는 1893년 콜럼버스 만국 박람회가 열리기 전 시카고의 크리스마스다. A&A 발레단은 호두까기 인형을 기반으로 192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한 작품 ‘The Art Deco Nutcracker’를 공개한다.

여섯 번째는 스케이트장이다. 연말 시카고 다운타운에는 매기 데일리 파크, 밀레니엄 파크, 네이비피어에 스케이트장이 설치돼 많은 주민들이 찾는다. 이곳뿐만 아니라 또 시카고 컵스의 홈구장 리글리필드의 갈라가 아이스 링크도 2월 중순까지 운영된다. 스케이트가 없어도 현장에서 빌려서 탈 수도 있다. 물론 안전을 위해 장갑은 필수다.

일곱 번째는 티파티와 홀리데이 만찬. 드레이크 호텔의 홀리데이 티 파티, 런던하우스 시카고의 티 서비스 등이 있다. 스테이트길 메이시스 백화점에 위치한 월넛룸에서는 올해 옛 마샬필드를 테마로 한 특별한 식사가 준비된다.

마지막은 야외 마켓, 다운타운 리처드 데일리 센터 플라자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키플레이트 대표적이다. 이 독일 스타일의 크리스마스 마켓은 전통 음식과 라이브 음악, 가족 친화적인 놀이거리, 머그컵에 따라 마시는 핫코코아 등으로 유명하다. 다운타운 뿐만 아니라 리글리빌과 오로라에도 크리스마스 키플레이트 운영된다.

이 중에는 처음 들어보는 이벤트도 여럿이다. 모르는 이벤트가 많을수록 시카고 연말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처음 들어보거나 해보지 않은 이벤트를 하나 하나씩 지우면서 시카고의 연말을 보내는 것도 하나의 재미라고 볼 수 있다.

## 열린광장

## ‘거기서 뭐 하세요?’



이 창민  
목사·시온연합감리교회

‘거기서 뭐 하세요?’ 낯선 질문 하나가 불현듯 내 삶에 찾아와 머릿속에 둉지를 틀더니 쉬이 떠나지 않는다. 그 질문은 나를 어린 시절로 이끌었다. 작은 것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사람들이 뭐 하는지 유심히 살피며 다녔다. 짐작처럼 버스에 실려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한밤중에도 불을 밝힌 고층 빌딩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동네 어귀에서 장기를 두며 목소리를 높이는 어른들을 보면 서도 ‘거기서 뭐 하세요?’라고 물곤 했다.

살다 보니 어느 순간 그 질문이 사라졌다. 이제는 사람들 하는 것을 보면 굳이 묻지 않아도 뭘 하는지 웬만큼은 알아차릴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이고, 내 삶 챙기기도 벽자 남의 일에까지 관심을 둘 여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이기도 하다.

세상과 다른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조금씩 흐릿해지면서 누가 어디서 뭘 하든 더 이상 궁금하지 않게 되었는데, ‘거기서 뭐 하세요?’라는 질문이 이번에는 나를 향해 되돌아왔다.

‘거기서 뭘 하다니? 정말 몰라서 묻는단 말인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남의 나라에 와서 이만큼 살려면 얼마나 노력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 혼자 푸념하며 넘겨 보려 했는데, 이번에는 연말을 맞아 이 질문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때는 최선이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 채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나는 도대체 거기서 뭘 했던 걸까?’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은 비정민이라는 배우다. 지금은 이름만으로도 알만한 유명인이 되었지만, 그 자리에 서기까지 적잖은 시간을 견뎌야 했던 사람이다.

그가 보잘것없고 변변하지 못한 상태를 속되게 일컫는 ‘찌질이’라고 자신을 부르던 시절, 그는 ‘찌질하다’의 반대말은 ‘특별하다, 잘 나간다’가 아니라 ‘찌질했었다’라고 정의했다.

‘찌질하다’라는 현재형 고리표를 ‘찌질했었다’

라는 과거형으로 바꾸는 순간 찌질한 인생은 지나간 이야기가 되고, 찌질함을 벗어나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비밀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게다. 오랜 기다림 속에서 갈고 닦은 내공으로 주변을 살피던 그가 이렇게 말했다. “가만히 보면, 모두가 의외로 살아 있다.”

‘의외’라는 말이 그리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 까닭은 그만큼 살아남기 힘든 세상임을 알기 때문이다.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박수받아야 마땅한 이들에게 그는 ‘거기서 뭐 하세요?’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진 후 능글맞게 말했다. ‘거기서 뭐 하세요? 뭘 하시든 고맙습니다’라고 말이다. ‘거기서 뭐 하세요?’라는 별것 아닌 질문에 한참 동안 고민을 당했는데, ‘뭘 하시든 고맙습니다’라는 담담한 감사의 고백 앞에 마음이 순식간에 녹아버렸다.

올 한 해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버티고, 애쓰고 수고한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이 말이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견디기 힘든 시간도 있었겠지만,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어디서 뭘 하셨든 고맙습니다.’

1. 센터빌 벽돌 타운	SOLD \$589,000	방3, 화2.5, 치고1, Hmart 인근, 29/Braddock/28/66
2. 애쉬번 타운	\$660,000	방 4, 화 3.5, 치고2, 최고 학군, RT267/7, 밀러스 공항, 전부 리모델링, 새집 깊은
3. 맥클린 콘도	\$389,000	방2, 화2, 1,050sqft, McLean High, RT 495/66/267/7, Metro, Tysons Galleria 옆

4. 스텔링 타운	SOLD \$645,000	2014년, 방3, 화2.5, 치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5. 게인스빌 골프 싱글	SOLD \$1,060,000	게인스빌 레이크 매너스 Stonewall Golf Club 내 렉서리 싱글
6. 빌더 새집 구매 확실히 도와드립니다	Sold	1. Haymarket 55+ Villa \$670,000 방3, 화3.5, 치고 2 2. 매너스 2025 새집 \$670,000 방4, 화3.5, 2400sqft, 치고2 3. Bristow 55+ singl \$750,000 방4, 화3.5 치고 2

7. 우드브리지 싱글	SOLD \$649,000	1997년, 방4, 화3.5 치고1, 뒷술, 최고 학군, 전부 리모델링 포트맥 풀/R795, RT1, RT234, 디시출근 편리
8. 도미니언 밸리 컨트리 클럽, 헤이 마켓 싱글	\$1,699,000	1. 애이커 숲속, 6,700sqft, 방5, 화5.5, 치고3, 선실, 고급 조명, 트레이 천장, 스파 워시, 드레스룸, 인로우 스위트, 미더어룸, 캐비닛, 바포함, 최신 HVAC, 정수 시스템
9. 센터빌 타운	\$499,000	2017 리모델링, 방 3, 화 3.5, 1,740sqft, 지하 f.bath, 워크온, 브레이크/28,66,29 교통요지

황계실 571-239-6054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건물·오피스·창고·상가

부동산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 김철민

##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히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협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w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 예촌 앞 빌딩 3층

# “1인 기업이 6개월만에 1145억원에 팔렸다…당신도 가능하다”

세대 불문 미래 불안과 정체성 혼란, 삶에 흐름 들어온 AI와 기대 이상으로 늘어난 수명 탓에 낮은 생존 방식이 무용지물이 돼버린 지금, 우리가 불안을 줄이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엔진은 뭘까요. 많은 전문가는 ‘질문’을 꼽습니다. 질문만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인생을 재정의하는 통찰에 다가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의 질문을 통해 내 질문을 찾아 나서는 여성인 ‘질문하는 인생’ 시리즈의 이번 순서는 스스로를 ‘마인드 마이너’로 칭하는 송길영 작가입니다.

링 밖에서 훈수 두는 사람과 얻어맞고 쓰러지더라도 링 안에서 뛰는 사람. 곤이 이 둘의 선호도를 따지자면 후자 쪽이다. 인터뷰 대상도 가급적 후자 중에 고른다. 송길영 작가는 전자 쪽 인물이지만, 지난 9월 16일 만났다.

그의 시대에 보 시리즈 최신판 『시대 예보: 경량문명의 탄생』에 담긴 핵심 메시지인 ‘대마필사’를 더 알아보고 싶어서였다. 기존 상식인 대마불사(大馬不死)를 뒤집은 대마필사를 외친 이유를 물었더니 그는 대뜸 문명 전환이라는 큰 얘기를 꺼내 들었다.

무거운 조직 안에서 규모의 경제 기반으로 성장해온 ‘중량문명’에서 이제 빠른 개인이 업무(task) 중심으로 협업하는 ‘경량문명’으로 바뀌는 대전환기라는 진단이었다. 그와의 대화를 꼬리에 꼬리를 무는 키워드 문답으로 정리했다.

## Q. 경량 문명

A. 가볍고 민첩한 문명이다. 과거처럼 인력과 자본 투입으로 스케일업(성장)하는 방식은 이젠 어렵다. 여기서 핵심은 인건비 절감이 아니라 의사 결정을 지원시키는 비효율의 제거다. 이걸 못 하는 무거운 조직은 기술·트렌드 발전에 맞는 속도를 낼 수 없다. 1인당 기업 가치 순위를 소개하는 대시보드 사이트 ‘린(Lean) AI 리더보드’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전 세계 월간 활성 이용자(MAU) 10억 명인 메시지 앱 텔레그램 앤지니어는 고작 30명이다. 심지어 올 초 이스라엘 개발자 1인이 만든 노코드 플랫폼(말하면 코드 작성해주는 솔루션) 스타트업인 베이스(Base) 44는 설립 6개월 만에 300만 달러 매출을 올리고 8000만 달러(약 1145억원)에 팔렸다. 이렇게 직원 숫자 없이 가치를

만든 기업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금 시대는 가볍고 빠른 경량 문명이 기존의 중량 문명보다 우월하다. 생산 문명이라서 그렇다.

## AI 서비스에 돈을 내는 이유

### Q. 생산 문명

A. 경량문명은 소비 문명이 아니라 생산 문명이다. 주변에 “(AI 학습과 활용이) 힘드니까 나는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 소비라면 그럴 수 있다. “온라인 직구 번거로우니 그냥 재래시장 갈래”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 기자라면 “나는 컴퓨터로 기사 안 쓰고 종이 위에 붓글씨로 쓸래”는 안 된다. 송고·데스킹·출고 등 제작 시스템 전체가 디지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니까. 다시 말해 혼자 옛 도구를 고집하면 협업이 안 된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안 할 수 없다. 어차피 그냥 하게 될 거다. 한 가지 더 염두에 둬야 할 건, 협력·협업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과거엔 사람끼리의 협력이었지만 이제는 인간 아닌 객체(AI)까지 협업 파트너로 들어왔다.

AI를 도구로만 쓸 게 아니라 동료로 대해야 한다. “난 몰라, 아직 멀었어, 내 업종엔 안을 거야.”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틀렸다. 전방위적으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고 있다. 이걸 깨달은 많은 이들이 이미 프로슈머(생산자와 소비자를 합친 말)가 됐다.

### Q. 프로슈머. 그리고 유료 구독

A. 2022년 챗GPT 등장 3년 만에 AI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AI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 오라클 등 기업용 B2B 서비스 소프트웨어는 원래 비쌌지만, 개인용 사용자 소프트웨어나 앱은 대부분 무료거나 아주 싸다. 그런데 서비스 초기부터 과금했던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 미드저니는 물론이고 범용 AI인 챗GPT나 제미나이·그록, 검색 특화 퍼플렉시티 등도 무료 사용은 아주 제한적이고 적개는 월 20달러에서 많게는 300달러까지 구독료를 받는다. 적잖은 개인이 하나 또는 여러 개의 AI 서비스를 이용하며 꽤 큰돈을 별다른 저항 없이 쓴다. 개인도 기업처럼 생산하기 때 문이다. 다시 말해 프로슈머가 돼서다.

취미로 사용할 땐 10달러도 부담스럽다. 하지만 100달러 씩서 1000달러 가치를 창출한다면 기꺼이 쓴다. 1만달러 별 수 있다면 1000달러도 견딜 수 있다. 개인이 기업과 경쟁하기 시작하며 벌어진 일이다. 기업은 이미 켜켜이 쌓인 구조와 투자한 (인적·물적) 자원 탓에 낮은 비용



송길영 작가를 지난 9월 16일 만났다. 덩치 큰 조직일수록 불리한 ‘대마필사’ 세상이 온다고 한 이유가 궁금했다. 그는 “경량문명”을 말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9일 중앙일보에서 촬영했다. 김종호 기자

으로 서비스(상품)를 내놓기 어렵다. 이런 조직의 간접비가 없는 개인은 가능하다. 이런 판에선 기업이 불리하다. 가령, 거대 스튜디오가 CF 하나 만드는데 헬기로 찍고 자동차 움직이는 등 비싼 장비 동원하면 광고모델로 빼고도 수억원은 쉽게 듣는다. 웰리티 차이가 다소 있지만 이젠 1인 기획사가 AI만 잘 사용하면 300만원에도 상업 광고 제작이 가능하다. 덩치 큰 회사는 가격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다. 대마불사 아닌 대마필사 시대가 왔다.

### Q. 대마필사

A. 대마(거대 조직)는 죽지 않는다 고 여겼지만, 이젠 거대함이 약점이 됐다. 지금까지는 큰 회사 들어가면 “인생 괜찮아”였다. 그런데 대기업들 희망퇴직 대상이 과거처럼 50대가 아니라 30대까지 내려왔다. AI 파고 앞에서 조직(기업)이 힘든 거다. 아니, 조직도 생존 전략을 모르는 거다. 개인은 탐색을 해야 한다. 특히 주체적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더 이상 조직에 종속되지 않고 자기 업을 만들어 조직과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앞으로는 어디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내가 꿈꾸는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업(일)의 재정의는 필수다.

### Q. 일의 재정의

A. 업을 재정의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지금까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만 정리했는데 그게 더는 유효하지 않아서다. 사람과 AI가 각각 잘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서, 인간은 AI가 잘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AI는 크게 두 가지를 잘한다. 하나는 거대한 일, 다른 하나는 업무가 안 나는 엄청난 양의 단순 반복 업무다. 가령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는 인류가 2%도 못했던 단백질 3차원 구조 모델링 예측을 거대한 재능 ‘알파폴드’로 풀었다. 그런가 하면 화장품 8억 5000만개의 성분표를 전부 분석한 후 이를 소비자 구매 패턴과 연결한 화장품 회사도 있다. 이렇게 사람이 할 일, AI가 할 일을 구분해서 인간이 할 일을 택한 다음엔 온라인 경험 등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유효하지 않다는 인정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내가 하는 일을 재정의해야 한다. 특히 중장년층이라면 더욱 “내가 하는 업의 본질이 뭐냐”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한다. 빠른 변화에 적응하려면 지금껏 우리가 구호로만 외쳐온 평생교육을 진짜로 해야 한다.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학습 능력이 지금 당장의 지식이나 업무 스킬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를 제대로

구현하려는 기업은 CTO(Chief Task Officer·최고 업무 책임자)가 필요하다.

### Q. CTO

A. 모든 기업의 CHRO(최고 인사책임자)는 CTO로 진화해야 한다. 과거 조직 설계 중심은 “어떤 사람을 뽑을까”였다. 이젠 업무의 어디까지나 AI가 할 일이고 어디까지나 사람이 할 일인지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이미 무신사 등은 채용 공고를 낼 때 ‘테스트 자동화 환경 구축 및 운영’을 내세워 특정 업무를 직접 할 사람이 아니라 그 업무를 자동화할 사람을 뽑기 시작했다. 인간이 하던 일을 없앨 인간을 채용하는 셈이다. 나쁘게 볼 일은 아니다. 20세기로봇이 과거 노예 노동을 대신한 것처럼, 이제 사람이 직접 할 필요 없는 일의 수고로움은 덜고 부가가치는 얹는 방식으로 변화하면 된다. 이렇게 일의 성격이 바뀌면 보상 체계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시간을 사는 정액제였다면, 앞으로는 종량제가 될 거다.

### 정액 월급 시대가 진다

#### Q. 종량제

A. 직장인 월급은 정액제다. 회사가 직원에게 산 시간만큼 매달 정해진 보상을 주는 게 월급이다. 사람 부리는 쪽에서 보자면 무조건 일을 많이 시켜야 유리하다. 상사가 “보고서 언제까지 가능해?”라며 자꾸 재촉하는 것도 시간 안에 더 많은 일을 시키려는 의도다. 그런데 만약 진단 결과물로 보상한다면 어떨까. 주어진 시간 안에 더 많은 일을 시키려고 달달할 이유가 없다. 출퇴근 시간도 무의미해진다. 모두 유연하고 독립적인 업무환경을 누릴 수 있다. 시간·공간 제약 없는 이런 종량제로 일하면 전제 조건이 있다. 누구와도 협업이 가능한 프로토콜이다.

#### Q. 프로토콜

A. 과거 부·차장, 임원 등 여러 직급 거치던 단계는 AI의 등장으로 축약되는 동시에 협업의 범위는 넓어진다. 조직 내에서 소수 개인적 친분으로 하던 협업이 아니라 조직 내에선 사람과 AI, 그리고 조직 간에 500만, 5억 명과도 협업이 가능한 명확한 규칙, 즉 표준화한 프로토콜 기반으로 일하는 세상이 오고 있다. 이미 드론 산업이 그렇다. 주문하면 수백만 개 분야가 공학적 협업을 해서 사를 만에 나운다. 살아남으려면 조직은 협업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조를 재정의해야 하고 개인은 협업 툴 등 프로토콜 역량을 쌓아야 한다.

안혜리 논설위원

## 구강교육치과

#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Penn(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www.naturadent.net](http://www.naturadent.net)



임플란트 · 잇몸치료 · 치아교정  
Implant · Periodontal Surgery ·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 치아성형 · 신경치료  
Emergency · Veneer Lumineers ·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 서울 미국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서울 종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임상경력 50년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VA, MD, DC 면허 소지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 \*\*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목디스크, 간염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 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시설****‘김병기 사태’가 까발린 공천 ‘암거래’, 빨본색원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거래 의혹에 휩싸였다. 여당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진이 폭로한 권력형 특혜와 갑질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더니 급기야 당 내부에 깊숙이 감춰져 있던 공천 비리까지 탄로 나는 막장극으로 전개되고 있다.

김병기 의원이 어제(30일) 여러 의혹을 끊임없이 사과하며 원내대표에서 물러났지만, 사안의 심각성으로 볼 때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공천 거래 의혹은 당사자의 녹음된 음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드러났다.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이 지방선거(6월 1일)를 앞둔 2022

여원 수수 사실을 당시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논의하는 내용

이다. 공천 현금 성격의 돈을 건넨 사람은 김경 서울시 의원으로 알려졌고, 그는 녹음이 높았던 강의원의 지역구(강서구)에 단수 공천됐다. 녹음 내용이 맞다면 민주당 공관위원들이 공천 거래와 묵인에 연루된 심각한 선거 범죄가 벌어진 것이다. 강 의원이 “저 좀 살려주세요”라며 울먹이는 부분도 나온다. 두 의원은 사태를 걱정하기도 했지만, 결국 의혹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3년 넘게 묻혔다. 민주 정당에서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행위가 방치되고 묵인된 것이다. 강 의원은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 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공당의 공관위원을 맡은 국회의원들의 윤리 의식이

이 정도였다면, 일반 국민 입장에선 당시 지방선거 공천 전반에 대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그간 국회의원과 시의원 사이에 수천만~1억원대 돈으로 얹힌 ‘먹이사슬’이 있다는 게 정치권에선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져 왔다.

국민의힘 전직 의원도 시의원 공천권을 벌미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이번 녹취는 정치권에 공천을 둘러싼 부패가 만연해 있을 가능성은 보여준다. 공천 거래가 이렇게 드러난 경우뿐

이겠느냐는 의구심은 전혀 지나치지 않다. 앞서 김병기 의원은 부인이 지역구인 동작구 의회 부의장의 업

무주진비 카드로 200여만원을 사용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여당 원내대표와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승승장구했다가 보좌진의 폭로와 녹취 등으로 위기를 맞은 민주당 두 의원의 사례는 국회의원의 갑질을 비롯한 부패 구조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민주당은 어제 윤리감찰단에 강 의원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국민의힘 측은 강 의원을 정치자금 범위내과 뇌물 등 혐의로, 김 의원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를 맡게 될 경찰 또는 공수처는 제기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철저한 자정 노력을 통해 이 같은 정치 부패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새울 3호기 허가…‘시한부 원전 정책’으로 AI 미래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어제 회의를 열고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 허가를 최종 의결했다. 새울 3호기는 발전용량 1400㎿급으로, 부산·광주·대전 시민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새해인 다음 달 초 연료 장전과 이후 시운전 및 시험을 거치면 8월께 상업운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울 3호기는 그간 정권에 따라 부침을 거듭한 사연이 많은 원전이다.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6월 ‘신고리 5호기’라는 이름으로 건설을 시작했으나, 이후 ‘탈원전’을 외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건설이 중단됐다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3개월 만에 다시 살아났다.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기준을 맞추고, 또 이에 대한 규제 심사도 장기화하면서 준공이 늦어졌다. 2016년 첫 삽을 뜯 후 9년6개월 만의 운영 허가다. 대형 원전 하나를 건설하는 데 평균 7년이 걸리니, 2년6개월이 늦어진 셈이다.

새울 3호기의 가동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문제는 신규 원전이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2기가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안갯속에 갇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를 그대로 받지 않고 국민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거쳐 내년 초 존폐를 결정하겠다며 또다시 ‘공론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9년 전 새울 3호기가 겪은 소모적 갈등이 반복될 수 있

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세계는 지금 인공지능(AI) 열풍과 함께 ‘원전 뉴턴상’을 맞고 있다. 미국은 사고가 났던 스리마일섬 원전을 데이터센터를 위해 재가동하기로 했고, 일본은 후쿠시마의 상처를 딛고 ‘원전 회귀’를 선언했다. 영국은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4배로 늘리겠다고 한다. AI 데이터센터는 24시간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데,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널뛰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공언한 ‘AI 3대 강국’을 위해 필요한 26만 대의 GPU와 50GW에 육박하는 데이터센터 전력은 대형 원전 수십 기가 있어야 가능한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원전 건설에 15년이 걸려 AI 시대의 대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15년이 걸린다는 이유로 신규 원전을 포기하면 15년 뒤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전기본은 국가 에너지의 백년대계다. AI 강국이라는 화려한 구호가 헛된 약속이 되지 않으려면 전력 정책은 이념이 아닌 과학과 실용에 기반을 둬야 한다. 새울 3호기의 점등은 ‘정치가 과학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정부는 12차 전기본에서 신규 원전 계획을 지워버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신규 원전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미래 산업의 혈맥을 뚫어줄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혜훈 지명 단상**

〈斷想〉



고정애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글이 어지러울 수 있겠다. 생각이 여러 갈래여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은 그만큼 다의(多義)적이다.

① 우선 이 후보자.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에 새 유형의 여성 정치인이 등장했는데, 법조인 나경원·조윤선과 함께 경제학 박사인 그였다. 이전의 한나라당 여성 정치인들은 최고 권력자와 가깝거나 그의 부인과 가까웠다. ‘부인 정치’란 아류에 속했다. 이들에 이르러서 야 달리졌다.

5년여 뒤 총선을 앞두고 진박 쪽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공천을 줄 5인을 알렸다. 김무성·허태열·유승민·유정복과 그였다. 정작 박근혜 정부 초기에 그는 공천을 받지 못했다. 강남 3선인 걸문제 삼았는데 문제 삼는 이들은 영남 다선 이었다. 유승민과 정치 행보를 함께한 탓이 컸을 것이다. 어느 순간 그는 윤석열 지지자로 바뀌었다.

원내대표·장관을 한 나경원·조윤선과 달리 그는 한데에 머물렀다. 그러다 이번에 자신이 비난해 온 인물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20여 년 정치를 부인해야 했다. 장관직을 떠난 후에 어느 진영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유흥(越境)을 택했다. ‘과거의 기록을 다 지우고’ 건너고 야 마는 욕망과 의지가 놀랍다. 한 미국인이 이런 권력에의 돌진을 ‘소용돌이’에 비유했다. “소용돌이 폭풍이 일어나면 그 거대한 흡입력은 모래알의 정치 개체들을 빨아들여 어떤 이성적인 성찰을 마비시킨다”고 했다.

② 통합: 청와대의 설명이다. 상대방도 그리 느껴야 통합될 텐데 정반대다. 국민의힘이 ‘밴댕이’이긴 하나 불쾌할 만한 요소도 충분했다. 이전 보수 인사들의 이동엔 맥락이 있었고, 징후도 있었다. 이번엔 돌연했다.

사실 이 대통령이 이럴 수 있는 건 자신감이다. 지지율은 높고 국민의힘은 지리멸렬하다. 인사청문회도 하나마나 하다. 내각엔 ‘이렇게나 의혹이 많은데도 후보자 꼬리표를 뗀 사람들’이 많다. 월

경했는데 낙마하는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개연성이 낮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이 나아질 생각은 안 하고 ‘당성(黨性)’ 운운하며 더 보잘것 없어지니 대통령으로 선 더 유혹을 받을 거다. 물론 ‘통합’ 외 퍼를 두르겠지만 공략이자 정략이다.

③ 여성. 현내각은 유사 의원내각제라 할 만큼 전현직 국회의원이 많다. 19명 중 7명이 현직, 1명이 전직이다. 이후 보자의 가세로 한 명 더 늘었다. 공교롭게 현직은 모두 민주당 남성 의원이다. 강선우 의원 낙마 여파로 곤하지만 민주당 여성 의원(166명 중 29명)이 전무한 게 기이하다. 왜일까. 여성 의원들은 어찌 불까.

④ 그리고 기획예산처.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일지언정 격렬한 토론을 통해 차이와 견해의 접점을 만들어가고 그 과정 자체가 새로운 정책과 합리적 정책을 만들어가는 지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리된다면야 좋겠다. 현실은 달리 말한다. 문재인 정부 때 정통 예산통이면서

30년 정치 부인하며 후보자 됐지만 청와대 실장·보좌관까지 총총시하 ‘보수’ ‘통합’ 상징만 산 게 아니길

재정을 쓸 땐 써야 한다던 김동연 경제부총리조차 최저임금, 법인세·소득세율 인상 등 몇몇 대목에서 청와대·여당의 진영 논리와는 결이 다른 얘기를 했다가 ‘폐상’ 논란이 일었다. 특히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갈등이 깊었다. 박근혜 정부 때엔 실세로 불린 진영 복지부 장관이 “한계와 무력감을 느꼈다”며 사임한 일도 있다. 복지부 차관 출신 수석이 장관을 제치고 복지부 실무자들을 청와대로 불렀다는 뒷말이 나왔다.

이번 조건은 ‘김동연+진영’ 그 이상이다. 청와대의 김용범 정책실장이 경제부총리로 보임 정도로 압도적 그림감을 보이고 이례적으로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류덕현)이 있다. 계량경제학자인 이 후보자와 달리 류 보좌관은 재정 전문가다. 과연 이 후보자가 ‘다른 생각’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이 대통령이 ‘보수 여성 정치인’이란 상징만 산 게 아니길 바랄 뿐이다.

중앙SUNDAY 편집국장

**중앙일보**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ife.joongang.co.kr>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jfe.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불편·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메일 [sarangbang@joongang.co.kr](mailto: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전체계약제휴사 미국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화사통신社, 日本経済新聞

주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종운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기00195

본사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자작권(C)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료 | 월정 20,000원 | 1부 1,000원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광고비는 쓰는데,  
매출은 그대로인가요?”

구글에서 안 보이면, 고객은 오지 않습니다.

- 구글 검색 & 지도에서 고객이 먼저 찾게 만들고
- 광고비 낭비 없이 실제 문의와 방문으로 연결하고
- 매출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흐름을 만듭니다.

**intelisystems**  
Think eMarketing

“2주 안에 새고객과 매출 향상을 경험을 하세요!”



지금 연락주세요 – 무료로 걸고 마케팅 전문  
(시운도자 한정)

571-506-0220

[sales.intelisystems.com/k1](http://sales.intelisystems.com/k1)



구글 지도 랭킹,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광고,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소셜미디어, 유튜브 광고, 온라인 쇼핑몰,  
이메일 마케팅, 웹사이트 제작

[www.intelisystems.com](http://www.intelisystems.com)

[www.hyebanmd.com](http://www.hyebanmd.com)

KOREAN BBQ

HYEBAN



한국식 BBQ 구이 전통한식



## 한식의 품격

4명의 셰프가 빚어낸  
정통의 맛을 전합니다.

깊이 있는 정통 한식의 맛!!



정통 한식 구이의 불맛과  
신선함이 만나는 곳,  
엘리콧시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  
“혜반(HYEBAN)”에서  
완벽한 점심을 즐기세요!



월, 화, 목, 일  
수요일  
금, 토

오전 11시 ~ 오후 10시  
정기 휴무 / CLOSED  
오전 11시 ~ 오후 11시

즉석 칼국수 신메뉴 출시!

Weekly Special

따뜻한 즉석 칼국수와 깊은 맛의 닭볶음탕  
런치 뷔페에서 만나요.~



443.420.3096

HyeBan23@gmail.com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7, Ellicott City, MD 21042

구 인

홀 서버 (Hall Server)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카멕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멕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 타이틀이전, Tax 문제등 판매후 세부문제 완벽처리

###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5년 현재 **30년 이상**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SPECIAL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중고차를 팔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http://www.HANKOOKMOTORS.com)

#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Fairfax Motors  
한국자동차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지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wpk, #303, Annandale, VA 22003

# 건강 & 연예/문화 Sports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Wednesday, December, 31 2025 C

**○ 냉·난방 ○**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온도되고 깨끗한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규모가 큰 신용입니다  
LENNOX Carrier TRANE  
Carrier, Lennox 전문딜러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추방재판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 치과 임플란트 ]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스)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매출한 풍靡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감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당하여 드립니다.

## 찬바람에 뻑뻑하고 흐릿한 눈, 방치하면 시력 저하 생겨

### 겨울에 조심해야 할 눈 질환

겨울은 눈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는 계절이다. 차가운 바람이 눈을 자극하고, 건조한 실내 공기가 눈물막의 균형을 무너뜨려 안구건조증을 유발·악화시킨다. 추위로 혈압이 오르면서 망막혈관 폐쇄 위험도 커진다. 망막혈관폐쇄는 치료가 늦으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다. 겨울철 눈을 괴롭히는 안과 질환과 병원을 찾어야 하는 경고 신호를 짚어본다.

눈은 점막이 외부로 노출된 유일한 신체 기관으로 환경 변화에 민감하다. 특히 겨울철 차가운 바람과 난방으로 건조해진 실내 공기에 오래 노출되면 안구건조증 위험이 커진다. 공기가 건조해지면 눈물막 균형이 깨지면서 눈물이 쉽게 증발하기 때문이다.

결막염·눈꺼풀염 동반 여부 확인해야  
여기에 주위를 피해 실내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눈감빡임 횟수가 줄어 안구건조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안구건조증이 생기면 눈이 뻑뻑하거나 따갑고 시린 증상이 나타난다. 찬 바람이 불면 눈물이 흘러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안과 강민지 교수는 “겨울철 안구건조증이 악화하거나 찬 바람이 눈을 자극하면 눈을 보호하기 위한 ‘눈물 분비 반사 작용’이 일어나 눈물이 과다 분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때 분비되는 눈물은 물(水) 성분이 많아 쉽게 흘러내린다. 눈은 건조한데 눈물이 계속 흐르는 이유다. 실제 눈물흘림증 환자의 발병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안구건조증이다.

겨울철 눈이 건조한 증상은 누구에게나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건조한 찬바람, 눈물막 균형 무너뜨려

건조증 방치 맨 혼탁·시력 저하 위험

망막 출혈·비문증 증상 맨 병원 가야



출처: Gettyimagesbank

겨울철에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눈 질환의 신호를 놓치면 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일상에 불편을 줄 정도로 심하거나 통증, 눈부심, 시야 흐림이 동반된다면 치료가 필요하다. 결막염이나 눈꺼풀염이 함께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강 교수는 “다른 안과적 질환과 동반돼 발생하는 안구건조증의 경우 방치하면 감염이나 혼탁을 유발해 영구적인 시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찬 바람에 눈물이 나는 눈물흘림증은 대부분 안구건조증이 원인으로, 이를 치료하면 호전된다. 하지만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눈물이 계속 흐르다면 눈물의 생성·분포·배출 과정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고려

대 안산병원 안과 윤은규 교수는 “눈물이 배출되는 길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눈물이 제때 빠져나가지 못해 조금만 눈물이 나도 쉽게 흐른다”며 “이 밖에도 눈꺼풀 위치 이상, 속눈썹 자극, 결막·각막 염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눈물흘림증이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치료 늦으면 실망하는 망막혈관폐쇄 주의  
갑작스러운 시력 변화나 시야 일부가 가려 보이는 증상도 주의해야 한다. 시력을 위협하는 망막혈관폐쇄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망막혈관폐쇄는 혈전(폐색)이 시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망막 혈관을 막아 발생하는 질환이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후유증을 남기는 뇌졸중처럼, 망막 혈관이 막히면 신경세포가 손상돼 시력 저하 등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눈 중풍’으로도 불린다.

망막혈관폐쇄는 뇌졸중과 마찬가지로 겨울철에 발생 위험이 커진다. 추운 날씨로 혈압변동이 커지면서 혈전이 생길 위험 역시 커지기 때문이다. 활동량 감소로 수분 섭취가 줄어 혈액이 끈적해지는 점도 망막혈관폐쇄의 발생 위험을 키운다.

특히 만성질환 환자는 이런 변화에 취약하다. 윤은규 교수는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환자는 이미 혈관이 약해져 있어 겨울철 혈압 상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이로 인해 망막혈관폐쇄 발생 위험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김가영 기자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wpk, #310-B  
Annandale, 22003

**Ebenezer Matching**  
**스페셜 매칭**  
초혼, 재혼, 시니어  
(917) 359-1578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락빌의 건강지킴이

# 황지연 내과

Jiyon Hwang-Ki MD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만성 성인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황지연 내과와 함께 관리하세요.”

### 진료 과목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협심증, 해소, 천식,  
위궤양, 간염, 알러지검사, 신경통,  
관절통 및 신경질환, 갑상선,  
종합검진, 각종 예방 주사, 부인과 진료,  
수액 주사, 링거 주사

\*\* 메디케어 및 HMO, 각종 일반 보험 취급합니다.  
\*\* Amerigroup 받습니다.

Dr. 황지연

### • 연회원제 주치의 프로그램 •

#### 1단계 기본 (Essential)

- 연회비: \$1,800 (월 \$150)
- 포함: 연 2회 종합검진 (CBC, CMP, TSH, Lipid, HbA1c, UA, EKG), 원격진료 4회, 약물 검토·처방 개선, 전문의·병원 연계
- 정기 관리 기본: 6개월마다 검사+상담, 원격진료 최대 4회 예약창 제공

#### 2단계 프리미엄 (Premium)

- 연회비: \$3,000 (월 \$250)
- 포함: 연 4회 종합검진 (동일 항목), 원격진료 8회, 독감백신 1회, 약물 검토·처방 개선, 분기별 검사/상담, 원격진료 최대 8회, 독감백신 시즌 내 접종, 전문의·병원 연계

등록비: \$250 (1회)

Telehealth 추가비: 포함 회수 초과 시 \$50/회  
(사전 고지 후 \$50/회 결제)

연장/갱신: 만료 45일 전 갱신 알림, 30일 전 취소 가능

[www.drhwangki.com](http://www.drhwangki.com)



Jiki Medical Associates, LLC  
Internal Medicine

**301-610-6630**

15200 Shady Grove Rd, Ste 108, Rockville, MD 20850  
Fax. 301-610-5431 | Email. [jikimedical@gmail.com](mailto:jikimedical@gmail.com)

# 노년 삶 무너뜨리는 '흐릿한 기억력' 나빠지기 전에 대비해야

기억력 저하는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흔히 경험하는 증상이다. 대부분 노화 현상으로 생각하지만, 이를 방지하면 노년의 삶과 가족의 일상이 무너질 수 있는 만큼 일찍부터 대비해야 한다.

처음엔 사람 이름이나 약속 시간을 자주 잊어버리는 정도의 작은 변화가 나타난다. 그러다 시간이 지날수록 ▶장을 보러 가 무엇을 사야 할지 기억하지 못하고 ▶약 복용 시간을 반복해서 잊어버리며 ▶가스불을 끄지 않고 외출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판단 능력이 흐려지는 것도 일상을 위협하는 요소다. 복잡한 금전 계약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금융 거래나 비용 계산을 할 때 혼란스러운 상황에 자주 맞닥뜨린다. 이로 인해 전화 금융 사기나 방문 판매, 보이스 피싱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기억력·인지력 유지는 존엄한 삶의 조건이다. 기억력 저하는 개인의 감정과 대인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스스로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끼 사람 만나는 일 자체를 꺼리다 보니 점차 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다. 기억력·인지력 저하가 심한 사람은 독립적인 생활이 힘들다. 혼자 외출하거나 집안일을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 보호자나 요양시설의 도움이 절실히 된다. 특히 가족의 존도가 높아져 가족 간 갈등이 불거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는 돌봄 부담과 심한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가족 전체의 삶이 무너지는 사회 문제로 연결되곤 한다. 이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건 건강 관리 차원을 넘어, 삶의 존엄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됐다.

## 뇌 건강 돋는 '포스파티딜세린'

나이 들수록 기억·인지력 저하 겪어 4주 이상 복용하면 뇌 건강 개선 은행잎 추출물도 두뇌 혈액순환 촉진

뇌의 노화를 늦추고 삶의 주도권을 오래 유지하려면 기본적으로 생활습관을 개선해야 한다. 기본은 충분히 수면하고 꾸준히 운동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실천하는 것이다. 또한 끊임없이 정신적인 자극을 주고 대인관계를 통해 사회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두뇌 기능에 도움 되는 영양 성분을 섭취하는 것도 방법이다. 노화로 인한 기억력·인지력 감소를 개선해 주는 대표적인 건강 기능성 원료는 '포스파티딜세린'과 '은행잎 추출물'이다.

포스파티딜세린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다. 특히 뇌의 신경세포막 내층에 풍부하게 존재하며 세포 간 신호 전달과 세포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선 포스파티딜세린의 역할이 절대적이란 뜻이다.

문제는 나이 들수록 뇌의 신경세포 막에 있는 포스파티딜세린의 양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이땐 신경세포막이 변형되고 뇌세포 간 신호 전달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기억력 감퇴와 인지력 저하 증상이 나타난다. 포스파티딜세린은 노화와 함께 자연 감소하는 만큼 외부에서 보충해 주는 것이 좋다.

특히 대두에서 추출한 포스파티딜세린은 노화로 감소하는 체내 포



출처: Gettyimagesbank

기억력 저하를 겪은 사람이라면 평소 수면·운동·식사에 신경 쓰고 두뇌 건강에 도움 되는 기능성 성분을 챙겨 먹는 게 좋다.

스파티딜세린을 보충할 수 있는 유익한 성분으로 꼽힌다.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두뇌 건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다. 평균 60.5세인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매일 300mg의 포스파티딜세린을 12주간

먹게 한 결과 ▶기억력 13.9년 ▶학습 능력 11.6년 ▶전날 본 사람에 대한 인지 능력 7.4년 ▶10자리 숫자 암기 능력 3.9년이 연장되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50~90세 남녀를 대상으로 매일 포스파티딜세린 300mg를 12주간 섭취하게

한 인체 적용시험에서도 ▶인지 기능 ▶기억 회상 ▶실행 기능 ▶집중력 ▶정신적 유연성 등의 항목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포스파티딜세린의 두뇌 건강 개선 효과는 섭취 후 4~12주 사이에 나타났다.

뇌세포 노화 억제하고 신경세포 보호 은행잎 추출물도 기억력 개선 효과가 있는 기능성 원료다. 기존엔 혈액순환 개선제로 많이 쓰였지만, 최근엔 뇌 기능 장애 치료제로 활용 범위가 넓어졌다. 특히 포스파티딜세린과 함께 섭취하면 두뇌 기능을 향상하는데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은행잎 추출물은 폴라보노이드와 징코라이드, 빌로발리드 성분으로 구성돼 있다. 폴라보노이드는 ▶항산화 ▶항염 ▶미세혈관과 혈관 내피 보호 ▶뇌세포 간 시냅스 기능 지원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다. 징코라이드는 혈소판 활성인자를 방해해 혈전 형성을 막고 혈관의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빌로발리드는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가 정상 기능을 유지하도록 돋고 신경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성분 덕분에 은행잎 추출물은 뇌세포의 노화와 퇴행을 억제하고 두뇌의 혈액순환을 촉진해 기억력과 인지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50세 이상 알츠하이머 환자 333명, 혈관성 치매 환자 71명을 대상으로 한 인체 적용시험에서 매일 은행잎 추출물 240mg를 24주간 섭취하게 한 결과 인지 기능과 신경 정신적 증상이 개선된 사실이 확인됐다.

김선영 기자

서울광혜병원 치료 기술 개발 성과

## 척추 치료법 30년간 연구...추간공학장술 등 특허·상표권 다수 획득

부작용 낮춘 반강성고정술 주목받아 환자 부담 줄인 척추 치료기술 개발 신경병증성 통증 분야로 연구 확장

서울 광혜병원이 척추 치료 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의료기관으로 주목받고 있다. 해외 장비나 술기에 의존하기보다 환자에게 더 나은 치료법을 제공하기 위해 자체 기술 개발에 힘쓴 결과다. 특히 박경우(사진) 대표원장은 30년 이상 척추 치료 연구에 매진한 결과 현재

까지 국내외 특허 23건, 등록 상표 12건을 확보했다.

박 대표원장이 의료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계기는 '반강성고정술' 개발이다. 기존의 척추 수술은 병변 부위를 단단하게 고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이 경우 병변 부위 분절(마디)을 강하게 고정하는 과정에서 주변 마디에 더 큰 하중이 집중돼 척추 퇴행을 촉진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박 대표원장은

탄성과 충격 흡수 기능이 뛰어난 니티늄(Nitinol·니켈과 티타늄으로 이뤄진 합금) 스프링 로드(rod·고정 마대)를 적용했다. 이 로드는 척추를 고정하면서도 척추의 운동성을 일정 부분 보존해 생체 역학적인 균형을 유지하도록 돋는다.

여기에 각 마디를 독립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스크루 헤드(나사 머리) 덕분에 재수술이 불가피할 때도 해당 부

위만 절개해 수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반강성고정술 기술은 국내를 넘어 미국·일본·중국에서 특히 등록으로 이어지며 가치를 인정받았다.

서울 광혜병원에서 시행하는 '추간 공학장술'도 주목받고 있다.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에게는 회복 부담이 적은 수술 전 치료 선택지로 떠올랐다. 추간공학장술은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협착·유착으로 좁아졌을 때 인대를 절제해 공간을 넓히는 시술이다.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만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염증 유발 물질을 배출

해 통증의 생화학적인 원인까지 해결한다. 이 시술은 부분마취로 시행되며, 박 대표원장이 개발한 특수 키트로 목표 부위 접근성이 향상돼 환자 부담도 줄었다.

최근 박 대표원장은 ▶반강성고정술에서 로드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는 피로 파단을 최소화하며 수술 편의성을 높인 모듈형 시스템 ▶추간 공학장술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특수 키트(트로카 핸들 및 니들 구조) 개선 등의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한 3건의 특허는 한국·일본에서 등록을 마쳤으며, 모듈형 시스템의 경우 미국에서도 특허 등록이 확정됐다.

김선영 기자

# 임마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s) 혜택자

##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에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은 문의 바랍니다.

443-288-6677

Email: care@emmanuel.care / www.emmanuel.care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 최고 시설 최대 규모



##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주2회 방문), 마사지체어실, 탁구대, 당구대, 노래방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 의료동행서비스 (병원 예약 및 진료에 동행, 맞춤형 지원)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즐겁고 활력 넘치는 다양한 액티비티 프로그램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878-6611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 웅웅 거리고 답답한 보청기, 정밀 피팅해야 '제값'



'보청기=불편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다. 잘 안 들려서 보청기를 찾았는데 막상 작용하고 나면 더 답답하고 번거로워 금세 포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서다. 자신의 목소리가 울리고, 전체 소리는 커졌는데 정작 들어야 할 말소리는 흐릿하다고 호소한다. 무언만 보청기가 된 셈이다.

이런 불편은 보청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청력 손실을 가속한다. 청력은 한번 떨어지면 회복이 어려운 감각이다. 최근 애플이 소음 노출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에어팟을 이용해 기본 청력 테스트를 제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난청이 있으면 의사소통이 어려워져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이 깊어진다. 환경 변화는 뇌 기능에 영향을 미쳐 치매 위험을 5배까지 높인다.

국제학술지 랜싯(Lancet)의 '치매 예방·증재·관리 보고서' (2024년)에 따르면 치매 예방에 기여하는 항목의 3분의 1이 난청과 관련 있다. 보청기 착용은 뇌 건강을 위한 투자임을 시사한다. 대한비인후과학회는 속삭임이 안 들리는 정도(40~60dB)의 난청이면 보청기를 즉시 착용하길 권고 한다.

## 사용자에 맞춰 20~40개 음향 요소 세밀 조정

청력을 지키려고 큰 비용을 들여 산 보청기가 제값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청각 재활 전문기관 히어링허브 종로센터 김시몬 청각사는 "대부분의 불편은 보청기 자체 성능 문제 라기보다 피팅(fitting) 과정의 미비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사용자의 귀 상태에 맞춰 20~40개의 음향 요소를 세밀히 조정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내 목소리가

울리는 느낌(폐쇄감)은 저음(저주파)을 과하게 키우거나, 소리가 갑자기 줄었다가지는 과정을 조절하는 압축 비율이 잘못 설정됐을 때 흔하다. 조용한 집에서는 웬만한 식당만 가면 말이 하나도 안 들리는 불편감은 사용자가 실제 자주 머무는 소음 환경을 피팅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 대부분이다.

이렇다 보니 보청기와 점점 더 멀어진다. '보청기는 나와 맞지 않는다'고 단정 짓는다. 일부는 반납 과정에서 분쟁이 벌어져 오히려 더 큰 부담을 떠안기도 한다.

김 청각사는 "보청기에서 한번

## 청각 재활센터 히어링허브

### 보청기 조기에 착용하면 치매 예방

### 피팅 잘못되면 비싸도 '무용지물'

### 한국어·생활환경에 맞춰 정밀 조정

### 실제 소음 재현 시스템, 만족도 높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청기 소비자 상담 사유를 살펴봐도 제품 및 착용 서비스(피팅) 품질 관련 불만이 37.4%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제품 성능만큼 피팅 서비스의 수준 차이가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전문 인력이 있는 곳에서 충분한 테스트 후 살 것과 ▶지하철·신문 광고 등에서 내세우는 파격 조건에 현혹되지 말 것을 권고한다. 김 청각사는 "청력 검사도 더욱 정밀해지고 있다"며 "기존의 데시벨(dB) 손실 측정에 더해 음질 선호도, 잡음 민감도 등을 함께 평가함으로써 개인의 청취 특성을 다각도로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보청기를 처음 구매하거나 이전 착용 경험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다음 세 가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 한국어 기반 피팅과 생활환경(식당·직장·지하철 등)에 맞춘 개별 조정, 일괄 설정이 아닌 단계적 조정 여부다. 장기 착용 성공률을 높이는 요소들이다.

김 청각사는 "보청기 피팅에 서 특히 간과되는 부분이 언어별 음향 특성"이라고 짚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피팅 공식 상당수는 영어권 사용자 기준으로 개발됐다. 한국어 자음이 약하게 들리거나 말소리가 소음에 묻혀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어는 영어와 달리 중·저주파 비중이 높다. 한글의 자음 명료도는 고주파의 미세한 차이로 결정된다.

생활환경에 맞춘 개별 조정은 가상 음향 환경(VSE·Virtual Sound Environment)을 활용한 피팅으로 해결할 수 있다. 현실의 소리를 실내에서 그대로 재현해 보청기 주파수를 조정한다. 식당·웅성거림과 지하철 안내방송 등 다양한 소음 환경을 전장·바닥에 설치한 10개의 스피커를 통해 360도 입체음향으로 재구성하는 게 특징이다. 기존에는 '여기가 식당이라고 생각해 주세요'라고 설명하며 사용자의 상상에 의존하는 방식이었다.

김 청각사는 "일반 센터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실제 소음 환경을 그대로 재현한 피팅 시스템"이라며 "정확한 진단과 반복적인 조정을 통해 편하게 들리는 소리를 만드는 것이 보청기 전문센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



# 최지호

## 가정의학 / 노인의학 클리닉

### 24/7 전화 진료

#### 전문 노인의학 / 일반 진료

- 치방전 관리(당뇨, 고혈압, 고지혈, 갑상선, 위장약, 기억력/치매, Pain Patches(Lidoderm, ZTlido, Flector, Pennsaid)
- 통증치료(체외충격파 / 치료 초음파)
- 치매(기억력) / 우울증 검사
- 상·하 기도 감염, 요로 감염
- Xray / CT / MRI 리퍼럴
- 종합 피 / 소변 검사
- 심전도 검사

#### 건강백세+건강 지킴이 주사 (수액/정맥주사)

- 기력회복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 머리카락 & 피부 건강
- 뇌 건강(기억력, 집중력)
- 관절통 완화 & 염증 개선
- 심혈관
- 신경 안정

#### 한방 치료 / 치료 마사지 (MD만 가능)

- 한방 치료 Ace Acupuncture 571-438-4644
- 치료 마사지 Healing Hands Massage 703-314-9461

#### \* 메디케어 파트 B 받습니다.

\*남자 간호보조원 (MA) 채용합니다.

VA 4216 Evergreen Lane, ste 125  
Annandale, VA 22003-3256

진료시간 월 ~ 수, 9am ~ 3pm

토, 9am ~ noon

MD 16051 Comprint Circle,  
Gaithersburg, MD 20877-1320

진료시간 목 ~ 금, 9am ~ 3pm

\*메릴랜드에서만 치료 마사지와 한방 치료가 가능합니다.



최지호, MD  
가정의학/노인의학 전문의

-1995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2006년 플로리다 대학교 가정의학 전문의 수료  
-2013년 조지워싱턴 대학교 노인학 펠로우 수료

전화/문자/사진/비디오

**240-232-5989**

Fax: 703-662-6165  
frontdesk@immediatehousecalls.com  
immediatehousecall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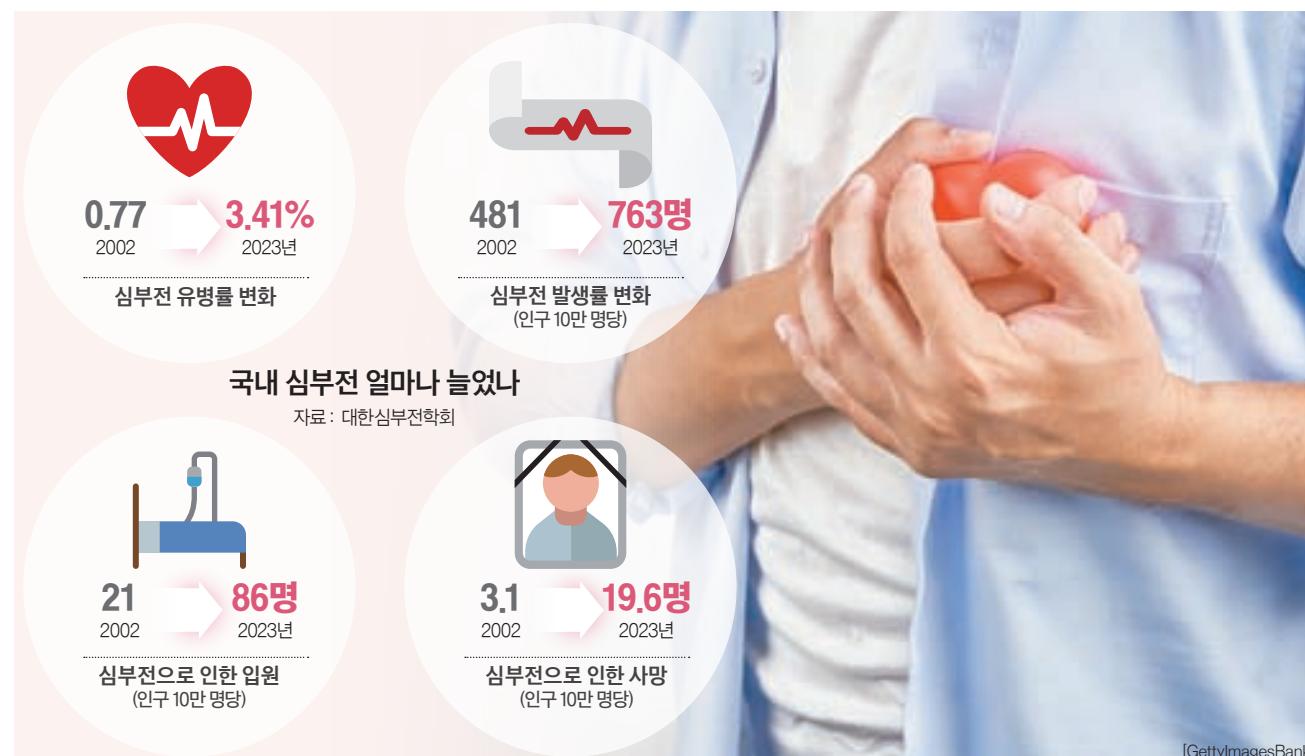
# 3층 계단만 올라도 헉헉대는 심부전, 짠음식은 독

심부전은 심장이 약해지거나 지쳐서 펌프 기능이 떨어져 몸에 필요한 만큼의 혈액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게 되는 상태로 정의한다. 한자로 心不全이라고 쓰며, 풀이하면 심장이(心) 온전 하지(全) 못한 상태(不), 즉 심장의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상태이다. 모든 심혈관 질환은 적절히 관리하여 심부전으로 진행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목표이다. 이번에는 심부전에 대해서 다뤄보자 한다.

심부전 환자 20년새 4배 이상 늘어  
대한심부전학회에서 발표한 '심부전 팩트시트 2025'에 따르면 2023년 현재 175만 명이 심부전을 갖고 있고, 이는 2002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히 고령 인구에서 높은 유병률이 관찰되어서 70~79세에서 12.9%, 80세 이상에서 26.5%이다. 인구 10만 명당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이 86명이고, 사망이 19.6명으로 이환율과 사망률이 매우 높다.

심부전이 심장질환의 종착점이라고 하니 심부전이라는 진단을 들으면 이제 나의 심장은 끝인가라고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심부전은 여러 단계가 있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적절한 단계에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심부전 진단을 받았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현재 심부전 정도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심부전의 대표적인 증상은 운동시 호흡곤란이다. 심부전의 대표적인 기



## 심장질환의 종착점 '심부전'

심부전 기능등급 총 4단계로 분류  
일상에도 증상 보이면 3등급 의심  
나트륨이 울혈 만들어 증상 악화  
금연·금주와 함께 식단관리 필수  
급격한 체중 증가땐 빨리 병원가야

능등급 분류는 뉴욕심장학회 기능등급을 이용하는데 1단계는 무증상, 2단계는 일상의 활동을 넘어설 때 증상이 있는 경우, 3단계는 일상의 활동에

서 증상이 있는 경우, 4단계는 안정시 증상이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일상 생활-청소, 평지 걷기, 1·2층 계단 오르기-의 범위에서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매우 잘 관리되고 있는 심부전이다. 하지만 대청소, 빠르게 뛰기, 3층 이상의 계단을 오를 때 증상이 있다면 이는 3 단계 기능등급에 해당해서 주의를 요하고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다면 빨리 의료진의 진료가 필요하다. 정기적으로 3층 정도의 계단을 오르며 호흡곤란 발생 정도를 비교하면 본인의 현재 심부전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심부전은 관상동맥질환, 고혈압, 부

정맥(심방세동 등), 심장판막질환, 심장근육의 문제, 당뇨병, 갑상선 이상, 빈혈, 신장 질환 등 여러 질환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금연·체중·금주, 카페인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심겁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 심부전 환자들의 상당수가 이뇨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몸 속의 나트륨 성분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갑자기 짜게 먹게 되면 제거해야 할 나트륨 성분이 증가되어 몸 속에 울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심부전 악화 가능성이 높으니 매일 체중을 측정해서 급격한 체중 증가가 관찰될 경우

빨리 병원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

심부전에서 하는 수술 및 시술들은 그 원인이 되는 판막수술, 관상동맥증재술 및 우회로술 등이 있을 수 있고, 좌심실 수축기능의 저하가 심한 경우에는 위험한 부정맥인 심실빈맥/세동발생의 빈도가 올라가서 제세동기 삽입술을 한다. 중증 심부전은 심장이식을 통해 완치 가능할 수 있지만 모든 환자가 이식을 받지는 못해 2022년 기준 연 200건 가까이 시행되고 있다. 국내 심장이식의 1년 생존율은 90% 정도이고, 중장 생존기간은 12.5년으로 매우 높다. 최근에는 삽입형 좌심실 보조장치를 심장이식 대기 중에 사용하거나 이식이 어려울 때 사용하기도 한다.

## 심부전, 하루빨리 전문질환군 분류돼야

우리의 춥고 건조한 겨울은 심장환자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시기이다. 특히 심부전 환자들은 심장 기능의 여유가 부족해서 겨울철 흔한 독감에도 심부전 악화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심부전이 일반질병군(건강 보험심사평가의 분류로 비교적 흔하고 중증도가 높지 않아 일차진료나 일반 병상에서 관리 가능한 질환군)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병원은 심부전 진료를 할수록 비용적 부담을 안게 되어 인력이나 진료환경 조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오일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엘비스 프레슬리도 못 피해간 변비, 하루 최소 25g 식이섬유 섭취해 예방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는 변비 환자였다. 공식 사인은 심장마비였지만, 그의 주치의는 불과 42세에 숨진 엘비스 프레슬리의 사망 원인을 만성 변비라고 주장했다. 부검 결과 그의 장이 정상인보다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었다고 했다.

생사를 가를 만큼 심각해지는 일은 드물지만, 변비는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겪는 건강 문제다. 보통 ▶배변 횟수가 3~4일에 1회 미만일 때 ▶배변 시 과도하게 힘을 쥐어야 할 때 ▶불완전한 배변감(잔변감)을 겪을 때 변비라 칭한다. 변비 탈출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배변습관을 들이는 동시에 식습관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식사 거르지 말고 폭식도 삼가야  
변비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기본은 규

### 식이섬유 섭취량 높이는 한끼 밥상

귀리밥	아육된장국	연어구이	파채무침	시금치나물	열무김치	출처: Gettyimagesbank
재료	귀리 20g 쌀 70g	아육 70g 된장, 멸치육수	연어 100g 식용유 소금, 후추	대파(채) 60g 식초, 매실청 멸치액젓	시금치 80g, 참기름 국간장, 다진마늘, 파	열무김치 70g
Tip	입맛에 맞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도 무관	아육의 식이섬유 섭취량을 늘리려면 질긴 줄기의 겉껍질 제거하지 말기	연어에 파채를 곁들여면 식이섬유 섭취량 증가	시금치를 너무 오래삶으면 식이섬유 구조와 기능 변할 수 있어 주의	무청이나 열무 등에 식이섬유 다양함유	

자료=이정주 용인세브란스병원 영양팀 임상영양사

최적인 식사다. 끼니를 거르거나 한꺼번에 몰아 먹으면 배변 리듬이 깨져 변비가 유발될 수 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직장·결장 반사와 위·대장 반사라는 두 가지 배변 족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 결과 대변이 장 안에 오래 머물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록 변의(대변이 마려운 느낌)를 일으키는 자율신경의 움직임도 둔화해 변비가 습관처럼 굳어지게 된다.

식이섬유를 꾸준히 챙겨 먹는 일도 중요하다. 식이섬유는 사람의 소화 효소로는 분해되지 않는 식품 내 성분으로 채소와 과일, 해조류, 정제되지 않은

곡류 등에 다량 함유돼 있다. 소화되지 않은 채 대장으로 보내져 대변 만드는 일에 관여한다. 물을 흡수해 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부피를 증가시켜 배변 작용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돋는 식이다. 변비를 예방, 치료하려면 하루 최소 25~30g의 식이섬유를 섭취하길 권한다.

물 하루 6~8잔 마시면 치료 효과 커져  
다만 갑작스레 그 양을 늘리는 일은 피한다. 가스 생성 등 식이섬유 섭취 증가로 생길 수 있는 소화기관의 변화에 몸이 적응할 수 있게 서서히 양을 늘려 나가야 한다. 과잉 섭취도 바람직하지 않다.

체내 칼슘과 철분 등의 흡수, 이용률이 낮아질 수 있어서다. 또 가능하면 보충제나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기보다 자연식품을 통해 식이섬유를 채우길 권장한다.

식이섬유 섭취 효과를 높이는 방법도 기억해 두면 요긴하다. 물을 넉넉하게 마시는 일이다. 물은 하루 6~8잔이면 적합하다. 아울러 변비일 때 화장실에 가기 전 따뜻한 음료를 마시고, 요구르트 등 발효 유제품을 하루 1~2회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 요구르트는 공복에 먹기보다 식사 중 혹은 식후 바로 섭취해야 유산균이 위산의 영향을 덜 받아 변비 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1석 5조 통합보험

암 환자에게 식사는 치료의 일부  
조리비 감당 영양·성분 균형 좋아  
Retirement Income  
은퇴자금

Critical Illness Rider  
병원비 보조

Terminal Illness Rider  
사망선고시

5 in 1

Chronic Illness Rider  
간호자금

Life Insurance  
생명보험

MetLife John Hancock Genworth Financial Transamerica ATHENE Allianz

Prudential PACIFIC LIFE ZURICH AccordiaLife Columbus Life Insurance Company

Nationwide Lincoln Financial Group AIG MassMutual FINANCIAL GROUP AIA ISW

Aetna NATIONAL WESTERN LIFE INSURANCE COMPANY AXA

MDRT The Professional Association of Financial Protection

■ 재정교육 (Financial Education)  
■ 생명보험 (Life Insurance)  
■ 노후대책 (Retirement Plan)  
■ 원금보장 연금상품 (Annuity)  
■ 재산상속 (Estate Planning)  
■ 주택/비지니스 응자

■ 장기 간호 보험 (Long Term Care Ins.-Living Benefit)  
■ 학자금 교육 (College Financial Aid Education)  
■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 개인 건강보험 (Personal Health Ins.)  
- 단체 건강보험 (Group Health Ins.)  
- 오버마케어 (Affordable Care Act)  
■ 메디케어 (Medicare)

로리 문 Cell. 703-895-7648  
send2lorimoon@gmail.com

“ 귀하에게 딱 맞는 보험회사로 맞춰 드립니다! ”



UNI Worldwide  
Financial Marketing

버지니아 (VA)  
3701 Pender Dr, Suite 160, Fairfax, VA 22030  
버지니아 (리치몬드)  
14321 Winter Breeze Dr, Suite 15, Midlothian, VA 23113  
메릴랜드 (MD)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 김우기

## 통증·한방·재활 물리치료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CORE Integrative Care & Wellness

센터빌  
챈들리  
海淀

한국과 미국에서의 통증·재활 분야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가

## 양·한방 통합 치료로 집중 케어 해드립니다!



### 진료 내용

####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Kenzie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 치료  
보보스 치료

#### 통증치료

근육 통증 치료  
한방 침 치료, 전기 치료  
관절/근막이완 치료

### 메디케어

- 각종 의료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 메디케이드
- 캐쉬플랜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
- 뇌졸중/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 진료과목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University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University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Licensed Acupuncturist

**원장 김우기 DPT, LAc**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 김우기

## 통증·한방·재활 물리치료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받습니다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 고령층 여유자금 연 5381달러 수준

지출 커 재정 불안 높아  
주거·교통·의료·식비가  
노년층 지출서 큰 비중  
비용 줄이는 전략 필요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65세 이상 고령층의 연평균 소득은 약 6만5468달러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2023년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연 평균 지출은 약 6만87달러였다. 월 약 4622달러다.

고령층 소득과 지출의 최신 통계를 비교하면 여유자금은 연 5381달러로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비상 상황을 감당하기에는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금융조사(SCF)의 2022년 자료 분석에 따르면 65~69세의 평균 은퇴자금은 약 20만 달러 수준이고 은퇴 이후 여유자금도 적어 많은 이들이 계속 일해

야 하는 상황이다. 이중 가장 큰 이유는 비싼 생활비다. 고령층은 소득을 늘리기 어려워 매달 지출이 가장 많은 영역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이 현실적으로 더 중요하다.

▶주거비= 소비지출조사(CE)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은퇴자의 연간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주거비다. 연간 2만1445달러에 달한다.

집값이 예전히 비싼 상황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주택 규모 축소를 검

토할 만하다. 현재 주택을 팔고 차액을 확보하거나 비용이 낮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다른 은퇴 부부와 함께 사는 공동 주거를 고려할 수도 있다.

지금 거주지에 그대로 머물고 싶다면 주택보험 비용을 낮추는 방법을 찾는다. 디지털 보험 비교 플랫폼인 오피셜홈인슈어런스(OfficialHomeInsurance)는 주요 보험사의 견적을 빠르게 비교해 최적의 보험료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교통비= 일하는 시간이 줄거나 은퇴를 해 일을 완전히 그만둔다면 차량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지출 절감에 도움이 된다. CE 자료에 따르면 교통비는 은퇴자가 두 번째로 많이 지출하는 항목으로 연간 9033달러에 이른다.

배우자와 두 대의 차량을 유지하고 있다면 한 대를 처분해 보험료와 유지보수비를 줄이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차량을 유지하든 줄이든, 자동차 보험료를 너무 많이 지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오피셜카인슈어런스닷컴(OfficialCarInsurance.com)은 프로그레시브와 올스테이트, 가이코 등 주요 보험사의 견적을 비교해 최적의 보험료를 찾는데 도움이 된다.

▶의료비= 은퇴자의 연간 의료비

지출은 약 8027달러다. 고령층에게는 필수적인 지출이면서 부담이 큰 항목

이기도 하다. 의료비를 절감하는 방법

65세 이상 고령층이 연평균 소득 6만5468달러에 연 평균 지출 6만87달러로 여유 자금 확보가 매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연평균 소득 6만5468달러에 연 평균 지출 6만87달러로 여유 자금 확보가 매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 하나는 예방 의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정기 검진과 예방접종을 제때 받으면 갑작스러운 큰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에 대비해 비상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고수의 예금계좌를 활용하면 의료비 자금을 효과적으로 불릴 수 있고 필요

할 때 쉽게 끼내 쓸 수 있다.

▶식비= 65세 이상 가구의 식비 지출은 연간 7714달러로 네 번째로 큰 지출 항목이다. 지출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은 식단 계획을 세워 장보기 중심 소비로 전환하는 것이다. 외식은 비용 부담이 훨씬 크다. 최근엔 음식값이 올라 가격 부담이 더욱 커졌다.

장을 볼 때는 효율성이 중요하다. 항상 목록을 만들어 필요한 것만 구매하는 습관을 만들면 도움이 된다. 공복 상태에서 장보기를 피하고 세일 품목 위주로 구매하는 것도 효과적인 전략이다. 고급 식료품점보다 대형 체인 수퍼마켓이 비슷한 품질의 상품을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 현금 소진율 계산하면 지출 관리에 유용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나 버는지는 잘 알고 있지만 얼마나 빠르게 쓰는지는 잘 모른다. 개인의 현금 소진 속도, 즉 '캐시 번 레이트(Cash Burn Rate)'는 벌어들이는 돈 대비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를 비교하는 지표로 재정을 바로잡는데 유용하다. 이 지표를 정확히 알려면 소득은 물론 지출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지출 관리가 중요한 시니어에게 더욱 유용하다. 캐시 번 레이트를 계산하려면 월평균 소득과 지출을 합산하면 된다. 월별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평균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차량 등록비가 연 300달러라면 이를 12개월로 나눈 25달러를 월 지출에 포함해야 한다. 명절 선물이나 여행, 차량 수리비, 세금처럼 연간 혹은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지출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캐시 번 레이트 계산 공식은 '월평균 지출 ÷ 월 순소득 × 100%'이다. 예를 들어 7000달러 소득에 7500달러를 셋다면 '7500달러 지출 ÷ 7000달러 순소득 × 100 = 107.14%'이다. 7000달러 순소득에 5500달러를 지출했다면 78.57%다. 캐시 번 레이트가 100%라면 매달 순소득을 모두 쓰고 있다는 뜻이다.

재무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소득의 20%를 저축할 것을 권장한다. 이는 비상자금과 은퇴 계좌, 기타 저축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이상적인 캐시 번 레이트는 80% 이하가 된다. 캐시 번 레이트가 80%를 넘는다면, 소득과 지출 구조를 점검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최근 생활비 상승으로 고소득자도 캐시 번 레이트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해리스 폴조사에 따르면,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도 64%가 생존 모드에 있다

고답했다. 가장 큰 부담 요인은 식료품과 의료비 같은 필수 지출이었다.

시니어가 80%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적어도 100%가 넘어야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지출이 많다고 생각하면 최근 지출 명세서를 검토해 외식이나 차량 호출 서비스 등에서 과도한 지출 패턴을 찾아내고 최소 한 가지 지출을 골라 3개월간 줄여본다.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나 멤버십의 자동 결제를 해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캐시 번 레이트와 예산은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상호 보완적이어서 예산을 세우면 레이트를 정확히 계산하는데 도움이 된다. 예산 세우기를 부담스러워 할 필요는 없다. 예산은 소득과 지출을 나열하는 간단한 목록만으로도 충분하다. 최근 3개월 치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결제 앱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 20년을 지키는 1년의 힘

혈당이 약간 높지만 당뇨병은 아닌 사람을 당뇨병 전 단계라고 부른다. 보통 이 단계에서는 약을 쓰기보다 체중 감량, 운동, 식단 조절 같은 생활습관 개선을 권한다. 성공률은 낮다. 실제로 혈당을 정상 범위로 되돌리는 사람은 10%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만약 내가 생활습관을 잘 조정해서 혈당을 낮추는데 성공해 그 소수의 사람에 포함된다면 과연 어떤 건강상 유익이 있을까.

20년 뒤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입원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에서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진행된 당뇨병 예방 임상시험에 참가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다시 분석한 것이다. 원래 연구에서는 당뇨 전단계에서 제2형 당뇨병 발병에 미치는 세 가지 개입의 효과를 비교했다. 식단 조절과 운동을 포함한 생활습

관 조정, 당뇨약 메트포르민 복용, 위약(placebo)이다. 임상시험 결과, 집중적인 생활습관 프로그램은 위약군에 비해 3년 내 2형 당뇨병 발병률을 58% 감소시켰으며, 메트포르민은 31%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임상시험 참가자 2402명을 20년 뒤 추적했다. 원래 연구에서 약 11%의 참가자가 1년 후 정상 혈당 수치로 떨어졌다. 20년 후, 이들은 정상 수치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사망이나 심부전 입원 위험이 50% 더 낮았다. 당뇨병 발병 여부를 포함해 여러 특성을 보정한 결과다.

이런 결과를 두고 혈당만 낮추면 심장병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정상 혈당까지 도달한 사람들은 애초에 더 젊고, 혈당과 염증 수치도 더 좋고, 건강 행동에 적극적인 경향이 있었다.

#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 진료 과목

- 모든 통증치료 (좌골 신경통, 두통, 목디스크통증, 요통, 오십견, 관절통, 손목통증, 무릎통증 등)
- 대사증후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 비만
- 만성피로
- 소화장애, 순환장애
- 불면증, 어지럼증
- 불임, 생리통, 갱년기 증상
- 교통사고 후유증

## 침·부황·뜸·한약 (치료제, 보약)



### 한국 공진단 판매

한방에서 처방되는  
명방 중에서도  
으뜸인 최고의 보약!

### 원장 채여혜

- 북경중의약대학 중의과 졸업
- 중국국의대사 연정화 교수님께 사사
- 상해중의약대학 중의약박사
- 임상 25년 경험



채여혜 한의원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www.chaiorientalmedicine.com

### 진료 시간

• 평일: 9am~5pm • 토요일: 9am~1pm

• 야간진료: 예약환자에 한함



피아니스트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이 지난 6월 뉴욕필과 내한 협연에 이어 다음 달 한국 독주회를 연다.

[사진 마스트미디어]

## 피아니스트 지메르만 방한 공연

가장 뛰어난 피아니스트 중 하나이자, 까다롭기로 유명한 크리스티안 지메르만(69)이 신선한 공연을 선보인다. 화두는 '프렐류드(전주곡)'다.

그는 이번에 연주될 프로그램을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 각기 조성이 다른 크고 작은 프렐류드들을 그 날의 분위기에 맞춰 자유롭게 구성해 내보인다.

다음 달 한국 공연에 앞서 일본에서 연주된 곡들을 보면 프렐류드 하면 떠오르는 작곡가들인 바흐, 쇼팽, 드뷔시, 스크리아빈 외에도 로만 스타트코우스키, 그라지나 바세비츠 등 폴란드 음악가의 이름이 눈에 띈다.

지난 6월 한국에서 공연했던 지메르만에게 폴란드인으로서 자국의 작곡가들에 대해 가지는 예정은 어떤 것인지 물었다.

"바세비치, 루토스와프스키, 시마노

프스키 등을 제가 연주하는 이유는 그들이 폴란드인이라서가 아니라 작품들이 월등히 뛰어나서이고, 어느 누구와도 다른 나만의 고유한 의도나 해석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이들의 결작들은 많이 다루고 있지만 연주자들이 모두 비슷하고 서로를 모방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당시 어렵게 마련된 인터뷰에서 첫 질문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1975년 쇼팽 콩쿠르 우승 이전의 지메르만'에 대한 질문부터 했다.

"1973년 6월, 체코 흐라데츠라는 작은 지역에서 열린 콩쿠르에서 우승한 후 빈·코펜하겐 등에서 데뷔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런던 프롬스에서도 연주

내달 13·15·18일 색다른 서울 무대 "연주 모방말라, 나만의 해석 필요" 크고 작은 전주곡들 자유롭게 구성

할 기회가 있었지만 쇼팽 콩쿠르를 준비하기 위해 포기해야 했습니다. 재미 있는 것은 주변의 전문가들이 '낸 베토벤 연주자인데 왜 쇼팽 콩쿠르에 나가려 하느냐'며 말렸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음악가에게 붙여놓고 바꾸려 하지 않아요."

어떤 것에도 속박받지 않고 음악이라는 우주 속에서 작곡가와 자신을 자유롭게 해방시키려는 지메르만의 의지가 대화 내내 분명히 드러났다.

지난 6월 한국에서 열린 뉴욕 필과

의 협연은 30여 년 만에 이 교향악단과 연주한 베토벤의 협주곡 4번이어서 그에게 더욱 특별했다.

"흔히 피아노 협주곡 4번을 얘기할 때 베토벤이 새롭게 만났던 피아노들에 대해 거론하는데, 사실 어느 피아노 앞에서 작곡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우리는 그의 귀병에 대해 주목해야 하죠. 그를 평생 괴롭힌 왜곡돼 들리는 음정과 음향, 그 악조건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려 노력한 베토벤이 만들어 낸 판타지야말로 작품의 핵심입니다."

지메르만의 예술이 지난 요체는 결국 작품이 지난 환상성과 자유로움으로 치환된다. 지메르만은 자신의 피아노를 공수해 다니면서 연주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피아노 소리는 어떤 것일까.

"제가 추구하는 피아노의 음색은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적절한' 것입니다. 스타인웨이 피아노가 현재 전 세계 공연장과 피아니스트들에게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고 저도 이 피아노를 무척 사랑합니다만, 그들이 강력한 주류가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죠. 베토벤, 슈베르트, 멘델스존, 브람스 등이 스타인웨이를 염두에 두고 작곡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번 리사이틀의 주제인 프렐류드는 본래 작품의 본론에 앞서는 서론 같은 역할을 하는 작품들이다. 때로는 화려하게, 때로는 정갈하게 만들어진 작품의 '포장'을 정성스럽게 여는 지메르만의 모습을 목격할 수 있을 듯하다.

한국 공연은 다음 달 13·15·18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다.

김주영 피아니스트·서울사이버대 교수

## 뭘 연주할지, 공연 당일 알려준다

## 성시경·최백호에 응팔까지...연말 OST 대전

〈응답하라 1988〉 리메이크

성시경 '경도를 기다리며' 음원 공개  
최백호는 '모범택시3' 삽입곡 출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 강자들이 돌아왔다. 성시경은 지난 4일 '경도를 기다리며'(JTBC)의 OST '어떤 날 어떤 마음으로' 음원을 공개했다. 지난 2022년 드라마 '커튼콜'의 '오랫동안' 이후 3년 만에 내놓는 드라마 OST로, 주인공 경도(박서준 분)의 서사를 담고 있다. 성시경은 이 곡에서 가장 뿐만 아니라

작곡·프로듀싱 등에 직접 참여했다. 작사는 심현보가 맡았다. '별에서 온 그대' OST '너의 모든 순간'을 함께 작업했던 성시경-심현보 조합이다.

올 초 '쪽씩 속았수다'(넷플릭스)의 OST '희망의 나라로'로 이 목을 끌었던 최백호는 지난 6일 '모범택시3'(SBS)의 OST '기다려야지' 음원을 발매했다. 극 중 일츠하이머로 기억



(왼쪽부터) 가수 성시경·최백호, 응답하라 1988 출연진. [사진 뉴스1·중앙포토·tvN]

을 읽어가는 아버지 박동수(김기천 분)가 익울하게 세상을 떠난 아들을 기다

리는 마음을 표현한 곡이다.

'응답하라 1988'(tvN)은 방영 10주년을 맞아 리메이크 음원을 출시했다. 이번엔 박보검·혜리 등 출연 배우들이 직접 노래를 불렀다. 지난 19일엔 박보검의 '매일 그대'와 26일엔 드라마(이일화·라미란·김선영)과 쌍문동 아이들(류혜영·혜리·고경표·류준열·박보검·안재홍·이동휘·최성원)이 각각 노래를 부른 '걱정말아

요 그대' '혜화동'이 발표됐다. 이밖에 요네즈 캔시가 부른 '체인소맨' 극장판의 '아이리스 아웃',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콜든', '주토피아2'의 '주' 등 외화 OST도 음원 차트에서 꾸준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

김현식 평론가는 "케데헌 이후 OST가 팬덤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일 이 증명됐고, 제작진들도 OST와 싱크로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상당히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민자 기자

##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 전 안과

26년 over 120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3780 레이저 치료경력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http://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 교통사고

목, 허리 디스크  
좌골 신경통  
어깨, 무릎 통증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의)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럭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아픈 역사를 간직한 하츠는 올해 명문 구단 셀틱과 레인저스를 밀어내고 리그 선두를 질주하는 신화를 쓰고 있다.

[로이터]

돈치치·제임스 58점 합작  
레이커스 3연패 끊고 20승

LA 레이커스가 루카 돈치치(사진), 브루노 제임스의 '쌍포'를 앞세워 3연패에서 탈출했다. 레이커스는 28일 LA의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린 2025-2026 NBA(미국프로농구) 정규리그 홈 경기에서 새크라멘토 킹스를 125-101로 제압했다.

레이커스는 25일 휴스턴 로키츠와의 경기까지 이어진 3연패에서 벗어나 시즌 20승을 돌파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20승 10패)를 달렸다.

새크라멘토는 전날 베테랑 포인트가드 레슬 웨스트브룩의 활약 속에 댈러스 매버릭스를 꺾었던 기세를 잊지 못한 채 서부 콘퍼런스 14위(8승 24패)에 머물렀다.

돈치치와 제임스가 레이커스를 승리로 이끌었다. 돈치치는 3점슛 5개를 포함해 34점 7어시스트 5리바운드 3스틸을 몰아쳤고, 제임스는 24점 5어시스트를 올렸다. 여기에 닉 스미스 주니어가 21점을 보탰고, 디안드레 에이턴은 더블더블(11점 10리바운드)을 작성했다.

새크라멘토에서는 더마 더로전이 팀 내 최다 22점을 넣었고, 웨스트브룩은 13점 5리바운드를 기록했다.

LA 클리퍼스는 디트로이트 피스턴스와의 홈 경기에서 112-99로 이겨 4연승을 질주했다. 10승 21패의 클리퍼스는 서부 콘퍼런스 12위를 유지했다.

커와이 레너드가 데뷔 후 개인 최다인 55점을 퍼부으며 클리퍼스의 연승 행진에 앞장섰다. 이전까지 레너드의 NBA 개인 최다 득점은 토큰 토 랩터스에서 뛰던 2019년 1월 유타 재즈를 상대로 남긴 45점이었다. 이 날 이보다 10점이나 더 넣어 기록을 경신했다.

레너드는 리바운드 11개, 스틸도 5개나 걸들여 펄펄 날았고, 제임스 하든이 28점 7어시스트로 뒷받침했다. 이들을 막지 못한 채 2연패를 당한 동부 콘퍼런스 선두 디트로이트는 24승 8패를 기록했다.

## 총 들어야만 했던 선배들 '트로피' 대신 들어드립니다

스코틀랜드 축구 '하츠'의 부활

1차대전 때 선수 16명 입대  
솜전투서 대다수 전사·부상  
전반 1위, 66년 만 우승 도전

“전쟁 중에 공놀이나하고 있느냐.”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연고의 프로축구 팀 하트 오브 미들로디언(이하 하츠)은 개막 후 8연승으로 압도적인 선두를 달렸다. 이를 지켜보는 영국 사회의 시선은 끊지 않았다. 에든버러의 정치인이나 사업가 조지 맥크레이 경은 “내가 직접 부대를 만들 테니 함께 입대하자”고 호소했다. 하츠 선수 16명이 가장 먼저 자원 입대했고, 이에 감명받은 하츠 팬 500여 명이 뒤를 따랐다. 놀랍게도 라이벌 팀인 하이버니언의 선수·팬들까지 합류했다.

그런 하츠가 ‘제기의 동화’를 써내려가고 있다. 하츠는 시즌 전반기(19경기) 일정을 마친 29일 현재 스코티시 프리미어십 12승 5무 2패, 승점 41점으로 리그 선두를 질주 중이다. 스코틀랜드 최대 도시 글래스고를 기반으로 하는 두 명문 구단 셀틱(승점 38점)과 레인저스(32점)를 2위와 3위로 밀어낸 채로 올 시즌의 반환점을 돌았다.

1984~85시즌 당시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에버던이 리그 챔피언에 오른 이후 지난 시즌까지 프리

축구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뮌헨 공항 참사가 잘 알려져 있다. 1958년 2월 6일, 유럽컵 8강전을 치르고 돌아온 맨유 전용기가 뮌헨 공항에서 이륙 중 추락해 20대 초반 황금세대를 포함한 선수 8명 등 23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맥크레이 부대 사건은 이보다 훨씬 더 슬프다. 맨유는 10년 뒤 유럽컵 우승으로 비극을 딛고 일어섰지만, 하츠는 선수층 대부분은 물론 열혈 팬들까지 잃은 뒤 한동안 운영 불능 상태에 빠졌다.

재창단 수준의 힘겨운 재건 과정을 거쳐 1958년과 1960년 두 차례 리그 우승을 달성했을 때 에든버러는 말 그대로 눈물바다였다. 아픈 역사를 간직한 하츠 팬들에게 리그 우승은 맥크레이 부대가 전하지 못한 승전보의 대용품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후 다시 긴 암흑기로 들어섰다.

그런 하츠가 ‘제기의 동화’를 써내려가고 있다. 하츠는 시즌 전반기(19경기) 일정을 마친 29일 현재 스코티시 프리미어십 12승 5무 2패, 승점 41점으로 리그 선두를 질주 중이다. 스코틀랜드 최대 도시 글래스고를 기반으로 하는 두 명문 구단 셀틱(승점 38점)과 레인저스(32점)를 2위와 3위로 밀어낸 채로 올 시즌의 반환점을 돌았다.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오랜 기간 도전자 역할에 머물던 하츠가 올 시즌 주인공으로 거듭날 채비를 마쳤다”면서 “지난 40년간 이어진 셀틱과 레인저스의 양강 구도를 하츠가 무너뜨릴 태세

지 19경기가 남았다”고 보도했다. 1951년 11월 에든버러 이브닝 뉴스에 실린 현충일 추모 예배 장면. [사진 하츠 홈페이지]

시계탑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민들. [사진 하츠 홈페이지]

미어십은 무려 40년간 셀틱과 레인저스의 양강 구도가 이어졌다. 같은 기간 셀틱이 22차례, 레인저스가 18차례 우승했다.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오랜 기간 도전자 역할에 머물던 하츠가 올 시즌 주인공으로 거듭날 채비를 마쳤다”면서 “지난 40년간 이어진 셀틱과 레인저스의 양강 구도를 하츠가 무너뜨릴 태세

지 19경기가 남았다”고 보도했다.

연고지 에든버러 시민들에게 하츠의 우승은 스포츠 이슈를 넘어 지역사회 기념비적 사건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특히나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맥크레이 부대의 안타까운 역사와 맞물려 주목받는다. 에든버러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하이마켓 광장에는 하츠 선수들의 희생을 기리는 시계탑 기념비가 세워졌다. 구단은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행사를 100여 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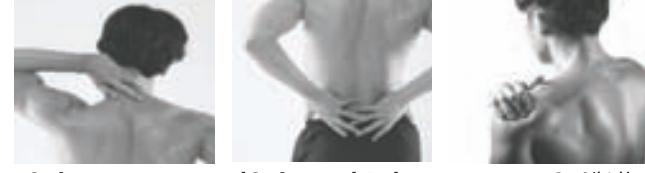
하츠의 징주는 스코틀랜드 최대 도시인 글래스고 연고의 부자 명문 구단(셀틱, 레인저스)에 놀려 지내던 고전적 도시 에든버러가 다시 세상에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의미도 있다.

전반기를 선두로 마친 하츠가 마지막에 웃으려면 후반기를 잘 버텨야 한다. 올 시즌 하츠 돌풍의 주역으로 첫 손에 꼽히는 데릭 매킨스 감독의 리더십과 전술적 역량이 남은 일정에도 빛을 발해야 한다. 경쟁 팀들에 비해 선수 층이 얇은 만큼 부상 등 돌발 변수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스카이스포츠는 “오랜 기간 우승과 거리가 멀었던 하츠가 어느 정도의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 주느냐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맥크레이 부대가 전하지 못한 승전보를, 110년 후 그들의 후배들이 에든버러로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

송지훈 기자

##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대학원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UMC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Certified in Gonstead Extreme Adjusting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e Practitioner (C.C.E.P.)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산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려,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고에서 3분, 임버스트립 뒷데 위치한 하이마트(H-mart)에서 각각 5분거리

센터빌/챈들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타일 뒷데/한이마트(H-mart)과 챈들리 뒷데에서 각각 5분거리

##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고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첨무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 가족 초청 이민
- 망명 신청

VA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5457 Twin Knolls Rd., Ste. 300, Columbia, MD 21045

mkim@prosperlawpllc.com



DEC.31ST - JAN. 8TH, 2026

# 따끈한 한끼 완성! 라면 & 쌀 초특가 세일

Warm up your day with the perfect comfort meal!



SEKKA  
세카쌀 SEKKARICE  
\$9.99 ~~\$19.99~~  
15 LB

신라면/신라면 비건/너구리  
튀김우동/순라면/하바네로 새우

컵라면 6입  
\$5.99 ~~\$11.99~~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Richmond, VA  
7801 W Broad St.  
Richmond, VA 23294

Sterling, VA  
30 Polygon Hill Dr., Sterling,  
VA 20166

Centreville, VA  
5900 Centreville Cross Ln.  
Centreville, VA 20121

Chantilly, VA  
13955 Metrotown Dr.  
Chantilly, VA 20151

Annandale, VA  
5204 Pen Royal Rd.  
Springfield, VA 22151

Ashburn, VA  
43930 Farmwell Hunt Plaza  
Ashburn, VA 20147

Ellicott City, MD  
885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Catonsville, MD  
6600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Rockville, MD  
1902 Veirs Mill Rd.  
Rockville, MD 20851

Gaithersburg, MD  
221 Muddy Branch Rd.  
Gaithersburg, MD 20878



직장사고



운동사고



교통사고

#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최신형 X-Ray 완비/교정 및 물리치료/의료보험

##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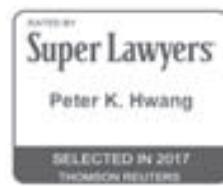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



Sung Hwang&Kim | LLP  
합동법률사무소



[www.shkfirm.com](http://www.shkfirm.com)

Toll Free: 888.772.3001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폴 킴 변호사  
PAUL W. KIM, JD, MPH.



대니엘 페이 변호사  
DANIEL W. PEI, ESQ.

Columbia, MD  
Annandale, VA

T. 410.772.2324  
T. 703.436.1444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12월

구

인

광

고

## 함께 성장할 회사 임원(Director)을 찾습니다.

미국 FDA에서 정식으로 판매 허가를 받은 제품과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미국 전역에 사업을 펼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회사 임원(Director)으로 참여하여 회사의 성장과 베네핏을 함께 나눌 비전과 열정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거나, 문자로 연락 주시면 편리한 시간에 미팅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을 환영합니다

- 미래를 준비하며 안정적이면서도 성장 잠재력이 큰 일을 찾는 분
- 미국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전환점을 만들고자 하는 분
- 역량에 따라 무한한 수의 창출이 가능한 기회를 원하시는 분
-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향, 성실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한 분
-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찾고 계신 분
- 나이, 성별, 이중언어 여부 무관
-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 가능자는 추가 기회가 주어집니다.
- 본인의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 애난데일, VA (P & A USA Inc)

mydexa21@gmail.com / 571-668-0805 (문자요망)

## 파리 바게뜨 베데스타 Paris Baguette Bethesda

경험있는 제빵사,  
케이크 데코분들  
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대우 보장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703-225-5500  
hr@worldbankcard.net

성공 비지니스...  
시작이 중요합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향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숲속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옵니다.”

## 구인

### Home Improvement

에서 함께 일하실  
원도우·도어  
경력자 구함  
합법 신분자



703.944.8433

##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会社

571-239-6054

## 구인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 마케팅 세일즈 직원 모집

- 영어/한국어 가능
- 출장 업무 필수
- 운전 경력 풍부하신 분
-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 분
-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iacct@gmail.com

301.468.8949  
www.onnaturalusa.com

## 금매

### Korean BBQ & Hot Pot 케이더스버그, MD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sf 규모  
저렴한 렌트  
매매가격 Only  
\$280,000

최근에 새로 지어서  
리모델링 비용절감

240-988-6868

## 매매

### 확실한 순익보장 렬리

DC SW 매매가 32만불 (cash only)

- 연간 수익 15만불이상 (주매상 만불)
- 수월한 운영 (키오스크 시스템)
- 저렴한 렌트비 (\$2700/월)
- 오랜 경험의 믿을만한 직원 2명
- 주 5일 (6am ~ 3pm)
- 공실위험 없는 건물

703.300.7207 (텍스트)

관심있는 분만 연락주세요

## 메디케어 전문기·정선판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브리지원 보험  
(BridgeOne Insurance)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 L & B Universal, Inc. 히팅·냉동

### 리셉션리스트 구함

- ◎ Chantilly, VA 지역
- ◎ 이중언어 필수
- ◎ 근무시간 조정 가능 (풀타임)
-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 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활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12월 31일 수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 메릴랜드지역

### 구인/사무/직원모집

메릴랜드 봉고메리몰 시계 및 쥬얼리샵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학생 환영  
301-365-7794

워싱턴 베다니 장로교회(게이더스버그소재)에서 주일 1부 예배를 섬겨주실 반주자 한 분을 모십니다.

-예배시간: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연습시간 오전 7시 20분 및 예배)\*일년에 두 차례 있는 특별 새벽기도회 때 이를 간 반주하여 애함

-지원자격: 세례인으로 교회 반주에 은사와 사명감이 있는 분(성가 및 복음성가)

-제출서류: 이력서 및 신앙고백이 담긴 간단한 자기소개서

-제출처: BPC.Music.Dept@gmail.com

-제출기한: 청빙시까지

-서비: 교회 내규에 따름(추후통보, 혹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문의 바랍니다)

-문의사항: 이민형 장로: 216-870-9234

이메일: leeminhung7896@gmail.com

김요한 목사: 301-215-0065

이메일: shalom1984@gmail.com

-교회주소: 1201 Quince Orchard Blvd. Gaithersburg, MD 20878  
TEL: 301-670-1200  
<http://bethanyusa.org/>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직원 모집

마케팅 세일즈 분야, 영어/한국어 가능

출장업무 필수, 운전 경력 풍부하신 분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분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acct@gmail.com

문의: 301-468-8949

콜롬비아 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RN 간호사, 운전 기사(옴니 거주 환영)

주방보조

▶ 443-691-7968

BridgeOne Insurance MD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경험자 가능

▶ 703-598-3316, 703-862-5395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전트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험자 구합니다.

albert@wkkinc.com

▶ 301-526-7000 (Cell) Mr. Kim

메릴랜드 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라셉션 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판 가능/ 월요일~금요일 정규직

& 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

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으로 보내거나

▶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락빌 롯데 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 모집

업무: 주방 보조(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 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 443-828-7777

### 세탁/이미용/기타

강아지 분양합니다. 순종 풍산개, 1월 중순  
703-868-6114

2018년 포드 트렌짓 250, 인슬레이션된  
콜러 밴, 차고지 MD  
201-681-4470

OK 택시 엘리컷시티, 락빌, 애난데일  
장거리 염가로 어디든 가능,  
병원/공항/카지노, 24시간 가능  
571-332-3987

글렌버니 리커스토어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유경험자, 파트타임  
443-262-1813

DC - CUA 메트로 근처  
American Breakfast에서 서버 구합니다.  
풀&파타임(6am - 2pm) \$18/hr + tips  
703-785-8763

어큐라 MDX 2012년 134,000 마일리지  
타임 벨트 & 배터리 교체, 그레이 색상,  
굿 컨디션 \$6,500  
703-909-9377 / 703-560-6424

최고급 등산 장비 팝니다.  
아래 번호로 메시지 남기시면 바로 전화드  
리겠습니다.  
703-869-5919

PG 카운터 리퀴스토어 라리리스탁 하실 분  
2~9pm 일하실 분 구함(금, 토 포함)  
301-336-2500

손사이딩 울드하우스 메캐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홈 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원도  
우, 도어 경력자 구합니다.

합법적 신분자에 한함

703-944-8433

토요 핸디맨 (전기, 목수, 타일, 배관, 창문,  
마루, 페인트)  
443-994-3415 (전화 메세지 주세요)

엘리콧시티 혜반 한국 식당에서 홀 서버 하실  
분 구합니다.

▶ 443-420-3096

영어 가능한 헬리 매니저 구합니다.  
DCSW(월~금, 6am - 3pm)  
703-300-7207 (문자)

파리바게뜨 베데스다에서 경험 있는 제빵사  
나 케익 데코분들 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비숙련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 기운영, 널성호, 나이, 학력, 경력, 성

별 무관, 직계 가족도 영주권 혜택

웹사이트: useb3.com

문의 이메일: admin@eb3recruit.com

전화: 571-546-8683

### 싱글/타운 렌트

엘리컷시티 롯데 5분거리, 밝고 깨끗한 싱글  
하우스 워크 아웃지하, 방2, 욕실, 취사 가능  
443-630-2322

조용/교통 편리한 위치 도서관, 한아름, 메트  
로 근처 싱글 험 방 하나 렌트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환영

301-655-3248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 험 2층 방 렌트

유포, 직장인, 잠만 주무실분 \$700

240-393-3615 (문자 요망)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 험 방 렌트 합니다.

욕실, 주방, 가구, 인터넷 완비

301-533-1438

메릴랜드 저먼타운 험하우스 전체 렌트

방3, 화3.5, 10월 1일부터 입주 가능

301-219-6030 (문자 요망)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 반지하 전체 렌트

방2, 부엌, 욕실, 세탁실, 출입문 별도, 롯데에  
서 15분 거리

443-797-7293

실버스프링 루트 200, 95, 495 근처,

싱글 험 방 하나 렌트 합니다.

301-962-0728 / 240-997-3168

495와 95번이 만나는 첫 번째 입구,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싱글 험 렌트

301-385-3535 (문자 요망)

메릴랜드 그린벨트 지역, 조용하고 교통 편리  
타운하우스 방 하나 렌트, 즉시 입주 가능,

방세 저렴

301-379-9660

### 사업체 매매

1. 나이트 클럽, 주 매상 4만, 패어팩스

카운터, 최고로 케이션 5,000 sf

2. 성업 중인 "명품 계정" 식당 2nd & 3rd

Location 투자자 모집, 좋은 lease space

확보

3. DC NW 주 5일 Cafe Deli 7~4pm, 7만

▶ 703-303-8003

1. 델리/카페 1,400sf & 패어팩스

렌트 \$2,500, 5만 5천불

2. 치킨 프랜차이즈 95만불, 주 매상 3만

3. 일식점, GMU 근처 20만불

주 매상 1만 5천, 낙낙한 파킹

▶ 703-303-8003

1. DC NW 잘 꾸며진 한식/분식 식당 19만

2. DC NW 드라이 크리닝 픽업, 주 매상 9천,

주 5일, 대로변 위치

3. 치킨 프랜차이즈 3곳, VA, MD

4. 쿵후티, Bakery 등 리스팅

▶ DJ Lee 703-303-8003

WBS Processing 과 Tech support 부서에

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

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

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 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 대우 보장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 골프에서  
함께 할 Staff 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 개인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31일 수요일 중앙일보

이력서: corep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리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er-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챈들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풀/파티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타이슨)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i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리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 식당/식품

애난데일 한식당에서 서버 구합니다.  
(풀/파티임)  
703-712-7417

애난데일 명품 게장에서 함께 일하실 웨이চ리스 & 웨이터 구합니다.  
703-398-2226

애난데일에 위치한 제과점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캐쉬어 풀타임(유/무 경험자)  
제빵사 풀타임(유경험자)  
703-625-8525

DC-CUA 메트로 근처  
American Breakfast에서 서버 구합니다.  
풀&파티임(6am-2pm) \$18/hr + tips  
703-785-8763

우드브리지 콘티코 부대안에 있는 일식당에  
서 함께 일하실 웨이츄리스 구합니다.  
신분 확실 하시고 영어 가능하신 분  
703-640-7488/443-978-0900

영어 가능한 렐리 매니저 구합니다.  
DC SW(월~금, 6am-3pm)  
703-300-7207 (문자)

Hashi Sushi 일식당에서 서버, 어시스턴트  
매니저 구합니다.  
영어 필수, 경험자 평일 우대  
703-628-9168 (문자)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텔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파티임  
▶571-991-4172

## 이미용

매나사스 파크 바버샵에서 함께 일하실  
비버 구함. 일주일에 3, 4일 일하실 분  
703-473-9771

## 세탁/얼터레이션

알링顿 DC 지역 세탁소에서 직원 구함  
풀/파티임 카운터 보실분  
풀/파티임 얼터레이션 하실분  
571-455-3609

알렉산드리아 테일러 샵에서 바느질 하실 분  
모십니다.  
3일 파티임 가능하신 분  
703-328-3064

## 자동차/정비/바디샵

풀스쳐치 지역 자동차 정비소에서 매케닉  
유경험자 구합니다. 첫째/셋째 토요일 휴무  
571-332-6110

엘리곳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매케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 기타구인

맥글린 한국 학교에서 교사 모집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분  
571-235-8997, 703-505-5760

가사 도우실 분을 찾습니다.  
음식 깔끔하게 하시는 분, 세탁, 집안 정리  
12:30-7:30 주 5일 주급 \$750  
경험자 우대, 가족처럼 오래 일하실 분  
맥글린 VA  
703-887-1037

손사이딩 올드하우스 매케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홀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원도  
우, 도어 경력자 구합니다.  
합법적 신분자에 한함  
703-944-8433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센터빌)  
▶571-591-4455

## 싱글/타운홈 렌트

애난데일 타운홈 렌트 \$3,400  
방3, 화3.5, 최신식 최고급으로 업그레이드된 집, 화려하게 잘 꾸며 놓은 부엌  
과 화장실, 집 전체 나무 마루, 넓은 데, 워크 아웃 베이스먼트, 모델 하우스 보다 더 예쁜 집, 교통 편리, 즉시 입주  
▶703-477-3114

애난데일 타운홈 렌트 \$3,400  
1. 매나사스 타운 \$3,400

(2025년 12월 새집) 2,700 sq, 방4, 화3.5, 로프트(오피스), 2/4층 데, 카고 2, 모던 오픈 스타일 키친, 234/66/GMU 근처, 이노베이션 팩 쇼핑몰 인근, 교통 편리, 센터빌 10마일 2. 브리스토 타운 \$3,200  
방4, 화3.5, 카고 2, 전부 마루, 모던 오픈 스타일 키친, Patriot High 최고 학군, 234/Sudly manor, near Costco  
▶571-239-6054

1. 게이더스버그 타운 \$3,300  
방4, 화장실 2  
2. 제섭 타운 \$2,800 방3, 화장실 3  
3. 엘리엇시티 타운 \$2,750  
방3, 화장실 2.2  
4. 파사나타운 \$2,600  
방3, 화장실 2/2  
5. 콜롬비아 싱글홈(반지하) \$1,500  
방2, 화장실 2  
▶301-318-4242 / 443-668-0453

스프링필드 타운홈 렌트 \$3,000  
방2, 화2.2, 2 Assigned 주자, 밝고 환한 집, 업그레이드 많이 함, 교통 편리  
▶703-919-0472

1. 센터빌 타운 홈 렌트 \$3,300  
방4, 화3, 카고 2, 즉시 입주 가능  
2. 센터빌 타운 홈 렌트 \$3,550  
방4, 화3, 카고 2, 즉시 입주 가능  
▶703-863-0321

매나사스 기차역 가까운 타운 \$2,900  
방3, 화2.5, 카고 2, 앤드 유닛  
▶703-489-6926

페어팩스 비엔나역 타운홈 전체 렌트  
방4 화3.5 \$3,200 or 일부 방3 화2.5  
\$2,200  
470-485-1875

센터빌 H마트에서 10분 거리 타운하우스  
\$2,350 (유틸리티 별도)  
방3, 화장실 1.5, 뉴 리모델링, 개/고양이 가능, 12월 11일 입주, 단기 렌트도 가능  
571-345-6667

스프링필드 싱글홈 (애난데일 부근)  
방3, 화2, 즉시 입주 가능 \$3,600  
▶703-231-5572

## 콘도 렌트

애난데일 H마트 옆 콘도 렌트  
방2, 화1, 엘리베이터, 유포 \$2,000  
(전기 별도) 즉시 입주 가능  
703-350-1986

센터빌 롯데 근처 콘도 전체 렌트합니다.  
방2, 화2.5, 교통 편리, 즉시 입주 가능  
\$2,180  
301-466-1646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방1, 화1, 주차 2, 완전 리모델링, 모든 가전  
제품 새것, 즉시 입주 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현돈 새 콘도 렌트 \$3,000  
방2, 화2.5, 카고 1, 이노베이션 메트로 역도  
보,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 자이언트, 1,600sf, RT267/28, 최고 교통 편리  
▶571-239-6054

애난데일 타운하우스 밝고 조용한 웨이팅 렌트 합니다.  
나무 마루, 유포, 교통 편리, 여성 분 환영

## 방 렌트

센터빌 롯데 근처 타운하우스  
2층 욕실 딸린 큰방 렌트합니다.  
571-970-8048

로튼 싱글하우스 베이스먼트 워크 아웃 전체  
렌트, 방2/거실/욕실/주방/세탁실  
초중고 걸어서 통학 가능  
703-774-4939

애난데일 시루암 방이나 렌트  
가구 완비, 취사 가능  
703-973-8123

애난데일에 예촌암 타운하우스 마스터 배드룸  
또는 작은 방 렌트, 가구 완비, 취사 가능  
703-622-2033

센터빌 CVS 근처 깨끗한 싱글홈 2층 방이나  
렌트, 가구/취사/세탁/인터넷 완비, 여자분  
환영 즉시 입주 가능  
571-758-7117

페어팩스 방 렌트 또는 하숙 하실 분 구합니다  
GMU, 노바에서 5분 거리,  
703-388-8518

##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오피스 전체 렌트  
나무 마루, Newer Windows, 계단 없는 1층  
위치, 새로 단장한 화장실, 넓은 주차장, 교통  
편리 \$2,000 즉시 입주  
▶703-477-3114

애난데일 (자이언트 근처) 오피스 렌트  
룸 4개, 화장실, 주차 다수  
301-741-6567

센터빌 던킨 뒤 환한 오피스 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 3개, 화 1, 오픈 스페이스, 파킹 다수,  
RT29/66/28/286  
▶571-239-6054

## 부동산 매매

1. Nottingham 타운 \$349,900  
방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 다 새로 고친 집,  
HOA 없음

2. 포토맥 싱글홈 \$1,075,000  
방4, 화장실 2+1, 카고 2, 포토맥에 위치한  
잘 꾸며진 집, 좋은 가격  
▶410-417-7080

스태포드 싱글홈 \$550,000  
방4, 화3, 넓고 편안, 윤수리  
▶703-863-0321

알렉산드리아 3층 타운 \$749,900  
방3, 화3.5, 카고 2, 교통 편리  
▶703-489-6926

우드브리지 싱글홈 \$970,000  
Woodbridge의 Powells Landing 단지 내  
court에 있는 싱글홈  
▶703-622-0312

센터빌 타운하우스 \$499,900  
방2, 화3.5, 1,740sqft, 지하 full bath, 워크  
아웃, 브레드/28, 66, 29 교통 편리, 2017 리  
모델링,  
▶517-239-6054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b>1 BOX</b>	<b>\$100</b>
<b>2 BOX</b>	<b>\$200</b>
<b>3 BOX</b>	<b>\$300</b>
<b>4 BOX</b>	<b>\$400</b>
<b>5 BOX</b>	<b>\$500</b>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지?  
“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 OK 택시

장거리 염가로

어디든 가능

병원, 공항, 장거리

카지노 모두

24시간 가능

TAXI

엘리엇 시티, 락빌, 애난데일

노기사

571-332-3987

성공 비지니스...  
시작이 중요합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일보 2025년 12월 31일 수요일

구인/구직광고와 개인렌트 유료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1. 센터빌 타운홈 \$600,000  
방3, 화2.5, 치고 1  
2. 센터빌 타운 하우스 \$700,000  
방3, 화2.5, 치고 2  
3. 비엔나 콘도 \$325,000 방1, 화1  
▶ 703-919-0472

챈틸리 금매 타운하우스 \$300,000  
방2, 화1, 아담한 뒷마당  
▶ 703-231-5572

애쉬번 타운 하우스 \$660,000  
방4, 화3.5, 치고 2, 최고 학군, rt267/7, 델  
레스 공항, 전부 리모델링, 새집 같음  
▶ 571-239-6054

스프링필드 타운 하우스 \$710,000  
방3, 화3.5, 치고 1, 집 전체 업그레이드,  
엔드 유닛, 새 페인트, 새 덱, 워크아웃 베이스  
먼트, 최근 에어컨, 히팅, 지붕, Appliances  
모두 교체  
▶ 703-813-8949

Dumfries 타운홈 \$469,900  
2006년 새단지, 방3, 화3.5, 치고 2  
업데이트 (에어컨, 히팅, 냉장고, 세탁기, 건조  
기) As is condition으로 싸게 나온집  
▶ 703-813-8949

엘리컷 시티 싱글홈 \$749,000  
방4, 화3.5, 치고 2  
▶ 301-318-4242/443-668-0453

1. Elkridge 타운홈 \$625,000  
방3, 화장실 2+2, 치고 2, 아주 넓고 이쁜집,  
마루 바닥, 1층에 안방  
2. 실버스프링 타운홈 \$750,000  
방3, 화장실 3+1, 치고 2  
13년된 벽돌로 지어진 고급 타운홈,  
3. 엘리컷시티 싱글홈 \$820,000  
방5, 화장실 3+1, 치고 2, 밝고 이쁘게 잘 꾸며  
진 집, 넓은 뒷뜰  
▶ 410-417-7080

1. 패어팩스 싱글홈 \$999,000  
방5, 화장실 4+1, 치고 2, 넓은 구조와 잘 가  
꾸어진 집, 벽돌, 마루 바닥  
2. 패어팩스 싱글홈 \$1,050,000  
방4, 화장실 3+1, 치고 2, 우수한 학군, 편리한  
교통, 최근에 업데이트  
3. 패어팩스 타운홈 \$850,000  
방4, 화장실 3+1, 치고 2, 엔드 유닛, 아주 밝고  
이쁘게 꾸며진 집  
4. 비엔나 싱글홈 \$1,875,000  
방6, 화장실 6, 치고 2, 새집같이 아주 멋지고  
고급스러운 집, 편리한 교통  
▶ 703-899-8999

1. 던로링 메트로 앞 콘도 \$460,000  
방1, 화1, 1/2층 오픈 LOFT 835 sqft,  
전부 리모델링, 나무 마루  
2. 맥클린 콘도 \$389,000  
방2, 화2, 1,050 sqft Mclean High, RT495,  
66/26/7 Metro, Tysons Galleria 앞  
▶ 571-239-6054

도미니언 벨리 컨트리 클럽, 헤이 마켓 싱글  
\$1,699,000  
1에이커 숲속, 6,700 sqft, 방5, 화5.5,  
치고 3, 선룸, 고급 조명, 트레이 천장, 스파 욕  
실, 드레스룸, 인로우스위트, 미디어룸, 게임  
룸, 바 포함, 최신 HVAC, 정수 시스템, 야외 리  
조트 스타일 \$460K 업그레이드  
▶ 571-239-6054

## 사업체 매매

1. 나이트 클럽, 주매상 4만, 패어팩스 카운터,  
최고로 케이션 5,000 sf  
2. 성업 중인 "명품 계정" 식당 2nd & 3rd  
Location 투자자 모집, 좋은 lease space  
확보  
3. DC NW 주 5일 Cafe Deli 7~4pm, 7만  
▶ 703-303-8003

애년데일 버지니아 자동차 메캐닉샵  
치고 2개, 서비스 베이 높습니다. 주차 공간 충  
분, 즉시 운영 가능, 퍼밋 완료, 1백 10만불  
▶ 703-928-5990

1. 멜리/카페 1,400sf & 패어팩스  
렌트 \$2,500, 5만5천불  
2. 치킨 프랜차이즈 95만불, 주매상 3만  
3. 일식점, GMU 근처 20만불, 주매상 1만5천  
▶ 703-303-8003

1. DC NW 잘 꾸며진 한식/분식 식당 19만  
2. DC NW 드라이크리닝 퍽업, 주매상 9천,  
주 5일, 대로변 위치  
▶ 443-980-1167

3. 치킨 프랜차이즈 3곳, VA, MD  
4. 쿵후티, Bakery 등 리스팅  
▶ DJ Lee 703-303-8003

베데스타 샌드위치 샵 \$170,000  
너무 좋은 자리, 1200 SF, 주매상 \$10,000  
렌트 \$5,791  
▶ 703-928-5990

확실한 순익 보장 멀리 매매  
DCS W 매매가 32만불 (cash only)  
연간 수익 15만불 이상 (주매상 만불)  
수월한 운영 (키오스크 시스템), 저렴한 렌트  
비, 오랜 경험의 믿을 만한 직원, 공실 위험 없  
는 건물, 주 5일 (6am ~ 3pm)  
꼭 관심 있는 분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703-300-7207 (문자)

델리샵 (DC) \$150K  
DC 내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안정된 수입, 투자 용  
▶ 703-625-9909

## 중고 매매 / 기타

피아노 레슨 합니다.  
초중고 및 입시반, 성인 취미반  
Zoom & In-person  
703-772-2987

강아지 분양합니다. 순종 풍산개, 1월 중순  
703-868-6114

2018년 포드 트렌짓 250, 인슬레이션 된  
쿨러 밴, 치고지 MD  
201-681-4470

OK 택시 엘리컷시티, 락빌, 애년데일  
장거리 염가로 어디든 가능,  
병원/공항/카지노, 24시간 가능  
571-332-3987

어큐라 MDX 2012년 134,000 마일리지  
타임 벨트 & 배터리 교체, 그레이 색상,  
굿 커디션 \$6,500  
703-909-9377 / 703-560-6424

최고급 등산 장비 팝니다.  
아래 번호로 메세지 남기시면 바로 전화 드리  
겠습니다.  
703-869-5919

비숙련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가 운영, 넓은 험, 나이, 학력, 경력, 성별  
무관, 직계 가족도 영주권 혜택

웹사이트: useb3.com

문의 이메일: admin@eb3recruit.com

전화: 571-546-8683

상태 좋은 남/여 중고 골프 세트 싼 가격에 팝  
니다.  
703-966-9072 (Mr. Kim)

색소폰, 클라리넷, 호른, 트럼펫, 트럼본, 플루  
트 - 악기별 개인 맞춤 렌스  
757-338-8496

## 건축/페인트/마루

손 사이딩 올드하우스 메캐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  
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애디션, 덱,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JGL 건설 회사  
하청없이 25년 이상 숙련된 본사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 571-213-8678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돈 걱정 그만하세요  
▶ 703-835-0945

형제 건축 & 지붕  
가정용, 상업용, 부엌, 화장실, 지하실  
밀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 703-928-6255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 일체  
▶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드립니다.

▶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스페인팅 (In, Out), 텍 메인더너스와 클리  
닝, 샌딩, 파워 워시, 핸디맨 서비스

▶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 건축  
빌딩 시설 관리 전문 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  
체 자체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덱, 그외 모든 공사, 주  
정부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 240-687-5155

## 보험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내년도 메디케  
어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 703-961-8811

생명보험, 은퇴연금, 비즈니스 세금 절감 플랜  
까지 전문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안전한 미  
래를 준비하세요.

▶ 703-939-2737

지금 연금, 정말 만족하십니까?  
한번의 점검이, 내일의 차이를 만듭니다.

▶ 703-577-8181

정문기 메디케어 보험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 신청 도와  
드립니다.

▶ 703-598-3316

온미화재 사업체, 자동차, 집, 의료, 생명 보험  
▶ 1-866-915-6664

정선화 브릿지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보험  
▶ 703-862-5395

조은혜 종합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 자동차/ 주  
택/ 사업체 보험  
▶ 703-591-0009 / 703-537-9899

## 융자

로리문 맞춤형 연금 & 재정 관리

▶ 703-895-7648

제인 최융자 25년 경력 매입/ 재융자/ 특수

▶ 703-244-3453

마이클 장융자 주택/ 상업융자/ 재정 상담

▶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 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 703-204-0022 / 703-727-9730

##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 410-370-8057

라돈 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 소지자

▶ 202-774-6554

## 냉동 / 히팅

KWK 냉난방 BALTIMORE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 프리저 수리 전  
문, 믿고 맡겨주세요.

443-540-6922 / 410-292-0001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 산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팅, Carrier, Trane, 데일러,  
드라이어, 브레이브 킴, 가정용/ 상업용

▶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워크인/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 410-370-8057

아리네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캐리어  
웃 장비수리, Ice Maker, 풀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 무휴 무료점검

▶ 443-850-3703 / 410-979-4242

### 보험

####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1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 · C 플랜 · 약보험 · 치과 · 안경 · OTC

####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보험료” 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703-591-0009 / 703-537-9899



### 냉 · 난방

####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 · MD · 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LENNOX Carrier TRANE

Carrier, Lennox  
전문설치

AWARDED

Porch Home Advisor BBB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www.LBuniversal.com](http://www.LBuniversal.com)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 있는 가격  
[www.facebook.com/LandBUniversal](http://www.facebook.com/LandBUniversal)

### 건축 / 페인트

## TK 종합건축

Since 1988

####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 와니건축

###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데크, 그외 모든 공사

###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데크, 캐비넷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 유리 /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 헬스케어

##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법양해운

## 귀국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법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기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법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http://www.vapumyang.com) / [va.pumyang.com](http://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mailto:vapumyang@gmail.com)

KOREA(SEOUL) KOREA(BUSAN) USA(LOS ANGELES) USA(SAN FRANCISCO)  
02-2033-2033 051-469-4191 310-767-5099 510-9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http://www.HDmovingusa.com)

## 조양운송

20년 전문!!

신속 안전

▶귀국 이사 전문

신용 저렴

▶자체 창고 보관

▶타주, 시내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mailto:choyangusa@hotmail.com)

##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귀국이삿짐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타주이사

100% 자체보험으로

해외이사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시내이사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mailto: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위성통신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wp., #310, Annandale, VA 22003

### MD 업소 안내

#### 냉난방



##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 소 톡

소 톡

JD Star Pest Control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센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 골든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백금(Platinum)  
K14, K18, Setting 전문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세팅 전문  
순금 아기들 반지 팔찌  
남양 진주 각종 보석 취급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각종 보석 정가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 건축

##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 용자

##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응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http://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테아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703.909.0988**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설 분, 경매)  
**Hyundai**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핫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넥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hvac.com](http://www.intertechhvac.com)  
**703.380.2282**

궁금한 기사  
중앙 일보안에  
있습니다  
  
① 위성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JGL Construction Inc.**  
**JGL 건설회사**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MI 이사짐**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클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hvac.com](http://joytech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전기)  
Dishwashers,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야기 둘째자,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EVERSHINE Construction**  
KITCHEN & BATH BASEMENT REMODELING  
  
HOME REMODELING  
Patio / Fence / Deck / 기타 각종 집수리  
VA Class A License / DC / MHIC  
[evershine-construction.com](http://evershine-construction.com)  
info@evershine-construction.com  
**703.994.2943**  
Ray Kim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룰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571.229.4633**  
[www.bbgbblinds.com](http://www.bbgbblinds.com) bbgbblinds@gmail.com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 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형제건축·지붕**  
H BROTHERS CONSTRUCTION, INC.  
가정용 상업용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부엌 화장실 지하실  
**703-928-6255**  
14516 Flag Staff Ct, Centreville, VA 20121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팎 물새는 것  
**703.499.5984**

**홈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 수도꼭지 교체  
◆ 씽크 / 디스포제  
◆ 워터히터 / 물새는 것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셀프펌프 교체  
**571.594.4080**  
VA A 라이센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컨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미늄)  
• 제작 및 설치  
(기친후드, 닥트)  
• 보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 가능  
**DC, MD, WV 라이센스 소지**  
**301-222-3277**

블라인드 / 틴트

**“100% 한국산 공장직영”**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VA, MD, DC, PA, NC 전지역을 총괄하는 지사 오픈!!

• 한국산 지브라쉐이드, 전동블라인드, 룰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 최고급 공기정화, 항균 원단, 방염 기능  
•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무료 방문  
상담 및 견적  
**703.600.9031**



## Jim &amp;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Diana: (Calling into Eric's bedroom.) Come on Eric! If you want me to buy you new basketball sneakers you have to hop to it!  
다이애나: (에릭의 방 쪽을 향해 큰 소리로) 어서 에릭! 농구화 새로 사고 싶으면 서둘러라!  
Eric: Okay. It's just so hard getting out of bed this morning.  
에릭: 알았어요. 오늘 아침은 왜 이렇게 일어나기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Diana: And you better straighten out your room before we go.  
다이애나: 나가기 전에 네 방 치우는 게 좋을 거야.  
Eric: Is breakfast ready yet? 에릭: 아침 다 됐어요?  
Diana: I'm making eggs now; eggs and toast. Come on let's go.  
다이애나: 지금 달걀하고 있다. 달걀하고 토스트 야. 어서 해. 가자.  
Eric: (Walking into the kitchen.) I couldn't sleep a wink last night.  
에릭: 밤새 헬리콥터 떠다니는 소리 못 들으셨어요?  
Diana: No. I slept right through it.

straighten out a room: 방을 정리하다

(Diana is talking to her son Eric.)

(다이애나가 아들 에릭과 이야기를 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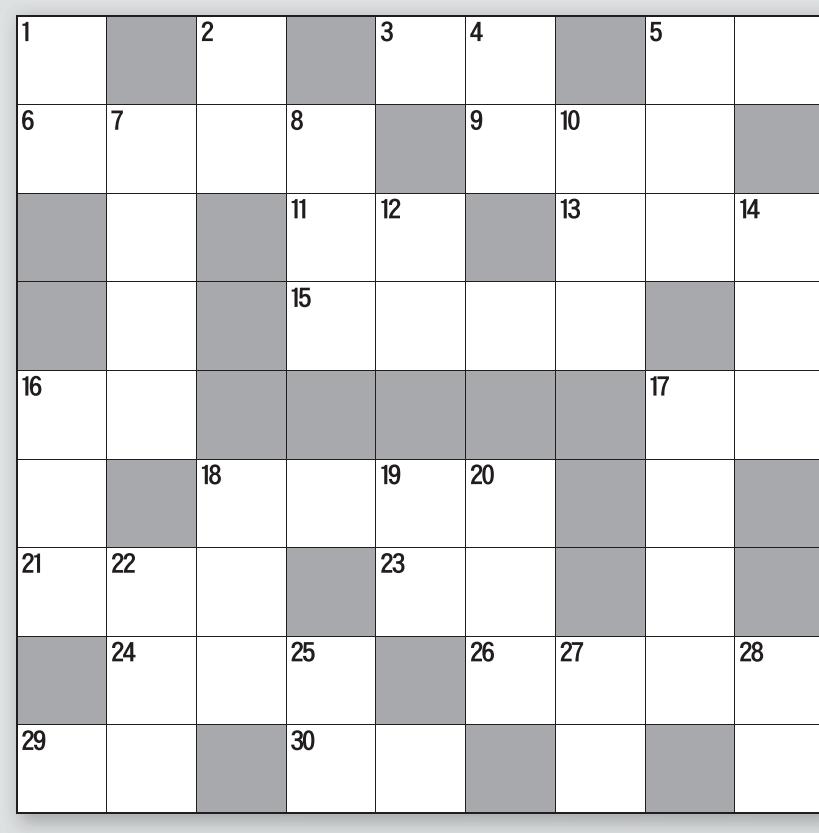
다이애나: 아니. 난 전혀 모르고 잤는데.

Eric: You're lucky. I couldn't sleep at all.  
에릭: 엄마는 운이 좋은 거죠. 저는 전혀 못 잤어요.

## 기억할만한 표현

▶ hop to it: 서둘러.  
"You're taking too much time getting dressed. Hop to it. We don't want to be late."

## 날짜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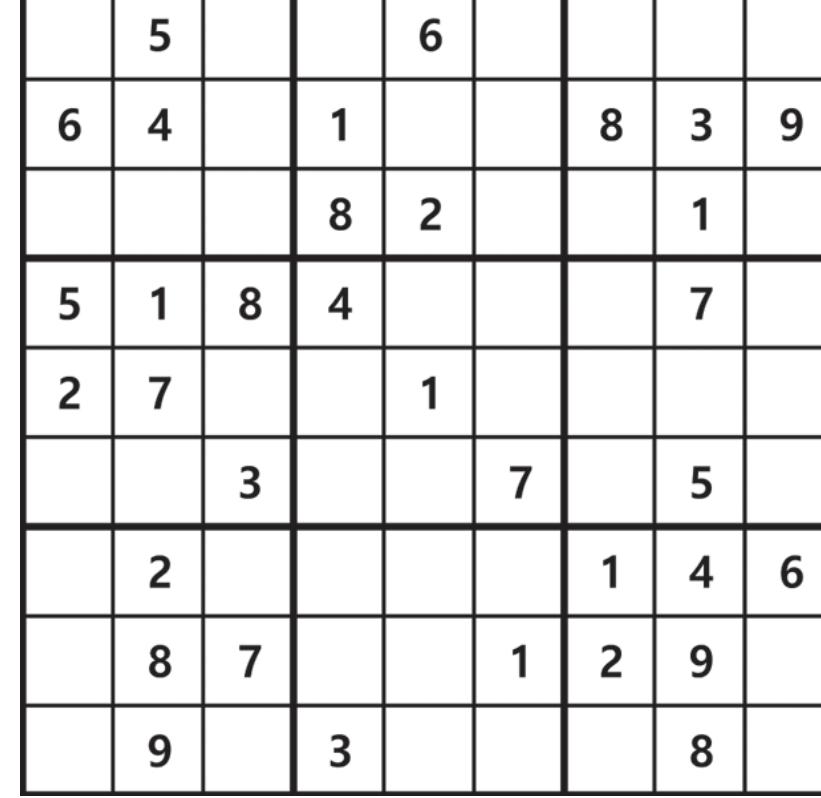
## 가로열쇠

(3)같은 수를 두 번 곱함. 9의 ~은 81이죠 (5) 칼로 음식의 재료를 썰거나 다질 때에 밑에 밭치는 것 (6)먹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겁어짐.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쉬움 (9)문을 바르는 데 쓰는 얇은 종이 (11)술과 들. 10만 평의 ~ (13)야구에서, 볼넷과 몸에 맞는 불을 합쳐 부르는 말 (15)물려받은 재산이 없이 자기 혼자의 힘으로 집안을 일으키고 재산을 모음 (16)논과 밭. 나의 고향에는 계단식 ~이 남아 있다 (17)저녁에 지는 햇빛. '서방(西方)으로 간다'는 동서양 말 모두 죽는다는 뜻이고/오늘 태안 앞바다 ~는/서쪽으로 갈매기 한 때를 날리며/바다 위에/한없이 출렁이는 긴 붉은 카펫을 깔았다(활동규) (18)산과 내와 풀과 나무. 자연 (21)거의 모두 다 (23)윗옷의 좌우에 있는 두 팔을 끼는 부분 (24)폭약이 터지도록 불을 불이 는 심지 (26)일이 뜻대로 잘될 때, 우쭐하여 뽐내는 기세가 대단함. 저자는 도대체 뭘 믿기에 저렇게 ~이야? (29)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있는 바다. 황해 (30)물건이나 자재를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건물

## 세로열쇠

(1)퇴근 시간이 지나고 난 밤에 직장에서 일을 함 (2)큰 절에 딸린 작은 절 (4)소의 작은창자. ~ 전골 (5)도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최고책임자 (7)잠자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음. 아무리 감언이설로 꼬이고 달래 봐도 그녀는 ~으로 일관 했다. □목□□ (8)검은깨. 영양을 듣고 대변을 부드럽게 한다 (10)일을 별이기를 좋아하는 사람 (12)사람에게 길이 들지 않은 악생의 사나운 짐승 (14)크기는 비둘기만 한데 온몸이 검고 자줏빛 광택이 나는 새. 사람의 말을 잘 흡내 내어 애완용으로 사육되죠 (16)멀리 내다볼 수 있도록 높이 만든 대 (17)바라던 일을 이루지 못하여 마음이 몹시 상함. □심□□ (18)동양화에서, 산과 물이 어우러진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린 그림 (19)보조를 서는 장소 (20)아직 코뚜레를 끼지 않고 목에 고삐를 맨 송아지 (22)전라남도와 대한 해협 사이에 있는, 섬이 많은 바다. 거제도, 남해도, 진도, 한산도 파워가 있다 (25)물가에 다리처럼 만들어 배가 닿을 수 있게 한 곳 (27)떡의 겉에 묻히거나 시루떡의 커와 커 사이에 얹는 가루 (28)아내의 어머니

## 스도쿠



자료제공=올드독 (www.gobook2.com)

##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 ① 워싱턴 중앙일보

## 1년 정기 구독료 \$150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2주 \$20, 월 \$3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Eng)	한글(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input type="text"/> EXP. DATE: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CVS: <input type="text"/>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w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wpk., #310, Annandale, VA 22003

Nation Wide

##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Liberty worldpay

www.worldpay.com

## 투자자 및 창업자 모집 안내

세계 1위 결제 솔루션 기업  
Worldpay의 공식 파트너사  
Liberty Bankcard(MPS)

브랜치 창업자 &amp; 소액 투자자 모집

캘리포니아와 미 주요도시  
신규 브랜치 오픈 예정  
2025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총 100명 한정모집

모집 대상

## 소액투자자 (50명)

\$5,000 투자 참여 가능  
운영 참여 없이 수익 배당

설명회 참여 필수

## 창업운영자 (50명)

지역 브랜치 창업 및 직접 운영  
초기 6개월간 고객 유치 협력

월 수익 \$2,000 ~ \$5,000 이상 가능

상담자 모든분께 책 증정 :  
International best sellers  
브라이언 트레이시 & 사라 류 박사 공저  
Succeeding In Business In Any market  
E-book 증정, 이메일/전화상담 환영  
info@meridianwish.com

## 철저한 교육 제공

- ▶ 가맹점 유치부터 수수료 배당까지 전 과정 안내
- ▶ 운영자 전용 창업/경영 교육 제공  
투자자는 설명회 후  
▶ 개별제 계약 가능

문의 (424)332-3779  
미전지역 가능대표 : 사라 류 박사 (경영학 & 영업학 박사, 하버드 경영, 정치, 교육 대학원 Alumni)  
[https://wikitia.com/wiki/Dr.\\_Sarah\\_Sun\\_Liew](https://wikitia.com/wiki/Dr._Sarah_Sun_Liew) 아브라함 이 (MBA)Info@meridianwish.com [www.worldpay.com](http://www.worldpay.com)

9465 Wilshire Blvd., Suite 300 Beverly Hills, CA 90212

기타 지역

구인

중식쉐프 &amp; 스시맨

일리스카/취업결격사유없는분  
숙식제공(858)337-0982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Leisure World Seal Beach, CA

##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9월  
햇산삼  
세일

천중산상

9월  
햇산삼  
세일Kim's Acupuncture Clini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213)407-4524

치질·출혈 수술 안하고 OK

항문풀림·변비·요실금 출혈  
직장과 대장암 발병 예방효과  
새끼 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기편합니다.

똥배·뱃살 요요없이 빠져요

기적의 티타늄벨트로  
허리통증·냉증도 탈출실제사례 [www.miracletouchusa.com](http://www.miracletouchusa.com) 검색

마리를 터치 (213)675-6877

## 20년된 한식점 일식당 급매

소자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현대자동차 등 협력회사 많은 지역으로 트래픽이 많은 지역입니다.

몽골베리 알라바마지역 가 \$10만 (Nego 가능)

(334) 669-4474

##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mailto:baksusa@yahoo.com)지긋  
지긋한

## 통증과 중풍

치료로  
기적을  
경험!

##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멜휘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별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치료전

치료후

10여일 만에  
빼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나  
실제 치료  
사례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깨끗하게 손질된 민물장어 판매  
바로 구워드십시오\$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문의

(832) 605-4890 • (281) 501-2623

어르신을 위한 연말연시 최적의 선물!!

건대추 판매 11월부터

중은 건대추를  
농장에서  
직주문 하세요!

전화 주문 714.833.4988 (Mrs. Han You)

건대추 미주 전지역 운송비 포함 가격

\$180  
\$1  
SOLD  
• 1BOX\$150  
\$12/lb 대추  
• 1BOX\$100  
\$7/lb 대추  
• 1BOX

\* \$12/lb 대추는 \$15/lb 대추보다 품질은 같으나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Pay by Zelle or check. No credit card. 하와이 알라스카 추가요금

묵은해 대추 : NO  
쪄서 말린 대추 : NO  
감미료 첨가 : NO  
화학비료 사용 : NO  
농약 사용 : NO  
중국산 대추 : NO

숙성된 퇴비를  
듬뿍 사용하여 재배한  
양질의 대추를 100%  
천연광으로 정성껏  
건조시켜 맛과 영양 보존  
상태가 최고인 고급 건강  
햇 대추입니다.



신선농원 714.833.4988 (Mrs. Han You) 2060 Darby St, San Bernardino, CA 92407



교통사고 치료 전문

# 멀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5년 임상경험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전문의 박종현

한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http://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mailto: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6  
Annandale, VA 22003  
(한국밀보 영 킨들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